

우리는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펴냄

마이더스 손이라

광주여성 생애구슬사 III

그레

여성 가사노동자 편

003

일러두기

1. 이 책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제3권으로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엮었습니다.
2.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된 광주여성구술채록단 가운데 다섯 명의 채록자들이 이 책을 발간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3. 이 책은 구술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동이나 행위는 ()로, 사투리나 줄임말, 은어 등은 []로 각각 표준어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습니다.
4. 구술 내용 중 각기 등장하는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가사노동자라는 단어는 모두 동일한 가사노동자를 의미합니다.
5. 구술자료 앞에 구술자의 간략한 생애개요를, 뒷부분에는 생애연보를 정리하였습니다.
6. 구술자 순서는 구술자가 가사노동자로 활동한 시대순을 따랐습니다.
7. 구술채록시 구술자 사진은 이지선님이 촬영한 것이며 나머지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차례

서문

수면 아래 뿌리내린 女의 경험과 삶,
지상으로 끌어내 함께 듣고 기록하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세 번째 채록집을 펴내며 10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가사 노동 가치의 공식화,
노동권 확립의 역사 직업인으로서 가사노동자와 광주여성의 삶 14
오창민 협동조합 정향 연구이사

여성 가사노동자 생애구술

주향복 22
“인생에 공짜는 없는 법이제”

한영숙 채록



정혜선 54
“이게 참는 보람이지”

조경미 채록



전희숙 88
“그림자 노동이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

김강현 채록



박연옥 128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반짝반짝”

장상은 채록



박정숙 164
“만족스러운 나의 삶, 나의 직업”

이정선 채록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사업 소개 기록되지 않은 개인의 편린이 모여 보편적 역사가 되다 204
진은주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구술채록·집필후기 당신의 삶을 기록하며 나의 길을 돌아보다 208
광주여성구술채록단

수면 아래 뿌리내린 女의 경험과 삶,
지상으로 끌어내 함께 듣고 기록하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세 번째 채록집을 펴내며 **10**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가사 노동 가치의 공식화,
노동권 확립의 역사

직업인으로서 가사노동자와 광주여성의 삶 **14**
오창민 협동조합 정향 연구이사

수면 아래 뿌리내린 女の 경험과 삶, 지상으로 끌어내 함께 듣고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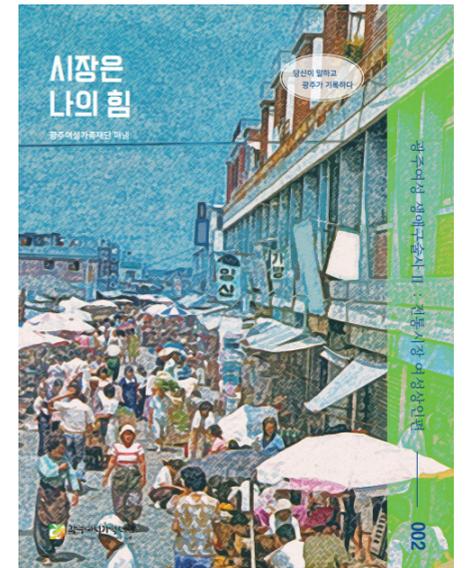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가사노동자'

식모, 가정부, 파출부, 아줌마, 이모, 도우미, 가사서비스직, 가사 근로자, 가사노동자, 가사관리사... 시대를 관통하며 참 많은 이름으로 불러 온 직업이 있다. 다른 가정의 가사일을 대행해 주는, 최근엔 이른바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로 부르는 일자리다. 과거의 식모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가장 많은 여성이 택했던 일이다. 집안의 입 하나를 열기 위해 남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어린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당시 식모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적 영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온갖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후 이 같은 가사노동은 가정부, 파출부 등의 이름을 거쳐 오늘날 가사노동자와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남성 실직이 크게 늘자 주부들이 사회로 나왔고,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가사노동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후 가사노동자라는 용어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부터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상용화됐다.

사실,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이 모두 함께 수행해야 할 가정 공동체 유지 및 재생산 기여 활동이자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무급의 허드렛일 정도로 여겨져 왔다. 현대 들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노동영역이 본격적으로 근로시장에 등장했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하며 지난 7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자'이자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로 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광주의 경우 현재 가사노동자로 종사하는 95%가량이 여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절대적으로 대다수인 직업군인 셈이다.



2023년 발간된 광주여성 생애구술사의 두 번째 시리즈인 전통시장 여성상인 구술채록집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때
가장 고단했던 이들에게



전통시장 여성상인 생애구술 집담회 중 김경례 대표이사 인사말 장면(2023.10.12.)

#광주여성 5인의 거칠지만 송고한 두 손과 삶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최전방의 일꾼이지만 '그림자 노동자'로 존재해 온 광주지역 가사노동자의 삶과 경험은 어떠할까?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들의 노고와 사회적 인권 가치를 수면 위에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비롯된 물음표를 거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이 여성들의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가사노동근로 실태 속 모습과 그에 대한 시대적 변천사를 담아내고자 했다. 그렇게 재단은 생애구술을 통해 지역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겠다고 연초 계획하며 진행했지만 구술자 모집부터 녹록지 않았다. 가사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탓에 구술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구술자로 확정되고 나서도 가족이 반대해서, 혹은 외부의 폄하하는 시선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가사노동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구술채록한 선례도 없다 보니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작업이라는 사명감이 강해졌다.

그렇게 광주의 여성 가사노동자 박연옥(1951년생), 정혜선(1954년생), 박정숙(1958년생), 주향복(1964년생), 전희숙(1967년생) 님 등 총 5명을 최종적으로 만나게 됐다. 이들이 가사노동 현장에 뛰어든 사연은 제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양상의 고단함을 보였다. 집안 경제에 일조하기 위한 딸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연도 그렇거니와 보험, 장사, 공장, 일반 회사 등 다양한 직종을 거친 뒤 가사노동 현장에 최종적으로 뛰어든 상황도 그렇다. 삶의 많은 이면과 사연을 거친 뒤 택한 직업이 그들에게 가사노동인 것이다. 구술자들의 삶 속 가사노동자라는 단어에는 가족을 위해 조각조각 부서지는 희생을 기꺼이 무릅쓴 송고함이 깃들어 있다. 이들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강단지게 삶을 이어갔고 그렇게 시대의 민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구술채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지점은 구술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다. 고단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된 가사노동자로서의 삶은 그들에게 오롯한 희망이고 기쁨이다. 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고, 건강만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직업이다.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은 뭇생각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다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 시선이다. 가사노동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가사노동자들을 폄하하는 인식으로 이어져 이들의 내적 자부심마저 갈아 먹고 있는 형국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이다.

한참을 생각하며 반문해 보았다.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동정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존경을 표현적이었던가? 조연 취급이 아닌, 주역으로서 대접한 적이 있었던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때 가장 고단했던 이들에게,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이 어머니들에게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네 가정과 사회가 잘 이어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귀하게 이 책을 드리고 싶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구술자분들과 채록·집필에 애써주신 채록자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그녀들의 생애구술채록 광주가 엮어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발간 사업'은 2022년에 시작돼 올해 2024년 세 번째 기획으로 진행됐다. 2022년에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을 만났고, 2023년엔 '전통시장 여성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마다 화제를 낳았고 반응은 뜨거웠다. 올해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반향이 클 것 같다.

이 사업의 화두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광주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내 여성사 자료로 발굴하고 축적하는 것이다. 수면 아래 뿌리내린 무수한 여성의 경험과 삶을 지상으로 끌어내 같이 듣고 함께 기록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다. 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 쓰기이자 대안적인 역사 쓰기'라 불리는 생애구술채록이라는 기록방식을 택했다. 사료나 문헌에서 만날 수 없는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이를 전문채록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기록하는 형식을 취했다. 해마다 사업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 주제나 영역을 정하면 지역사회에서 관련 구술자를 공모했고, 시민 대상으로 양성한 재단 구술채록단에서 채록자를 매칭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도, 기록하는 이도 우리 광주공동체 속 일원인 셈이다. 구술채록에 관해 전문 직업인들이 아니니 기록사업의 진행은 다소 더디고 좌충우돌 양상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 깊고 송고하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의 변화·발전과정에서 역사화 되지 못한 광주여성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여성사 발굴 및 아카이빙 구축에 힘쓰겠다. 지금까지의 책뿐 아니라 이후에 엮어질 다양한 분야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들은 그래서 향후 아주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 될 것이다.



전통시장 여성상인 생애구술 집담회 기념촬영 모습(2023.10.12.)

가사 노동 가치의 공식화,
노동권 확립의 역사

직업인으로서 가사노동자와 광주여성의 삶

오창민
협동조합 정향 연구 이사

1. '가사노동' 바라보기

가사노동은 사회를 유지, 재생산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사생활 영역의 비공식적인 노동, 부차적인 노동, 무급 노동으로 간주 되어왔다. 특히 가사노동을 여성 노동, 비전문적인 노동으로 치부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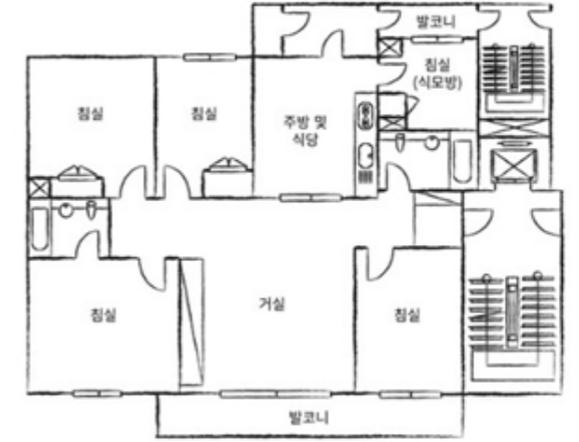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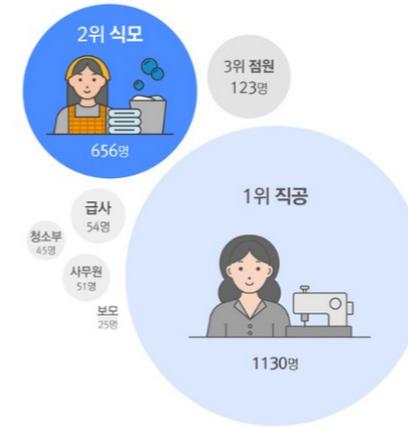
근대 산업화 초기부터 남성 중심 가부장제 아래 주로 '여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에서의 가사노동을 '비가시화된 노동'으로 폄하하고, 그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들을 '미천한 신분'으로 낙인찍기 일쑤였다.

우리 사회가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주부와 고객의 가정 내에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른 게 사실이다. 가사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기까지 근현대 100여 년의 역사를 구성해 왔다.

박연옥, 박정숙, 전희숙, 정혜선, 주향복 그녀들의 삶이 곧 그 역사를 보여준다. 그녀들의 구술은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삶의 질곡을 보여주며, 그 경험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그녀들이 어떻게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마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당당히 노동의 주체로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그리고 다시 누군가의 엄마로 곳곳하게 인생을 살아내면서, 지금은 직업인으로서 또 땀땀하게 가사일을 해내는 그녀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롤라가 아니겠는가. 구술집에는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그녀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가사노동자로서 사회적 관계 맺음과 우애로운 연대가 담겨 있다.

1960년대 삼경여성들의 희망직업 2위 식모
(서울시 부녀과 조사)



1979년 완공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평면도(주방 옆에 마련된 식모방이 있다)

출처 "한달 담배값에 식모를 두다", 중앙일보(2018.02.27) www.joongang.co.kr/article/22401925

2. 가사노동자의 호명 변화와 주체 형성

(1) 산업화 과정과 '식모(食母)'

1950년대 값싼 외국 농산물 원조로, 1960년대에는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인해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과 도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작농이 몰락하고,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된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식모 직업'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딸들을 도시로 보내 식모로 일하게 했다. 도시 중산층 가정 역시 가사 노동을 도와줄 저렴한 인력이 필요하였다.

당시 나이 어린 여성은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을 떠나 식모살이를 선택하였다, '나의 고생이 우리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동생들의 학비를 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이 잘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희망 속에서 '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식구 많은 가정에서 한 끼 한입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소녀들을 식모살이 시장으로 진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¹

1 강석금(2015),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pp. 242-243, 「진보평론」 64호.



“헤쳐본 고정관념 그 저류”, 「마산일보」 (1966.12.25)⁴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다 사회 진출에 각종 제약이 뒤따랐던 당시 여성들이 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 식모였다. 상경한 소녀들은 남의 집 부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들은 도시의 가정살림을 움직이는 동력 역할을 하였다.

당시 10대 어린 식모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² 60년대 식모살이를 했던 많은 나이 어린 소녀들의 절실한 요구 중 하나가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식모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 60~70년대 식모와 관련된 비인간적인 대우, 절도 및 유괴, 살인사건, 자살사건, 식모 매매 등 사건·사고 기사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은 흔했다.³

1966년 12월 25일 「마산일보」 기사⁴에 따르면, “식모는 휴일도 없이 혹사 당해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사치스러운 양단이불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이며, 올바른 사람값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에도 진보적 지식층에서 식모의 인권을 이야기했지만, 다분히 측은지심의 감성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모는 계약관계를 통한 직업인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인집 가족의 수발을 들거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등 과거 봉건적 신분의 연장선상 ‘하녀’와의 삶과 같다.

고(故)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1960)⁵는 한 중산층 가정에 하녀(식모)가 들어와 살다가 주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이후 하녀의 집착과 분노 속에 파괴되는 가정을 그린 스릴러 영화이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계급 문제, 젠더와 권력관계 문제 등을 날카롭게 예술적으로 비판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특히 하녀 캐릭터를 통해 당시 사회에서 억압받던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을 표현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건·사고와 연루될 때만 ‘가십거리’로 취급받았지만, 실상 주체로서 식모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담고 있었다. 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입주제 식모는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이 성장하였

2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김원(2004),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203쪽
4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아카이브(www.nl.go.kr/newspaper/)
5 2024년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계와 언론, 창작·산업계 관계자 240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장르·예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의 한국영화로 선정됨



김기영 감독, 영화 「하녀」

고, 나이 어린 여성들은 이제 공장으로 유입되었다. 사회문제화된 식모 인권유린은 역설적으로 식모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1960년 후반부터 식모 구인난 및 ‘식모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YWCA는 ‘식모 없는 살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식모의 시간제노동(파출부)을 구상한다.⁸ 시간제 식모 실험은 YWCA야간공민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의 여성 10명을 선정, 파트타임(시간제)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이후 한 달 동안의 훈련을 거친 후 회원 가정에 보내 그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다.⁹

광주 YWCA에서도 별빛학원¹⁰에서 식모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 YWCA처럼 회원 대상 시간제 식모(파출부) 사업을 펼쳐 나간다.¹¹

6 봄·가을 가정에서는 식모 파동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식모들은 계절에 따라 옮겨 앉은 후 이때 곧잘 이동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갑작스런 이동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주부들은 그 대책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된다. (중략) 우리의 주택구조나 생활방식으로는 식모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던지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식한 주부로 인해서 당하는 인권유린·노동시간의 과중·적은 월급 등 불만이 많아서 곧잘 이웃집의 대우 좋다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만 있으면 옮기려 든다. 『동아일보』, “주부들 요구로 등장할 시간제 식모”, 1966. 11. 10
7 주부가 살림할 줄 모르고 모든 걸 식모에게 맡긴다는 비판이 팽배. 예전 대가족 시대에는 집안일이 많아서 식모가 필요했겠지만, 핵가족 시대에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대두
8 「조선일보」, “신가정경영학 ③ 식모없는 살림”, 1967.01.15
9 『동아일보』, “주부들 요구로 등장할 시간제 식모”, 1966. 11. 10. YWCA는 1966년부터 가정부(파출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소속 회원 가정에 파견하기 시작함
10 별빛학원은 1961년 2월 YWCA 총무였던 조아라 여사가 캄캄한 밤 어둠의 길잡이 구실을 한다는 모토 아래 YWCA 2층에 창설. 『경향신문』, “양지 제30화 배우면서 가르치는 보람”, 1966. 12. 21.
11 “1970년대 당시 여성분들이 경제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해서. 그때는 파출부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고 새벽에 와서 줄 서서 교육받고 했던 그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원센터(202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터뷰」(2022. 4. 15.)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매일경제」
 “YWCA에 연락을.. 가정부·파출부를 보내줍니다” 1970. 1. 24

(2)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파출부(派出婦)

197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과거 식모들이 했던 업무 중 많은 것들이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임금이 올라가 일반 가정에서는 식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농촌 여성들 또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더는 '하녀' 같은 대우를 받는 식모를 원하지 않게 된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식모는 '가정부'라는 용어로 변화했으며, 이제 주로 기혼 여성들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가 다양해지면서 전일제 가정부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비용도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시간제로 일하는 파출부(시간제 가정부)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파출부 노동은 가정집에 상주하지 않고 일정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노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파출부 노동은 여성의 부업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나, 많은 여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노동이었다.

그러나 1990년 초까지도 '가사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여전히 전문 직업으로도 보지 않았다.

(3) 노동인식의 변화와 가사관리사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분위기가 바뀐다. 해고와 대량실업,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양산, 그로 인해 빈곤층 발생과 이혼율 증가로 여성 가정이 늘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맞벌이 증대로 점차 수요도 확대된다.

인구가 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사서비스에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비 형태도 변화하고, 가정 내 가사서비스 노동이 사회화·상품화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된다. 주요한 산업으로서 가사노동, 가사서비스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모, 가정부, 파출부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 '가사도우미'¹²⁾에서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사 등으로 용어도 바뀌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한다.

가사서비스 업계에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 필요성이 제기되자, 2023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그간 다양하게 불렸던 호칭을 가사관리사로 명명화·공식화¹³⁾ 한다. 물론, 현장에서는 아직도 '관리사' 호칭보다는 '아줌마', '이모님', '저기요' 등으로 호명되고 있지만, 점차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변화는 단순한 어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을 반영한다.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자의 지위가 변화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보겠다고

무등산 같은 데서 캠페인도 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지만, 그때도 조합원들이 부끄럽다고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플래카드 들고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저희를 가정관리사라 불러주세요’이려고”

- 주향복님의 구술 중에서 -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내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일반화시켜 가는 과정은 가사노동자의 문제 제기 및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¹²⁾ 가사노동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상 ‘가사도우미’, 코드(9511)로 분류된다. 향후 개정 시 ‘가사관리사’라는 직업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¹³⁾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3. 8.2. “아줌마? 이모님?...이제 ‘가사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관리사’로 공식화함

3. 가사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 그 내용 중에는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등 건강과 안전권 보장도 포함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안전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즉,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배제 조항으로 인하여 재가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법적 권리를 오랫동안 보장받지 못했다.

2021년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2022. 6. 16¹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1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조례」(가사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역 내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¹⁵ 현재 가사노동자는 시간제, 호출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대다수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여전히 가사노동자 관련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최근 가사서비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온라인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O2O 중개방식은 이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이용 시간, 이용자의 집 면적, 정기성/일회성 여부, 가족의 수, 반려동물 유무, 기본 청소, 정리 정돈, 베이비시터, 가전 청소 등 받고 싶은 가사 관리 분야에 대한 옵션을 앱에서 선택하면 가격이 제시되고, 결정되는 형태이다.

가사노동은 예전부터 다녀왔던 성격과 더불어 IT-플랫폼과 결합하여 나타난 새로운 성격이 뒤섞여 있다. 가사노동은 첫째, 가정 내 사생활 보호와 근로감독의 어려움, 둘째, 이용자 책임 규정 미흡·모호, 셋째, 앱 기반 가사서비스 알선기관 등장에 따른 가사노동시장의 변화, 넷째, 앱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젊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자 유입 확대, 다섯째, 가사노동자의 노동 자율성 증가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시장 확대, 여섯째, 이용자 중심의 가사노동자 평가와 평가 정보공유, 일곱째, 가사서비스 직업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미비 및 온라인 직무교육 확대 등의 경향과 특징을 보인다.

¹⁴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다.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가 제100회 총회에서 제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기념으로 지정하였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다.

¹⁵ 2024년 광주광역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여성가족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장애인복지과)' 등 3개이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의 발전은 시장 확대와 접근성 향상, 활용 절차 용이성 등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무엇보다 좋은 평점을 얻기 위해 추가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다.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권 보호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고용불안정, 성별 직종분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로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쌓여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위한 시도¹⁶는 국내 가사노동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절하가 예상된다.

오히려 국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참여 확대, 가사노동의 사회화,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설계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4. 광주지역 가사노동자의 삶과 구술의 의의

자신의 내밀한 삶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자기 성장과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사회적 의미 생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그녀들의 이야기는 그 시절 여성 집단의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되묻게 된다.

식모-파출부-가사관리사 등 가사노동자에 대한 용어 변화의 역사만큼이나 스펙타클한 것이 그녀들의 삶이다. 사회의 중요한 재생산 노동인 가사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 대신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시간들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열시와 천대, 비가시적 존재로 여겨졌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빈곤의 문제를 자신의 몸과 실천을 통해 곳곳하게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존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삶을 재구성했다. 가사노동을 대리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노동이 아님을 우리 사회에 확인시켰고, 이제는 가사노동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며, 매우 가치 있는 필수 노동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그녀들의 삶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 제도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확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역 가사노동자의 삶과 노동경험을 언어화, 문서화하는 작업은 큰 의의를 지닌다. 기존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거대 서사나 공식 역사에서 누락된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미시사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지역 가사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 속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내준 구술자와 그 기록 작업을 진행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작업이 빛을 보기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에서 담론화되고 공론화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광주지역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천 전략 마련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¹⁶ 양육가정의 가사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필리핀 100명, 고용허가제(E-9) 비자) 시범사업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추진함.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2025년 2월(6개월)까지이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3,700원(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알아보기"

인생에
공짜는 없는
법이제

주향복 한영숙 채록



주향복은 1962년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서 3남 2녀 막내로 태어났다. 호적에는 1964년생으로 두 살 어리게 올라 있어 9살에 입학했다. 당시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을 하셨고, 집안은 대대로 물려온 농사도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풍족한 유년기를 보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은 도시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뜻에, 오빠들을 따라 부산으로 유학 가서 중학교에 들어갔다. 사춘기 한창 예민한 때에 부산 사투리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형제들이 어떻게든 공부를 더 시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워낙 본인의 주장도 강한 데다 학교생활에 흥미까지 없어, 결국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

당시 열여덟 살이나 많은 큰오빠가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향복은 집과 가게를 오가는 잔심부름을 하였고, 오빠가 주는 풍족한 용돈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으니, 직장은 다닐 필요도 없었던단다. 이런 연유로 주향복은 결혼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다.

1989년 27세가 되던 해 셋째 오빠 친구의 동생과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다. 신혼살림은 남편이 사는 여천에서 사글셋방부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 첫딸을 출산하였고, 백일이 지났을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결혼한 다음 해에 여천에서 광주로 올라와 남편과 함께 백운동에서 월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1991년, 둘째를 임신한 9개월 만에 친정어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첫째 출산할 때 수술했던 자리가 터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한 달 뒤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백운동에서 2년 동안 운영하던 목욕탕 사업을 접고, 영광으로 내려가서 시댁 식구가 운영하는 목욕탕 사업에 합류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자 그는 직원관리와 청소 등 목욕탕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았고, 그간 모은 돈으로 광주 월산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다.

영광에서 광주로 이사했지만, 영광으로 6개월간 출퇴근하면서 목욕탕일을 돕고, 2년 6개월 만에 그 사업을 접었다. 집에서 본인의 아이들과 남의 아이 돌보기를 했고, 틈나는 대로 옷자리 만들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부업을 하며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2005년 1월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 붙은 여성노동자회의 가정관리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교육을 받은 뒤 가정관리사로 취업하였다.

활달하고 야무진 성격을 인정받아 1년 만에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문화부장이 되었다.

2008년까지 활동하다가 3년 만에 사퇴하고, 현대방역 소속업체에도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하였고, 2010년 호텔 청소업체로 직장을 바꿨다. 남보다 손이 빠른 편이라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2년 8월 남편이 작고하였고, 그 충격으로 잘 다니던 호텔 청소업체도 2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다. 남편이 생전에 그이 몰래 시동생들에게 보증을 서 준 것이 탈이 나고 만 것이다. 젊음을 바쳐 장만했던 아파트에서 십 원 한 장 없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니 갈 곳이 없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그이가 살았던 아파트 옆, 주택 2층에 월세로 살게 되었다.

남편의 사망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질병명이 '모서리 증후군'이라고 하였다. 남편도 직장도 집도 잃은 그가 결국 희귀한 질환까지 알게 되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은 덕분에 지금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2013년 1월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 광주지부에서, 주향복에게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사람 죽으란 법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실감 난다. 실의에 빠져있던 그에게 이번에는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지부장 직책을 맡게 되는 행운이 따랐다. 컴퓨터 사용은 물론, 지부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르게 습득했다. 지부장이 된 2년 뒤 2015년에는 빛나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사장과 지부장을 겸임하다가 2017년, 전국 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지부장으로 4년, 빛나홈 이사장으로 2년을 끝으로 퇴임하였다.

돌아보니 주향복은 수많은 노동의 현장을 누볐다. 목욕탕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관리사, 아파트 공동 주택의 소속하는 사람으로, 김밥집 아르바이트, 호텔 청소업, 자활사업에서 호도판 매, 포도밭 노동, 육아 돌보미 등등 육체적 움직임이 있는 노동의 장소에서 여성 가장으로서의 몫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살았다.

지금은 딸의 직장이 있는 남양주에서 외손녀를 돌보며, 그야말로 자신의 가족을 위한 내 집 지키미 행복 관리사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용돈은 꿀맛인데

저는 고향이 전남 순천시 해룡면이고 3남 2녀의 막내딸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을 하셨어요. 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가 많아 풍족한 유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간 것은 아들은 대도시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저도 덩달아 따라간 것이고.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중학교를 나왔네요.

부모님은 자식 잘되라고 대도시로 보냈지만, 정작 저는 부산 생활에 쉽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말부터 부산 사투리가 어설프고, 말이 잘 안 통하니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치 못했네요. 더구나 집에서 막내로 자란 탓에 성격도 좀 까칠했고, 주장도 강한 편이라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저런 연유로 공부에 흥미가 없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게 됐어요. 언니, 오빠들은 저를 공부시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정작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사춘기를 그저 맘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열여덟 살이나 많은 큰오빠가 부산에서 금은방을 했는데, 그 오빠한테 심부름 덩기면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천방지축으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집안도 넉넉했겠다 공부든 뭐든 열심히 했으면 중

년의 삶이 쪼까 순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모두가 지난 일이고 젊어서는 그리 살라는 게 제 운명이었다고 생각하네요.

부산에서 스물일곱까지 용돈을 풍족히 타서 쓰면서 그리 편하게 살다가 느닷없이 아버지 성화에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결혼은 생각도 안 했지요. 다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행복이(집에서 부르는 이름) 빨리 결혼시켜야 한다”라고 결혼을 서둘렀지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고, 말대답하면 아버지께서 “이 철딱서니 없는 것을 어쩌냐,” 눈물만 흘리셨지요.

결혼 후 안 일이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큰 병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철딱서니 없이 제멋대로 살았으니 무슨 철이 들어 결혼 생각인들 했겠어요? 집에서 서둘러 보니 만나게 된 남편감이, 오빠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오빠와 시숙님은 전남대 동문으로 둘이 친구고요. 서로 동생을 소개해서 만났는데 인물이 괜찮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일은 누나와 매형이 하는 사업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는 신랑감 인물 훤히 집안 좋으니 직업을 따지고 말 것 없이, 결혼을 쉽게 승낙했지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 뜻에 따라 결혼이 결정된 것이지요. 요즘도 이런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은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부자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지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안심하고 결혼시켰겠지요.

그런디 막상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리니 들어갈 집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리 믿고, 우선 사글세로 살림을 시작했어요. 신혼 때는 사글셋방에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조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디 웬걸, 시간이 지나도 계속 월세로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뭐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생애 점점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준비 안 된 엄마에게 다가온 이별들

1990년 3월에 결혼해서 12월에 첫딸을 낳았어요.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허니문 베이비 그런 거였나 봐요. 아기가 그리 빨리 들어설 줄도 몰랐고요. 결혼 후 아버지 병환은 깊어지고 엄마는 그 병시중하시느라 제가 출산했어도 도움 줄 겨를이 없었지요.

출산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저 빨리 시집보내야 한다고 그리 서둘렀던 것은, 당신 병 때문이었더라고요. 딸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 못하고 돌아가실까 봐 안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병환이 깊은 줄도 모르고, 시집 안 가겠다고 핑깁'이나 부렸으니, 저도 어지간히 집안 사정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게지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저만 보면 “불쌍한 것”이라고 눈물 흘리셨던가 봐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 제가 결혼했고, 첫아기 백일도 보고 돌아가셨으니 그나마 한 가지 효도는 한 셈이었네요.

1 '생때'의 방언으로 경남, 전북에서 쓰임: 생때를 쓰다. 억지 부리다.



마산에서 12개 지부장 중앙 간부회의 참석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 보니, 부모님 소중함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저 결혼시키고 몇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막상 제가 아기를 낳았어도 친정엄마로서 따뜻한 손길은 보태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기특한 것은, 출산 후 엄마바라기가 아니라, 스스로 육아도 책임지고 아무지게 아기를 건사했다니까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되었어요. 결혼하니 얼마나 많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육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물어가면서 아가를 책임지고 키우게 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누나랑 매형 사업하는 것 돕느라 바빠서 육아에 도움이 안 되었고요. 그 시절은 제 남편뿐 아니라 대부분 남자가 다 그럴 때였구먼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면서 결혼 생활이 분홍 장밋빛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지인 결혼식에 갔는데 식장에서 '판판 따다~판판 따다'하고 신부 행진곡이 나오잖아요? 그 리듬이 '속았구나, 속았구나, 주행복[주향복]이 속았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언제나 늦게 오는 법.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보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확 깨져버린 것이지요.

여천에서의 신혼 생활은 첫아기 출산의 기쁨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사별을 겪은 아픔이 있는 곳이었네요. 2년 후에 광주로 올라와 둘째를 임신했는데 이때는 뭘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둘째 출산 한 달 남겨 두고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식도암으로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까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그때가 둘째 임신 9개월째 되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첫째 출산 때 제왕절개 수술했던 자리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9개월짜리 아기는 출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상처가 아물고 나서야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를 출산했어요. 둘째 낳기 전에 벌어진 상처를 치료받고 수술하는 과정은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슬픔이 어찌나 큰 고통이었는지. 세상에 뭘 이런 팔자가 다 있대요. 아이 둘 낳고, 엄마 아빠 두 분하고는 사별하고, 그 고통을 어찌 감내하고 지냈는지 세상 참으로 허망하고 만만치 않았네요.

그리고 보니 제가, 삼십 대까지 아이 둘 출산하고, 부모님 두 분과 사별했으니 인생 대소사를 한꺼번에 다 겪어 버린 셈이지요. 결혼하고 나서 이리 큰일을 한꺼번에 당하고 보니, 이때부터는 세상 사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디 그뿐 인 줄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를 총 열한 명의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거의 2년에 한 명씩 가족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엄마 가시고 2년 있다가 우리 둘째 오빠가 가셨고, 또 조금 있다가 금은방 하며 제게 후한 용돈 주셨던 큰오빠,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는 건지. 그러더니 이젠 시댁 식구들 쪽에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댁 큰고모, 작은고모 차례로 돌아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과 사별하느라 그간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가들은 내 집에서 키우려고

스물여덟 살 결혼 2년 만에 여천에서 광주로 올라와서 백운동에서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네요. 월세로 이십만 원 췌으니 그때는 엄청 비싸게 세를 췌구먼요. 이때부터 제가 가사를 책임지는 근로 현장에 뛰어든 것이었네요. 둘째 임신 중이었고 첫째는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탕을 운영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도와주니 많이 도움이 되었지요.

그때 목적은 단 하나. 어떻게든 아가들 학교 가기 전에 내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각오 하나였으니까. 2년 동안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남편은 다시 형 사업에 합류하고 저는 아이 둘 데리고 시부모님 계신 영광으로 내려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영광 터미널 근처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입장료 받고, 저는 목욕탕 청소하고 직원들 끼니 챙겨주면서 목욕탕 전반적인 관리를 했네요.

영광에서 2년을 이렇게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 그간 모았던 돈과 합쳐 광주 월산동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더라고요. 드디어 내 집 마련 목표가 이루어졌고, 저는 의기양양 내가 마련한 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물론 이사한 뒤에도 6개월 정도 영광으로 출퇴근하면서 목욕탕 일을 마무리했지요. 젊어 고생 사서 한다고 이제 내 집 마련을 이뤘으니 온전히



대전 중앙회의 10개 지부 참석하여 활동사항 보고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내 집에서 내 손으로
키워야겠다는
맘을 먹게 되더라니까요.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하려고 맘먹었어요.

제가 신혼 때 사글세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남의 집에 살아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내 집에서 키워야겠다는 맘을 먹게 되더라니까요. 왜 그랬냐면, 아이가 울거나 하면 자꾸 주인집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그 꿈을 이뤘으니 아이들 교육도 내 손으로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지 뭐예요. 남의 손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유치원도 보내지도 않고 제 나름대로 집에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다 보니, 남편 수입에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형 사업 돕는다며 조금씩 월급을 받아 왔는데 그 별이가 뻥하잖아요. 집에서 아이 둘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액세서리 만드는 일, 돛자리 만드는 부업을 했어요. 제가 손이 빠르니까 누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잠깐 나가서 일손을 돕는 식으로 생활에 보탬을 찾았네요.

가정관리사로 일하기 전까지 한 십 년 정도는 돈이 되는 부업을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구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마땅한 직업도 없이 살아서는 앞으로 아이들 교육이며 생활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시 무슨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취직자리를 찾아야 할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였어요.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에 붙은 '가정관리사 모집' 광고문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관리사 딱, 내 적성이야

아파트 현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면서 '가사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궁금해서 바로 전화로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교육이 있으니 한번 나와 보라 하더라고요. 당장 농성동에 있는 광주 여성 노동자협회에 가서 2기생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때 가정관리사 교육받은 게 제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교육은 농성동 여성노동자협회에서 가정관리사와 소비자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청소하는 방법과 청소 순서, 보안과 안전에 관한 이론교육을 1주일 정도 받고,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물론, 이론교육 끝나고 현장실습도 1주일 정도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저는 어떻게든 일을 빠르게 배우려 노력했어요.

가정관리사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집안 청소요. 그거 하나만큼 똑 떨어지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더구나 성격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안에 뭐가 늘어지고 어지럽혀진 꼴을 못 봐요. 또 제가 손도 엄청 빠르고, 정리 정돈 잘하고, 일하는 감각도 있고, 더군다나 키도 좀 큰 편이라 높은 곳에 손이 닿기 쉬워요. 이런 장점을 살리면 가정관리사를 잘하겠다는 자신감이 딱 생기지 뭐예요. 여기서 교육까지 받았으니 금상첨화 아닌가요? 저는 이런 장점 하나 믿고 가정관리사 일을 시작했네요.

교육이 끝나고 처음 일을 나갔던 집이 저기 양동시장에 있는 무슨 병원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서 하루 4시간 일 하는데, 그때 돈으로 한 달에 팔십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무슨 가사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청소하고 정리하면 된다고 해서 다음날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전 계시던 분이 자기는 월 백이십만 원을 받고 일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팔십만 원을 준다는데 이건 뭐지?' 의문스러웠지만, 일단은 한번 겪어봐야겠다는 싶어 다음날 그 병원 건물에 나갔어요. 거기에서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갔는데,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뭔지 아세요?

그 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개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집 청소와 개똥 청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 집 청소만 한다고 들었는데. 송아지만큼이나 큰 개집과 개똥까지 치우라고 하니,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전 가사 일을 하는 사람보다 급여도 적게 주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협회에 와서 사정을 다 말

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뒀어요. 하마터면 제가 개똥 치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처음 간 집에서 이런 일로 돌아왔던 씁쓸한 기억이 잊히지 않네요.

그다음 간 집에는 둘이서 일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저하고 짝꿍으로 간 분이 저와 일손이 잘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인데,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네요. 그분과 교육을 같이 받으려 간 것이 인연이 돼서, 둘이 같은 조로 일하러 갔고, 그 언니가 “너나 나나 잘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까지 주니 힘이 더 날 수밖에요. 그 집에서 두 시간을 일했는데 둘이 오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때 4시간도 안 하고 오만 원을 받았으면, 엄청 많은 돈을 받은 거네요. 그분하고 일 해보니 우리 둘이 손발이 척척 잘 맞은 거예요. 우리를 본 고객님도 둘이 일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지 뭐예요. 그 집을 계기로 내가 가사 일을 해도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혼자 나가도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본격적으로 가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둘이서 한 조를 이루어 다닌다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자신감도 생기고 둘이라 서로 의지도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더구나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게 되니, 앞으로는 나 혼자 나가더라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붙게 되더라니까. 초기에 일은 이렇게 시작했고 그 한 집만 하다 보니 수입도 적고, 그래서 다른 집을 더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고객을 넓혀 나가게 된 거지요.

보통 가사 일을 나가면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져 놓고 그 집에서만 일하는 불박이가 아니고 가정관리사가 한 집에 매여 일하거나,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았어요. 이렇다 보니 처음에 한 집 가서 일이 조금 익숙해지면, 또 다른 집을 넓혀 가고, 자기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방문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하고, 가끔 두 번이나 또 어떤 집은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세 번까지 원하는 집도 있어요. 대개 25평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일을 정해진 날에 가서 하면 되는 거라 시간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나간 집에서 일이 끝나니까 “우리 집에서 꾸준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저보다 그 집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가정관리사에게 그 집을 양보해 주고, 저는 또 다른 데를 찾는 식으로 일자리를 넓혀 갔어요. 하여튼 그 일을 다니면서 가장 큰 평수는 68평까지도 일 하게 되다 보니, 가사 일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요. 더구나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돈도 좀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오전 오후로 하루 두 곳을 일하러 나갔네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고,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제가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아 우리 신랑이 그때부터는 딱 놀게 됩니다. 그 시원찮은 벌이도 그만두더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안 갔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중 한 사람은 아이들 관리를 해야 하니까. 남편이 그 일이라도 맡아주면 고마운 일이었지요. 열심히 가사 일을 하면서 오전 오후로 일을 나갔지만, 그때는 피곤한 줄도 몰랐다니깐요. 돈 버는 재미로 마냥 즐겁게 일하러 다녔네요.

제가 원래도 정리를 잘했지만 가사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 누가 저의 집에 방문하면, “뭘 집이 이렇게 깨끗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성격상 아이들이 있어도 집안 정돈 안 된 것은 못 참는 성미라고 했잖아요. 정리를 잘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 더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게 딱 내 적성이야, 진작에 목욕탕을 안 하고 이걸 했더라면...’하는 생각도 들었 다니깐요.

그렇다고 가사 일로 수입이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먹고는 살 수 있었잖아요. 저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일단 애들이 태어났으니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부모 역할을 다했는데도 만약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든지 뭐 어쩔든지 이러면 절대 강제로, 공부해라 말아라 이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소홀하거나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맘먹은 계기가 있어요. 가사 일을 하면서 한 일 년 동안 한부모 가정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집 아이들 보고 느낀 것은, 아이들한테 때가 있으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부모가 힘든 것과 상관없이 자식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때 아주 큰 공부를 한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사 일을 오전 오후로 다니면서도 엄마 역할을 다했네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아이들 아침밥을 굶기거나 아이들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못 먹어도 아이들 아침밥과 저녁에 오면 먹을 간식을 꼭 챙겨 먹였으니까요. 제가 가사 일을 하면서부터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아침저녁은 물론, 간식까지 굶겨 본 적은 없어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딸애가 저녁 늦게 오잖아요? 그때 우리 애는 간식을 안 먹으면 잠을 안 잤으니까, 저녁에 먹을 간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일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보통 오전 오후로 일하면서도 아침 5시나 5시 반에 일어났고, 새벽 1시 정도 돼야 잠

을 잤다고 보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이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또 제 일이었으니까요. 가정관리사로 2005년에 교육받고 2017년까지 일 했는데 중간에 남편 돌아가시고 몇 년,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 쉴 때가 있었으니, 실제 가사노동자로 일한 기간이 한 10년 남짓 된 거 같네요.

저의 여름철 화장실 청소 스타일

저는 가사 일을 나가면 옷부터 먼저 딱 갈아입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 스타일이네요. 물론 남의 집이다 보니 다른 것은 내 맘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청소하는 순서나 방법은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하러 나가면, 남의 집이지만 물과 전기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 청소를 뜨거운 물로 하는데, 뜨거운 물로 청소한다고 해서 화장실이 깨끗하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뜨거운 물은 습기가 더 많이 차서 청소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고요. 절약 차원에서라도 뜨거운 물 사용은 피해야 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고객님께서 우리를 배려한다고 ‘에어컨 틀어 놓고 청소하세요’이리 말씀하시는데, 덥다고 에어컨 틀어 놓고 청소하면 되겠어요? 문 닫고 에어컨 틀어 놓고 청소하면, 그 집 안에 있던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대로 남잖아요. 이렇게 하면 낭비일 뿐 아니라, 청소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청소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지 일한 맛이 제대로 나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러 나가면 일단 창문부터 활짝 열어 놓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은 틀지 않네요. 청소하면서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의 집이지만, 전기나 물 쓰는 것 하나까지 내 집처럼 절약하면서 청소하는 게 당연하고, 주인이 이런 알뜰한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짧은 시간에 깨끗이 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세제는, 마트 같은 데 가면 많이 팔아요. 그런데 저는 락스와 주방 세제를 1: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네요. 그러면, 물때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때까지 아주 잘 씻겨요.

청소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지 일한 맛이 제대로 나지요.

특히 여름에는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물때도 더 많이 타고,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저처럼 세제와 락스를 희석해서 청소하게 되면 향기도 좋고 반짝반짝 윤까지 난다니깐요. 목욕탕에서 특히 때가 많아 탄 곳이나 곰팡이가 많이 있는 곳을 청소할 때는, 먼저 락스를 조금 묻혀 놓는 것도 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몇 분 후에 물로 씻으면 물때와 기름때가 잘 씻어지고요. 화장실 벽타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아 내려가면 돼요. 이때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이제 아시겠지요? 락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꼭 찬물로 씻어 내린 다음, 마른 수건 걸레로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닦으면 깨끗하게 되거든요.

화장실 구석구석에 물기가 하나도 없게 다 닦아놓고, 그 걸레로 베란다 청소할 때 다시 쓰면 참 좋지요. 락스랑 세제가 걸레에 묻어 있는 상태라 향도 나고 세제를 다시 쓰지 않아서 절약도 되고요. 이렇게 쓰고 난 그 걸레를 빨면, 락스랑 세제가 묻어 있어서 걸레도 화장실도 깨끗하고 베란다까지 말끔하네요.

화장실 청소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유리 닦는 세제 있잖아요? 요새는 화장실 유리를 청소하는 연마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이소에 가면 많이 있어요.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연마제 같은 것으로 거울에 싹 뿌려 놓고 닦아주시면 린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반질반질해요.

거울도 마무리는 극세사 걸레로 하세요. 그걸로 한 쪽 방향으로 닦으면 돼요. 이쪽저쪽으로 번갈아 걸레질하게 되면 거울에 자국이 남아서 깨끗하지 않거든요. 화장실 청소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바닥

에 있는 물기까지 남김없이 닦아야 정리가 다 끝난 거네요. 물론 사람마다 일하는 순서와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올여름도 장마통에 여전히 덥고 습기가 많네요. 다른 계절에야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겠지만, 여름철에는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샤워를 자주 하니깐 물때를 비롯해 기름때가 많이 끼거든요. 그러니 여름철에는 화장실 청소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날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청소하면 화장실에 있는 배수구도 동시에 청소되고, 불쾌한 냄새도 안 올라와서 한층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네요.

배운 대로 안 되더라고

처음으로 혼자서 일하러 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둘이서 일하러 나가다 처음으로 혼자 나가게 되었을 때 일인데요.

고객님 택 문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구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또 “누구세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도 또 누구냐고 물었지요.

일하러 가서 벨을 누르고 안에서 고객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네, 저는 가정관리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집주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으니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협회에서 교육받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을 서로 누구냐고 묻는 일이 이어지다가 주인이 나와서 저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가 일하게 된 경우네요.

이렇게 시작부터 웃기게 고객님 집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나니 좀 부끄럽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고객님이 “저하고 그냥 개인으로 계약해서 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성 노동자고 뭐고, 다 놔두고 우리 집에서 그냥 일합시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회사 소속이니깐 그분을 회사 고객으로 가입시키고, 일을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설명했지요. 결국 그 고객을 회사 고객으로 가입시켜드리고 나서 저는 계속 그 집에 일을 다니면서 다른 일터를 차츰 넓혀 나가게 되었던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걸 좀 불미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지부장 할 때 우리 관리사회원이 도둑으로 몰린 사건도 있었구먼요. 우리 회원이 고객 집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고객이 자신의 명품 지갑

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당연히 회원은 안 가져갔는데도 고객이 계속 추궁하니깐 우리 회원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나머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겠지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협회에 먼저 연락하고, 사건에 따라 지부장이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회원분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조사받으러 갔대요. 경찰에서는 우리 회원을 의심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안 가져갔다고 말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 때문에 조합에 피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결백을 포기하고 누명을 썼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객과 같이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명품 지갑을 팔십구만 원인가 주고 사줬다고 하더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지부장이 나서서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실마리를 풀어야 했지만, 회원이 당황하고 서두른 바람에 막고생하고, 누명까지 썼으니 여러모로 힘든 일이었지요. 게다가 결과도 억울하게 마무리되었던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은 절대 물건을 훔쳐 간 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그 사람 됨됨이를 잘 아니까.

그런데 고객은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고, 더구나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가끔 이런 상황으로 회원들과 고객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 오해로 빚어진 일이 많거든요. 이 경우처럼 애먼 누명 쓰고, 변상까지 하게 되면 참말로 속 터지는 일이지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사노동자로 일할 때, 고객분들이 가끔 저의 외모를 보고 ‘나이가 많네, 얼굴이 세보이네’하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고객이 더러 있었어요. 제 얼굴이 실제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하러 나간 집에서 “왜, 이리 나이 많은 사람을 보냈냐”고 회사에다 전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사십 대, 한창 때였거든요. 일하는 것이 아닌,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들을 때 당연히 의기소침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지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못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제 인상이 좀 세게 보인다고 했대네요. 아 니, 가정관리사가 얼굴 팔아먹는 직업도 아니고, 청소 깨끗이 했으면 됐지. ‘나이가 많네, 인상이 세네’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니. 제가 부처님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되레 이상하지요, 안 그래요? 그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의욕이 떨어진 적도 몇 번 있었네요. 이런 일을 초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구먼요. 제가 일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대요. 직업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혹시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의심받게 되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어져요. 일할 맛 진짜 싹 달아나지요.

어디 이 뿐인 줄 아세요. 어떤 집에 가면, 제가 무엇을 훔쳐 가지 않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4시간 동안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젊은 고객 집에 갔는데, 청소하는 내내 따라다녔어요. 감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은 그러든 말든 무덤덤하게 일 했지만, 계속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그 불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네요. 청소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희뜩 돌아보니까 아니, 일하는 저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도둑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러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일은 저뿐 아니라 다른 가정관리사들도 자주 겪은 일인데요, 저희가 청소 나가면 돈이고 뭐고 남의 물건에 손대거나 가져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또 이런 교육을 수시로 받거든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안일을 한답디까, 안 그래요? 청소하다 보면, 어떤 집에는 바닥에 돈도 막 떨어져 있는 집도 있고, 보석도 침대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모두 주워서 어디에 있었다고 메모 해놓고, 그 옆에 물건 놔놓고 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를 못 믿어서 유난을 떨고 의심하면서 청소하는 동안 내내 따라

고객 대부분은 말씀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다니는 고객을 보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간을 보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해진다 니까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청소 나가면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하거든요. 그러면 딱 1시에 끝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끝날 시간을 십 분이나 이십 분 정도 남겨 두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야 쓰레기도 정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12시 40분쯤 나갈 시간이니까 기본 외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 미리 말씀해주세요”라고 하지요. 그런데도 가만있다가 꼭 나갈 시간 되면 그때서야 일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됐지만 뒤늦게 가져온 일을 다 정리하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다 정리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올 때 꼭 해드릴 테니 그때 말씀하세요”라고 덧붙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괜찮다” 하시길래 “그럼 마무리하고, 쓰레기 정리도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할게요”하고 옷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처음이라 최선을 다했지만, 손이 안 갔던 부분은 다음에 와서 더 해주고 싶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와서 해드리겠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했더니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끝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협회에 전화해서 “나이 많은 아줌마를 일하러 보내 가지고, 시간도 안 돼서 갔는데, 뭐 그런 사람이 다음에 또 자기가 온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관리사는
여러 고객을 상대하니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어이가 없었네요. 일하는 동안 내내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다니고, 끝날 시간에 일거리를 가지고 나와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 정리하고 나왔는데도 협회에 전화해서는, 외모가 어떻고, 시간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말하는 속셈이 궁금해지더라니까요. 고객이 협회에 전화하면 시정이든, 주의든 해야 하나니까요. 모든 사항이 저희한테 연결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에 그 집에서 연락이 안 와서 알아보니까 ‘그 관리사님은 다음에 보내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 됐지요. 저도 그런 집에 다시는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1년인가 있다가 우연히 그 고객 집 주소가 다시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간다고 했어요. 협회에서도 그 집에 어떤 관리사님이 나간다고 말했겠지요. 그 집에 제가 다시 나가서는 “아이고 1년 만에 온 것 같네요. 그간 손 못 간 데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못 한 것까지 다 하겠으니 필요한 것 미리 말씀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 집이 일 년 동안에 불만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누구도 그 집에 안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미리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기본으로만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방하고 침대 정리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미리 언급을 했어요. 한번 해 봤던 집이라 일하기가 좀 수월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끝내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고객이 저한테로 전화했더라고요. “저기 뭐냐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이 많아서 앞으로는 못 간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그리고 협회에 와서 그 집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집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지요. 가정관리사는 여러 고객을 상대하니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게 우리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고객 대부분은 말씀 하나하나에 애정을 담아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상처 주는 집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가사노동자로 일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는다든지, 뭐 흠쳐 가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 힘들었던 기억이 앞서네요.

우리가 비록 시간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지만 엄연히 직업이잖아요. 가정관리사로 일하는 저희를 무시하는 말투나 시선, 혹은 뒤통을 흠쳐 가지 않나 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떤 직장에서도 사람을 외모와 나이로 편견을 갖지 않듯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의심하는 말투로 저희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투를 쓰고 보니

2005년에 광주 여성 노동자협회에서 저와 같이 가정관리사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열 명 정도 되네요. 그곳에서 수료하고 일한 지 1년 만에 우연찮게 광주지부 문화부장이 되었고요. 제가 문화부장이 되고 나서 열 명이던 회원이 서서히 삼사십 명으로 늘었지 뭐예요.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회원 관리도 잘 해야 했지만 행사도 많았네요.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때에 행사 준비도 해야 하고,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기자회견도 하는 등 안 하던 일을 많이 하게 되니 무척 새롭고 바쁜 나날이었어요.

특히, 관리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각 지부 회원들이 모두 모이거든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오락 시간이잖아요?



대전 동학산장 1박2일 “간부는 제가 할게요.”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그 역할을 문화부장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니가 나와서 해라”라고 저를 지목했고,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나가서 오락 시간을 이끌었네요. 우리 광주 팀들은 어디다 내놔도 단합도 잘되고, 진행도 잘 따라줘서 전국적으로 다 알아줬을 정도라니까요. 덕분에 부족했지만, 제가 문화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지요. 제가 문화부장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일과 행사를 참여하고 이끌고 보니, 제가 많은 일을 척척 해내고 있더라니까요. 나한테 이런 능력도 있었나 뿌듯하기도 했고,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러니 가정관리사 된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문화부장 하면서부터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받아 사물놀이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소모임 이름이 ‘범벅구리’라고 우리를 지도하신 사부님이 이름을 지어줬네요.

북·장고·징·소고 등 풍물을 한참 배우고 있었는데 소모임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회비를 내고 각화동까지 풍물을 배우러 다녔지요. 그렇게 풍물 배운 덕분에 5·18 기념전야제 때는 사물놀이 공연을 두어 번 했다니까요. 그 후에 제가 지부장 할 때는 난타도 시작했어요. 그때 북이랑 악기를 장만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난타는 하고 있을 거네요. 가사노동 일하는 것 외에도 회원들이 여가 활동으로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렇게 문화부장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8년 느닷없이 협회에서 저에게 지부장 출마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저는 솔직히 말해 문화부장만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안 되고, 못한다고 했지요. 더구나 지부장은 컴퓨터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서류상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면 된다고, “너는 할 수 있다”라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지부장으로 밀어서 선거에 나갔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된 복잡한 연유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투표 결과 낙선되었으니 실망이 너무 컸지만, 제가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던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이요. 이것이 상처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린 결단이, 결국 가사 일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사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니 당장 밥벌이가 문제였어요. 괜한 헛바람에 선거에 나가 망신 사고 결국 일을 그만 둔 건



2014년 난타 소모임 연습 중에

그렇더라도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고... 그 일로 2년 넘게 아무 일도 못 하고 실업자로 보냈다가요. 그러다 다른 일을 찾은 것이 아파트 소독하는 일과 호텔 청소하는 업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북이라고 한 2년 일하다가 또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남편이 사망한 충격 때문이에요.

남편이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요. 남편은 병원에 입원시켜 두고 낮에는 호텔 청소하러 나가고 밤에 간호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던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남편 가고 나서 한 참 힘들었네요.

그 충격으로 ‘모서리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나타났어요. 불펜 같은 것이나 끝이 뾰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병이었고요. 그전에는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남편 떠나고,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추어진 질병이 나타난 것이라 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다시 좋아졌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고비였던가 봐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협회에서 지부장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으니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참, 일복은 있나 봐요. 그때는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잔손 갈 일도 없을 때라 만약 일을 다시 시작하면 온전히 직업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 딸이 “엄마는 지금 상황에 집에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을 해야 한다”라며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때 지부장 급여가 일백십만 원으로 최저 시급이긴 했지만 그 정도 받으면 아이들과 셋이서 먹고는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가정관리사 협회 지부장으로 재취업하니, 그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던지...

지부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이에요. 고객 집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협회 회원들과 고객 관리를 하는 일이라 그 일이 더욱 자신 있었네요. 업무라야 고객들한테 문의 전화가 오면 접수하고, 회원들에게 일을 배분하고, 일터에서 불만 사항 들어오면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가사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제 지부장이 되고 보니 사람 마인드가 확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가 생겼지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부터 배웠어요. 모르는 것은 아들딸한테 물어보고, 학원에 가서 타이핑도 독수리 타법이 아닌, 열 손가락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배웠고요. 물론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니 익숙해지더라니까.

지부장은 총회를 이끌어 나갈 회의안도 만들어 중앙에 서류도 올리고 어디 나갔다 오면 사진도 찍어 정리하고요, 고객한테서 걸려오는 불만 사항도 체크하여 고객님 댁에 나가 직접 확인하여 문제해결을 했지요. 제가 가사 일을 해 봤으니까 불만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 문제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전화가 와도 잘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일 처리가 빠르고 만족스러우니, 회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만족하고, 그때 회원이 육십팔 명까지 늘기도 했어요. 부족하지만 지부장으로 일하다 보니 판단력도 좋아지고 순발력도 생기고, 지부장이라는 자리가 더러는 어떤 일을 대처해 밀고 나가야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지금 여성 노동자협회 서연우 대표님이세요. 부족한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지요. 물론, 다른 분들도 지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도와주신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되돌아보니 여성 가사노동자로 일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지요. 물론 가정관리사 교육을 받고 가사노동자로 발을 딛기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지만요. 저는 그간 여러 직업을 경험했고 더 이상 내 인생의 나락은 없을 것이란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요. 그중 여성 노동자로 살아온 삶은 참 뿌듯했고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갖게 된 것은 가정관리사의 직업이 제 적성에도 잘 맞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 직업을 통해 그간 겪은 많은 아픔도 너그러이 해소하고, 그 탄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일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게 다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가정관리사 직업을 택하고 말고요!

가정관리사 직업,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제가 광주지부장을 할 때 한참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에 붐이 한창 일었네요. 회원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지요. 그냥 협동조합도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자고 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면, 가정관리사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이 이미 중앙에 준비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성격이 급한 탓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니, 2015년에 '빛나홈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설하게 되었네요. 그때 다른 지부에서도 한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던 때라서 우리도 탄력을 받았던 것이고, 그 덕분에 쉽게 인가를 받았고요. 그때 인원이 다섯 명으로 시작해서 열 명으로 늘었거든요.

회원이 열 명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능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거네요.

그런데 소식 들으니까 애석하게, 앞으로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는 '빛나홈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은 아직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일이 답답하네요. 왜냐면, 어차피 가정관리사는 수요 공급 차원에서 사람이 계속 필요할 텐데, 협회가 없어지면 고객과 가정관리사가 1:1로 취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회원 입장에서는 협회에 회비도 안 내게 되니까 이걸



2016년 광주 빛나홈 사회적 협동조합 홍보 활동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게다가 4대 보험은 회사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절반도 내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협회라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가정관리사와 고객이 1:1로 취업하게 되면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회비 얼마 내는 것 아까워서 가정관리사 단체가 없어지고 혼자서 고객을 상대로 일하게 된다면 어려운 점이 한둘일까 싶어요.

물론 회원들 마음도 이해는 되지요. 가정관리사라는 직업이 어디 내놓기 부끄럽고, 어디 떳떳하게 이야기 못 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나 가정관리사 일이 그렇게 창피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일할 때도, 개인적으로 그 심부름센터 같은 데서 나오신 관리사분들은 무시를 엄청나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식 차원의 문제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단결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봐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가정관리사를 무시한다는 말 들을 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보겠다고 무등산 같은 데서 캠페인도 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지만, 그때도 조합원들이 부끄럽다고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요. 플래카드 들고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저희를 가정관리사라 불러주세요” 이라고 캠페인 하게 되니, 몇몇 회원은 산에 온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고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신경 쓰여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캠페인은 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구 같은 데 가서도 하고 그랬어요.

가정관리사란 호칭이 엄연히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면 아줌마, 이모, 대부분 이모라고 불렀지만요. 가끔 여사님이라고도 하는데 여사까지는 기대하지 않지요. 이모 소리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협회 소속일 때에도 호칭부터 이랬는데 앞으로 협회가 없어진다니 회원들 앞날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2024년 6월 15일 '전가협 20주년 기념·해산 총회'를 계기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를 없앤다고 하니, 협회를 설립한 한 사람으로서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하네요. 저보고 그날 한번 나와보라고 하는 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광주전남지부 지부장과 '빛나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를 함께 맡아서 겸직으로 일하면서 좀 더 열심히 인식 개선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남네요.

그때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같이 일해야 해서 엄청 힘들었는데 해산할 줄 어찌 알았겠어요. 해산 소식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인생에 공짜는 없는 법이여

올해 제 나이가 예순셋이네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삶을 살아온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라는 말이 우선 떠오르네요. 정말 그래요. 인생 육십 살아보니 단 한 번도, 제 생에는 공짜가 없었네요. 좋은 나쁘든지 모든 것에는 제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 버렸으니 인생 헛산 것은 아니지요.

제가 결혼 전에는 천방지축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막내인 데다 성격도 한몫했고, 집안 경제도 넉넉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니 결혼 전까지는 힘든 것이 없었네요. 딱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 인생이 그때부터 팡이구나 했지요. 결혼 후 부모님께서 연달아 돌아가셨고, 어린 남매 데리고 목욕탕 사업한다고 백운동에서 영광으로 설치고 다니며 살아온 덕분에 그나마 내 집이라도 장만했지만요. 물론 그것도 시동생들 보증서 준 바람에 경매로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결혼 후 어렵게 보낸 삼십 년을 되짚어 보니, 매 순간이 힘들기만 했겠어요? 그런데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것을 만회 해보려고 무던히 많은 일 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려서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행복아, 행복아”이리 불렀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육십 살쯤 되면 행복하게, 아주 여유롭게 잘 살겠다”라고 축복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저는 결혼 후 삼십 년은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네요.

힘들 때마다 저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래, 나는 결혼하기 전 삼십 년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 앞으로 넉넉히 삼십 년은 고생하는 게 공평하겠지’ 이러면서 저를 다독거렸지요.

삼십 대 후반이면 아직은 젊을 때인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법 도통한 사람 같지 않나요? 비록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어도 삶의 현장, 일터에서 땀과 눈물 값으로 깨달은 것이 저의 공부요, 젊음을

현실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비운 공간에 인간의 도리를 채웠다고 봐요. 특히, 여성 노동자로 살아온 삶이 저를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람 냄새나도록 키운 일이었다고 보네요.

어려울 때마다 매 순간 '그래, 어서 빨리 육십 살이 돼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젊고 한창인 나이 때도 이리 생각했으니까, 늙는 것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 왜인 줄 아세요? 현실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진짜로 육십대가 되고 보니, 인생살이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게 제 지론이 돼버렸네요.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살든 간에 모든 게 다 자기 복이고 팔자더라고. 어린 시절 내가 철부지로 살았던 것도 다 내 복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니 인생이란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자기가 지닌 값이고, 자기 운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힘들었던 것, 고생했던 것, 모두 내 복이 그것뿐이어서 그랬구나.

그것도 다 내 복 인디 그거를 모르고 남 탓했던 것, 특히 남편 탓했던 것 "너 때문에, 너를 만나 이 모양"이라고 했던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마냥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내 가족은 내 손으로

가정관리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은퇴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나이도 있고 하니 집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이 될 수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하는 자식도 있고 그런다고 했더니 월산5동 주민센터 담당이 한번 나와 보라고 해서 가봤네요.

담당자 말이, 주거급여 받으면서 자활에서 일 한번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자활은 정부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곳에서 일도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그리하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기초 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게 되었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돈을 그냥 주면 미안하겠지만 일한 만큼 그 대가로 돈을 받으니, 돈 받는 것도 떳떳하고 일도 하니 보람도 되고.

남구 자활 지원센터에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일하니까 백만 원 정도 급여가 나왔어요. 제가 일하러 나가는 곳이 남광주 시장 '펭귄 마을'에 '너도나도 호도'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만든 호도를 판매했어요. 그곳에 한 열 명 정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이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고 다른 데 가서 하는 일보다 좋았네요.

이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이제 노후 준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든 것이지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니 심심치도 않고 돈도 벌고, 한 참 고마운 세상이다, 이제 주행복[주행복]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드디어 인생 육십 되고 보니, 정말 좋은 세상 만났구나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결혼한 딸이 삐거덕거리네요.

제가 살아온 세상이 헛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눈에 자식의 장래가 보여서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이혼해야겠다고 말하더라고. 결혼 여부로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고 살자고 했는데, 그것은 다 내 자식 잘되라고 했던 것이고. 내 새끼가 힘들어지니 다시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니까.



2021년 6월 전주에서 외손녀와 함께

그래서 제가 외손녀를 키우게 되었고요. 지금은 딸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네요. 남양주에서 딸하고 외손녀와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딸 집 살림도 하면서 손녀 크는 것도 도와주고 모녀 삼대가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가사노동자를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딸집에서 다시 가사노동을 하고 있네요. 비록 급여는 없지만, 인생 막판에 내 가정 돌보는 일을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지요. 그러나 가사노동자를 직업으로서 하는 것과 딸집에서의 하는 가사노동을 비교해 보니,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고객 집에 나갈 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 긴장감도 있고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이 앞서지요. 그래서 직업일 때 가사노동은 날마다 하는 일이었지만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런데 딸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을 더 많이 쓰면서 일하고 있어요.



2014년 제주도 간부회의 마치고

그러면서도 눈치는 눈치대로 더 보고 조심은 또 얼마나 한다고요. 물론 일에 대한 긴장감이야 직업일 때와 비교되겠어요? 내 자식 집이지만, 내 집이나 진배없으니 마음이 좀 느슨한 게 있긴 해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오늘 안 하고 싶으면 미뤘다가 내일 해도 되고. 같은 일이지만 일터에서 하는 가사노동과 내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일 때는 일단 일을 대하는 자세와 일을 할 때의 강도, 그리고 정확성, 더 말하자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내 딸 집에서 일할 때와 고객 집에서 일할 때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이제 손녀 크는 것 봐주고 집안 살림도 도와주면서 모녀 삼대가 함께 살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감사하네요. 눅고 싶을 때 눅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만들어 아이들과 나눠 먹고, 귀여운 손녀 재롱 보면서 딸과 함께 사는 것이 싫지 않네요. 아들은 직장 다니다가 누나 공무원 하는 것 보고, 다시 공부한다고 다니던 직장 정리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제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네요. 아들, 딸, 외손녀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았으면 더 바랄 것 없고요. 저도 그간 놓고 있었던 사물놀이 다시 시작해서 남은 인생 멋지고 재미지게 살아보려고요. 인생, 살아보니 공짜는 없더라고, 고생한 만큼 편안했던 만큼 다 제값을 치른다니까요.



광주 윤천저수지에서 벚꽃 구경



2016년 5월 캠페인을 마치고 귀가중

- 1962 | 01세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 1971 | 09세 해룡초등학교 입학
- 1977 | 15세 해룡초등학교 졸업. 부산으로 유학 감. 부산삼성중학교 입학
- 1979 | 17세 부산삼성중학교 졸업. 결혼 전까지 큰오빠 금은방 가게 도움
- 1988 | 26세 3월 결혼. 12월 여수 전남병원에서 첫째(딸) 출산
- 1989 | 27세 3월 친정아버지 식도암으로 작고
- 1990 | 28세 광주로 이사. 백운동에서 남편과 월세로 목욕탕 운영. 12월 친정어머니 간암으로 작고
- 1991 | 29세 1월 둘째(아들) 출산
- 1992 | 30세 6월 백운동에서 2년간 운영하던 목욕탕 중단. 영광으로 가서 시댁 식구들과 터미널 근처에서 목욕탕 운영
- 1994 | 32세 광주 월산동 라인 아파트 입주. 영광 목욕탕 2년 6개월 운영
- 2005 | 43세 1월 '여성노동자회'에서 가정관리사 취업
- 2006 | 44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문화부장 됨
- 2008 | 46세 광주지부 문화부장 사퇴(3년) 후 현대방역 취업(2년)
- 2010 | 48세 호텔 청소업체 취업(2년)
- 2012 | 50세 8월 남편 작고. 2개월 뒤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 사글세로 이사
- 2013 | 51세 1월 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지부장 재취업
- 2015 | 53세 2015년(53세) 빛나홈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과 가정관리사 지부장 겸임
- 2017 | 55세 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장(4년), 빛나홈 이사장(2년) 퇴임
- 2021 | 59세 사회적 일자리 취업 '너도나도 호두' 판매(6개월)
8월부터 현재까지 남양주 딸 집에서 모녀 삼대 살고 있음

이게 참는 보람이지

정혜선 조경미 채록



정혜선은 1954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에서 2남 5녀 중 셋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교직에 있었고 농사 지을 땅도 있고 머슴들도 둘 만큼 나산면에서는 부자로 살았다. 정혜선은 나산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광주여자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광주로 오다, 버스에서 검정고시학원 광고지를 본 아버지의 권유로 동양종합속성학원에 들어간다. 학원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가장 어려 모두 언니 오빠들뿐이었지만, 일요일, 방학도 없이 공부하여 9개월 만에 중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다.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정혜선은 동네 사람들로 부터 효녀니, 천재니 하는 부러움을 받으며 서울 소재 성만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상고에서는 검정고시학원에서 배우지 못했던 예능 과목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그렇지만 공부로는 남한테 지기 싫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이며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고3때 학교의 추천으로 국제우체국에 6개월간 실습생으로 파견된다. 실습이 끝나고 부서가 배정되었으나, 오빠와의 다툼으로 결근하면서 그만두게 된다. 1974년에 입사한 웨어차일드세미콘닥터(주)에 근무하던 중, 친구 오빠였던 남편 강두현을 만난다. 4년 만에 퇴사하고 광주 양동발산마을로 내려와 함께 지내다 1977년의 마지막날 결혼식을 올린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월세 내기도 어렵게 되자 1978년 남편의 고향인 보성으로 가 시댁살이를 한다. 이듬해 첫째를 출산한다.

5.18이 끝난 몇 달 후 시누이의 도움을 받아 광주 황금동에 주점을 차린다. 주점은 잘 되었으며,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만, 남편이 친구들과 합자하여 회사를 차리자 1987년 주점을 접는다. 남편의 회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활동한다. 보험회사에서 신인여왕상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며 뇌수술을 받게 된다. 결국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며, 정혜선은 사채 빚과 금융권의 빚을 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후 교회 부근에 분식 가게를 차린다. 분식점은 딸 셋을 모두 대학교까지 졸업 시키고, 빚도 갚아 나갈 만큼 잘 되었다. 하지만 인근에 24시 분식점이 생기면서 버틸 수 없게 되자 9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넘긴다. 그녀는 다시 팔죽집을 열었으나 권리금까지 잃을 정도로 실패하고, 지하상가에서 3년간 의류매장 관리일을 한다.

2010년 YWCA의 광고를 보고 가사도우미로 활동을 시작하여, 2013년 현재의 빛나홈서비스회적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옮긴다. 초기에는 고객 집 문 앞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들어설 정도로 두려웠다. 일도 무척 힘들었다. 요령도 없고 무조건 몸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 집에서 살림비법을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도 늘어 이제 청소와 살림 등의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 정혜선은 장기 고정 고객이 많다. 고객들은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서비스하는 그녀를 좋아한다. 정혜선은 그 원천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잘못하면 곧 하나님을 욕 되게 하는 일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사노동자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 맨 몸으로 땀 흘리고 노동하여 사채 빚도 갚고, 대출금도 상환하여 신용도 회복되었다. 2018년 결혼한 첫째 딸은 서울에서 회사 증권사원으로 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고, 둘째와 막내딸은 광주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둘째 딸이 공부를 잘하여 의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형편상 교육대를 보낸 건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다. 막내딸이 다른 분야의 일을 해 보겠다고 3년을 허비하다 광주의 사립고에 임용됐을 때는 너무 기뻐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정혜선은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일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다 하였으나, 요즘은 오전 시간만 활동하려고 한다. 딸들이 엄마 노후는 자기들이 책임지겠으니 이제 쉬라고 말리지만,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지고 싶어서다. 남는 오후 시간엔 그 동안 일과 교회 다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고 한다. 그녀는 이제 노래교실에서 마음껏 소리쳐 노래도 부르고, 라인댄스를 하며 땀을 흘리고, 가끔 영화도 보는 등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다. 요즘은 그녀보다 남편과 딸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정혜선은 늦게 배운 노는 재미에 빠져 잠시 해이해지기도 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려 한다. 매일 저녁 성경을 읽고 기도 한다. 자신이 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기도뿐임을 알기에.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챙겨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이 크다. 한때 앞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을 것 같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긴 세월을 잘 참고 견뎌온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떳떳하다. 그래서 더 보람찬 요즘이다.



입학식이라고 갔더니 언니 오빠들만 있고

저는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에서 2남 5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3대 독자여서 애기를 많이 낳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산면에서 그래도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고 농사도 있고, 막 머슴들도 있고 글드라고요. 기와집도 우리 집 한 집뿐이었고, 또 뽕뿌[뽕프]도 우리 집만 있어 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물 길으러 오고. 공계 어렸을 때는 남들 보리밥 먹었다 해도 우리는 보리밥 그런 것도 모르고 무난하게 살았어요. 당시에는 시골에서 눈만 뜨면 엄마하고 딸하고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욕하고 그러지도 안 했고, 매 맞고 그런 것도 안 했고. 우리 또래들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 다 어디 일하러 공장에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만 한다면 광주로나 서울로 다 보내주어서 초등학교만 거기서 나오고 주로 나와서 살았죠. 언니는 함평 나산에서 중학교를 나왔고, 맨 처음에 오빠부터 공부한다고 어디 다 보냈어요. 나는 6학년 때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계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여중[광주여자중학교]을 시험 보러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버스 안에서 그 팜플렛을 보시고 가서 문의를 하셨나 봐요. 대인동 시장 안에 있는 동양종합속성학원이라고 있드만.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중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끝낸다. 아, 공계 당신 딸을 천재로 알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2월 중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 학원이 아마 2월 인가 개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가서 졸업앨범도 없어요. 입학식이라고 해서 갔더니 전부 언니 오빠들만 있고 나처럼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거기 간 사람은 나하고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공계[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갈 때 나는 거기 나와 갖고 서울로 갔고. 우리 아버지 애

기대로 2년을 단축했죠. 1년 동안 왜 끝날 수 있냐 하면 검정고시 학원에는 예능이라는 게 없더구먼요. 시험에 있지 않는 과목은 검정고시 학원 수업 과정에 없어요. 미술, 체육, 음악, 그런 건 없어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노는 날이 없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 강의하고 나면 우리는 빨리 따라서 읽고 빨리 따라서 쓰고 또 바로 지우고, 그래서 필체를 버렸어요.

남한테 지고는 못 배겨요

서울에 여상이 있었어요. 나 들어갈 때 성만 여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갖고 신경여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떻게 알아 갖고 거기에 원서를 너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고 일로치면 [이름테면] '너 어디 학교 다니냐?' 그러면 숨기고 다닐 그런 학교더라고요. 그때 치면 똥통 학교라 글드만(웃음).

우리 졸업할 때는 굉장히 격상돼 가지고 좋았는데, 들어갈 때는 백 프로 다 들어간 것 같아. 합격했다고 효녀니 어찌니, 함평 나산에서는 소문이 났잖아요. 막 축하해 줬는데 가서 알고 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다. 공계 막 특출한 것이 아니라. 어쨌건 2년을 감수[단축]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중학교 [졸업]전에 검정고시 통과해서 서울로, 더군다나 상고 갔다네 하니까 우쭐한데다가 아버지가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디 딱 들어가서 학교 배정을 받으면, 공부를 남한테 지고는 못 배겨요. 좀 샘이 있어요, 샘이. 인자 반 편성이 딱 대[되어]



1972년도 성만여상 3학년 졸업증명사진



1972년도 성만여상 3학년 미반 정혜선 졸업사진. 둘째 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1973. 2.)

갔고, 누가 여기서 공부를 제일 잘 한가, 그거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죠. 그래서 개가 화장실 가면 나도 가고, 개가 화장실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기언치[기어이]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애로점이었던 것은 예능을 못 배웠기 때문에 예능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금계 중학교 3년을 정상적으로 음악 시간이 있었던 애들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 아무것도 몰라. 또 미술 시간에 손을 그리래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해요. 완전히 예능의 기초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딸리더라고. 국, 영, 수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 갖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남들은 고1이지만 나는 중학교 2학년짜리잖아요. 그렇게 갔는데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우수했어요. 그래서 학교서 추천을 해줘 가지고 국제우체국에 세 명을 파견해줬는데 거기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다가 정직원으로 뽑히고 그런가 봐요. 실습생으로 6개월인가 거길 다녔는데,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실습이 다 돼갖고 나는 서무과로 배정이 되고 다른 애들

은 다른 과로 배정이 됐는데, 그 애들 두 명이 다음 주부터는 원피스를 입고 오세요. 나는 원피스는 커녕 아무것도 없고, 부자라고 해도 시골에서 칠 남매를 도시로 보냈을 때는 굉장히 바듯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암컷[아무것도]도 아닌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오빠하고 자취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용돈이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생활비 그런 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책값이 천 원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아볼 거 아니니까 저는 거그다가 백 원이라도 더 붙여요.

책값이 만 원이면 거그다 백 원이나 천 원을 더 붙여. 그래갖고 아버지[아버지]한테 청구를 해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용돈이고, 생활비로, 버스 차비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원피스를 입고 오라니, 원피스가 어디 있어요? 고민이 돼 가지고 오빠한테 “나 원피스 하나만 사주라” 했더니 “이 미친년이 미쳤나” 그럼서 대나무 같은 걸로 한 대를 때리더라고요. 때린게 나 죽겠다고 약[수면제]을 먹고 유서를 써놓고 잤다니까요. 잠이 들어 부니까 그 다음 월요일에 못 갔어요, 우체국을. 지금 같으면 사정이 있었습니까, 거짓말로 돌려치고[돌려대고] 그랬을 텐데, 결근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가는 줄 알고 안 갔어요. 오빠 학교 바로 앞이 우리 자취방이었는데, 친구들은 찾아와줬고, “왜 책이 니 동생하고 똑같이 고1이냐? 왜 똑같은 학년이나 이 자식아” 맨날 그러드라고. 동생은 2학년을 월반했으니, ‘아! 조것이[오빠가] 금계 나한테 자존심 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속이 없었지

그래서 우체국을 못 가고 1974년에 휘어차일드씨미콘닥터주식회사[현:기륭전자]라고 미국 업체가 있어요, 가리봉동에. 거기서 전자 제품을 검수하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고 금줄로 이렇게 막 뿔 연결을 해요. 하면 그게 똑바로 됐나 안 됐나를 우리는 또 현미경으로 검

사를 해. 거기서 한 4년인가 근무했을 거예요. 그러다 친구 오빠한테 찍혀갖고 갑자기 광주로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을 만난 건, 저는 학교를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별로 어린 사람들이 없었는데, 내 나이 또래가 세 명이 있었어요. 만나다 보니까 친하게 됐어요. 서울 출신 정란이라는 애하고 보성에서 살다가 가리봉동에서 자취를 한 채숙이, 지금 우리 시누예요, 시누. 나는 결혼해서 서울에 사는 언니 집에 있었고, 채숙이는 자취를 하니까 맨날 거기 가서 놀았죠. 시어머니는 몇 번 봤어요. 시어머니로서 본 게 아니라 친구 엄마로서. 반찬을 해 갖고 오시더구만.

우리 시누는 좀 노는 애였어. 예뻐요, 야물고, 똑똑하고. 제가 그때 순진하고 얌전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 제가 자기 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오빠가 보성에 있다가 즈그[자기] 동생이 자취하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나를 보고, 이 친구를 소개해 주라 그랬나 봐요. 금계 채숙이가 양심상 개는 안 된다 그랬겠죠. 오빠가 보성에서 건달이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하계[귀하계] 키워 낚서 몰랐어요. 사회가 힘든지도 모르고 결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살림을 다 시골로 붙이고 광주역까지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또 광주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도 보성에다 알아보고 안 된다고 겁나게[매우]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에 한 번 오시면 이 사람이 채숙이 친구를 통해서 그걸 알잖아요. 그럼, 엄마 오신 데, 그 화계사라는 절에까지 막 졸졸 따라다닌디, 엄마가 신경질 나고 졸도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는 가서 헤어지고 온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너 아니면 죽느니 어쩌니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살림을 다 시골로 붙이고 광주역까지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또 광주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대로 붙잡혀 가 가지고 발산인가, 양동 가면 신축 집이 있어요. 한 달에 만 원짜리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집에는 연락을 못하죠, 잡혀왔으니까. 우리집에서는 살림까지 보낸 애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된 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막 병원마다 가서 어디 시체 있다 그러면 가서 뒤지고 그랬나 봐요. 나는 몇 달 동안은 여기서 이 남자하고 둘이 살았고 속없이(웃음).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언니가, “내가, 이년아, 시체를 다 뒤져봤다” 그러대요. 내가 속이 없었지요(웃음).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그때는 결혼 안 하고 동거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수치였어요. 금계 집에서 서둘러서 예식장 수배해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12월 31일날 행복예식장이라고, 77년도 인지 어쩐지 좌우지간 스물세 살에. 제가 어리석었던 게 서울에 있을 때 남편이 광주에 내려가서 취직을 했다고 그러대요, 과장이라고. 과장이라는 말에 높은 사람인 줄 알았죠.

같이 살면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그 회사를 찾아가니까 쪼꼬마니[조그만] 가정집 같은 데서 막 스티로폼 만들고. 이 사람은 사장이고, 이 사람은 빗이고 그런 거더만요. 아는 선배 회사였는 갑드만. 금계 명함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결혼해서 뽕뽕다리 쪽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거기도 월세가 만 원인가 그래요. 남편이 몇 달 거그 다니다가 그만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세도 못 주고 주인 할머니를 피해서 다녔으께.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이었으니 쌍수를 들죠.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용달차를 대절해 갖고(웃음) 온다 금계 이혼하게 생겼잖아요. 남편이 다급하게[급하니까] 그 옆에 학동에 사는 자기 큰 누나한테 그 말을 하죠. 금계 시누가 “1년도 안 된 것이 벌써 이혼해?”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우리 살

림을 다 막 깨부시더라고. 그래갖고 여기 광주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으니까, 남편이 보성으로 가자 그러대요. 78년도에 보성으로 가서 시댁에서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돼지를 키우는 걸 도와주고 살았어요. 그 이듬해 거기서 큰 딸을 낳았죠.

집이야 뭐야 다 넘어갔어요

보성에서도 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80년 하반기에 둘째 시누가 우리를 광주로 불러들였어요. 시누가 황금동에서 술집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한테 가게[술집]를 차려줬어요. 거기가 시내권에서 제일로 중심지였거든요. 군인[전투경찰]들이 최루탄 던지고 아침, 저녁 데모하느라 하여튼 24시간 최루탄 냄새 때문에 징했죠. 앞에서 맨날 군인들이 무더기로 와 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고 죽치고 있으니까 무섭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학생들은 막 맨날 쫓겨 다니고.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애기가 안에서 자고 있잖아요. 근데 최루탄을 너무 너무 뿌리니까 내가 막 나가갖고 소리,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애기가 잠자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최루탄 좀 엉간히 뿌리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붙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아마 3~4년은 계속 최루탄 싸고[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업은 밤에 하니까 그렇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돈이 풀렸어요. 방림동 라인효친아파트가 있었는데 처음에 분양할 때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장사는 잘됐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지를 않았어요. 술집이라는 자체가, 딸들도 셋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삼보토건이라고 회사를 차렸어요. 보성 사람들 세 명 하고 합자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 따다가 아스콘 까는 거였어요. 회사 할 때는 다 빚을 내서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나 사업을 확장해 부러갖고[버린탓에] 몇 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도로 포장을 하자면 고가의 도자, 도르래 이런 장비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본에서 전부 다 샀어요. 그 사업이 한참 유행했을 때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막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져 장비 임대도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이게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은행 이자를 못 지불하니까 집이야 뭐야 회사가 다 넘어갔어요.

그 와중에 94년부터 제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남편 회사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으니까. 신양파크호텔에 가 갖고 신인여왕상도 받고 그랬어요. 신인여왕상이라고 제가 [영업을] 잘해서 [보험을] 넣은 게 아니라 알음으로 오라고 해서 체면상 넣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회사 사장의 부인인데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공계, 친한 사람들이 오라 그래갖고 보험을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많이 넣었어. 보성에서도 “자네 보험회사 다닌다매, 내려와” 그래갖고 보험 뭐 어떤 거 있는가 갖고 오라하면, 회사에서 이거 갖고 가라고 그랬고. 이제 아는 사람은 다 [보험 가입] 했고, 고객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점점 없어지고 못 다니겠는 거죠. 한 3년 동안은 다녔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생각해요

내가 힘들다 보니까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 의지처가 필요하잖아요.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그 라인효친에 살 때, 한번은 친구가 [길에서] 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라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전도를 해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끼리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더라고. 받으니까 아저씨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먹으면 싸우는 습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몇 번 때려서 보상금 꺼내 물어줬었던 거예요. 내가 내려가니 남편이 사람을 또 때리려고 해. “안돼!” 하고 이렇게 가로막는데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비가 오려고 그러면 하늘이 짝 찢어지듯이, 정수리가 딱 갈라지면서 통증이 와요. 너무 아파요 그 통증이. 병원에는 가 볼 생각도 못하고 맨날 진통제만 먹고 자고, 진통제 먹고 또 자고 하다가 한 보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애들 도시락 싸줘야지 하고 일어나다 그대로 쓰러져 버렸나 봐요. 그때 돌고개에 있던 병원에서 일주일인가를 입원해 있는데 안 낫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토하기만 하고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일주일째 되니까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랑 오서 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전만 해도 고개를 들면 아프고 토하니까 못 일어났는데, 예의상이 오셨으니까 일어나 기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두 번인가를 하는데 통증이 가라앉더라고.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이 아프던 통증이 가라앉더라고. 그때 신경성이라고 입원을 했었는데, 다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내 뒤에서 주삿바늘로 뭘 뽑아내.

그래서야 이거 뇌출혈이라고, 급하다고 병원 측에서 연락을 해줘갖고 엠블런스 타고 전대병원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마 오진했는가 보다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운 좋은 아줌마는 처음 봤다고 글대요. 뇌출혈인데 짝악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죽사를 하든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어 있든가 그래야 된대요.

근데 링겔을 꽂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돼 가지고 지금처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교회가고 싶어 바로 앞에다 얻었죠

부도나기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어음을 갖고 오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아리깡[와리깡:어음을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어음할인]을 해서 바꿔다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음이 많이 나오니까 천만 원짜리 공사하고 어음이 나오면 그거를 갖고 가서 아리깡을 해줘요. 한 이백 띠고 팔백만 원만 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그런 걸 다 했거든요. 회사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이번에 뭐,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네, 돈 좀 빌려오소. 그러면 나는 주변에 아는 언니, 친구들이 있으니까 돈도 막 빌려오고 그랬는데, 부도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사채 빚이 한 팔천만 원인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빌렸잖아요.

또 집이 경매당하면서, 경매는 싸게 나가잖아요. 삼성생명 광주은행에 갚을 것이 얼마가 모자라서, 그걸 못 갚아서 금융불량자[신용불량자: 모든 금융거래 불가능자]로 한 이십 년 가깝게 살았을걸요. 근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고 나만 금융 불량자가 되더라고요.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 빚쟁이들 투성이고, 애들 학비는 대야 되고. 당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남편은 별로 책임감 같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일을 막 벌리고 으샤으샤 하는 것에만 취해 있었지. 내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죠, 분식가게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는 초신자였으니까 뭐든 다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으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해봤자 자기가 자본이 있어서 대줄 것도 아니고, 뭐 빈털털이가 됐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분식점은 내가 경험이 없고 초보였으니 요리를 다 나한테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인수인계한거

죠. 그전에 하신 분이 하나 하나를 다 가르쳐줬어요,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분식 가게는 내가 금융불량자라 딸 이름으로 했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바로 앞에다가 얻었어요. 동아여고 바로 앞에 서너 평 되는 거였어요. 수요일 같은 때도 손님이 잠깐 안 오는 사이에 교회 열른 가서 찬송가를 듣고 싶고, 금요일도 찬송하고 싶어서요. 분식 가게는 주일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문을 닫았지만 굉장히 잘 돼서 9년이나 했어요. 거기서 우리 애들 다 대학교 가르쳤고요. 그런데 분식이 잘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생겨요, 신당동 떡볶이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교회 앞이니까 교회 가서 올고붙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또 묘하게 한 1, 2년 있다가 보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동아여고 방학 때 되면 식당을[학교급식]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야자[야간자율학습]하러 오시니까 아침에 [김밥] 100줄씩, 200줄씩 주문 받아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이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근데 24시간 하는 김밥천국, 김밥나라가 동시에 우리 가게 바로 앞에 생겨버려요.

거기 가서 보니까 메뉴가 수십 가지지만. 그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자 반찬가게 하는 분이 권리금을 많이 줄 테니까 내놓으라고[팔라고] 그러대요. 우리 애들은 이미 대학교 다 졸업했고 나는 24시간 할 수도 없고. 마침 잘됐다고 권리금을 받고 그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빌린 거는 그렇게 분식가게 해가지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돈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나 보대요. 예를 들어 사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천만 원으로 탕감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갚지 말라고. 그렇게 분식하면서 사채는 마무리됐죠.

2005년에 분식집을 팔고 팔죽집을 얻은 게 가게를 잘못 얻었어. 주차장도 없으니 손님은 없고, 팔죽은 안 되고. 이런 게 맛있네 허면 만들고, 이런 게 맛있네 허면 또 만들고 그럼서 메뉴만 늘려갔던 거예요. 공계 전문성이 없어진 거죠. 권리금 받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빈털털이로 나왔으니까. 거기서 내가 망했어요. 3년 만에 쫓딱[웃음].

그때 친구가 금남로 지하상가에서 브랜드 옷집을 했는데, 돈 관리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리로 가게 됐어요. 한 삼 년 동안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죠. 그런데 가게가 재입찰을 안 해서 없어진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나 이 집에서 잘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다섯 시만 되면 해방

내가 분식가게를 했기 때문에 갈 곳은 식당밖에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식당은 주일날 안 쉬어줬어요. 못 갔죠, 주일날 쉬어주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옷집도 친구가 일요일날 쉬게 해줘서 다녔던 거고. 어느 날 YWCA에서 뭘 종이를 하나 나눠주는데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가사도우미도 교회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주일날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망하고 그런 상태라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녀의[남의] 가정집에 가 가지고 나 혼자 하고 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좋았고. 뭐 아는 기술도 없으니까 그래서 YWCA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정식 교육을 받았어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이 강사로 오셔서 자기 실[실제] 현장에 그런 것도 얘기해 주고 주로 우리가 일하는 거 청소는 어떻게 해라, 아니면 귀걸이나 악세사리 하고 다니지 말라, 수수한 차림으로 가라 그런 거 알려줬어요.

맨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니까 그 집 앞에 가면 기도 했어. '하나님 어떡해요? 나 이 집에서 잘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맨날 그 문 앞에서 기도하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덟 시간이라 딱 아홉 시에 들어갔다 다섯 시에 퇴근하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울고 갔거든요. 땀을 펄펄 흘리고 일하고 진짜 감옥에 갇혀 있다 나온 느낌이었어요. 주인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힘들었어요, 힘들어.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그냥 착실히 해야 된다는 거, 고객이 뭐를 해 주라 글면 고지식하게 그거를 다

해주다 보니까. 세제도 활용을 못하고, 락스로 일일이 손으로 다 닦고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녹초가 돼 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시만 되면 해방됐다 싶었죠. 들어가서 처음에 한 몇 달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길래 그냥 쉬었어요.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니까, 친구가 그걸 알려준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자, 전화만 받으면 백이십만 원 준다" 고 권해서, "그래, 나 일 안하고 전화만 받는다면 그게 좋겠다"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막 좋은 땅이라고 해 가지고 파는 거여. 그때 부안반도인가? 바다를 메꿔가지고 길을 만드는데, 거기 땅을 매입해 가지고 114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 해갖고 거기 땅 사라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우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드만요. 거기 한 이 개월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 다니세요?" 그래서 "기획 부동산이요" 공개 "얼른 나오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와 버렸거든요(웃음). 힘들어도 차라리 이 일을 해야겠다하고.

그래서 두 달 후에 다시 와이[YWCA]로 왔는데, 그때는 묘하게 고객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때는 뭐 파출부라고 그랬나? "아줌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모님", 어떤 데는 "사모님, 사모님" 해요. "저 사모님 아니에요. 그냥 이모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바꿔놓고 그랬어요. 아무튼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고객님 집에 가면 보통 남자는 사장님, 여자는 사모님이라고 해요, 그냥. 제일 좋아하더라(웃음). 사무실에서는 고객님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요즘에는 고객님이라고 하지만.

내 발로 찾아 왔어

그렇게 와이를 한 삼년쯤 다녔을까? 운암동에서 서비스를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기 다니시는 분, 짐작으로 알잖아요. 대충 아홉 시에 출근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혹시 와이에서 나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빛나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4대 보험 넣어줘요?" 하니까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대 보험이 들어간 게



2024년 광주가사관리사 한마당 빛나홈대표로 선언문 발표시 정혜선 우측(2024.5.11.)

저는 고객님들을 잘 만났어요.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내 발로 여기[빛나홈]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니까 완전 가족 관계야. 여기는 완전히 다 같은 조합원이잖아. 그러니까 화기에 애해요. 아무튼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니까 여기서는 감춰야 할 필요도 없고 다 재밌고 참 좋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데 가면 저는 감춰야 되고 아닌 척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고객님들을 잘 만났어요. 한 번 가면 다 오래 다녔어요. 봉선동과 운암동은 와이에서부터 다니던 집인데 내가 빛나홈으로 소속 옮긴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도 그쪽 회사 회원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요. 여기는 서비스 이용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요, 하니까 괜찮다고 해라고. 좌우 시간 고객님을 잘 만나갖고 내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집 다닐 필요가 없는 게, 이 봉선동에 다니는 집이 일주일에 두 번을 갔어요. 그것도 하루 일로. 지금까지 계속 월, 목을 갔고. 또 여기 운암동도 두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이 해결되니까 다른 데는 틈틈이 하나씩 잡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살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칠게 하지도 않지만 타고나게 깔끔하게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 시간 안에 꼼꼼하게는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이 고객님들을 잘 만나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왜 고객들은 나를 오랫동안 쓸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일단 고객이 나한테 성격이 참 좋대요. 우리들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서로 잘못된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고객한테 막 ‘요거는 사주세요’ 라든가, 자기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한다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건 안 해요. 일단 고객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이 쓰리든지 말든지 일단은 제가 “알았어요” 하고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받아주니까 좋아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못하는데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알았어요” 일단 하고, 인상 찌그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그 이모님은 항상 웃어서 좋아” 그러거든.

사무실에서 문자가 와요. 거기[고객집] 가서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고. 거의 사람들이[가사노동자] 대부분 [고객들한테]가르치려 든다고 하대. 엄마랍시고[나이 먹었다고]. 또, “요거는 사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말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못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쨌든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 해주라고 그러면 일단은 다 하겠다고 “네, 네” 그래요. 물론 참으면서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내 직업이니까. 난 그 [고객]집에 가서 먼저, “저는 교회 다닙니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 행동이 더 달라지니까[바르게 되니까]. 일부러 내 자신한테 각인을 시키느라고 교회 다니는 걸 의식적으로 나타내거든요. 내 양심상, “교회 다니는 것이 저런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 먹히는 거잖아요.

뭐가 막 물어 가지고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면 락스를 일일이 다 발라 가지고 닦아주면 깨끗하죠. 그러면 “너무 깨끗하게 좋아요”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세제도 좋아지고 한 번 쪽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하고 하니까 더 낫죠. 지금은 뭐 몸에 뻘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정도로(웃음). 그래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어떤 데는 끝나고 오면 고객이 그냥 몇 시간을 여기다가[사무실] 전화를 하나 봐요. 근데 내가 간 데는 그런 전화 없다고 해요. 전에 창립 멤버 이사님이 하는 말이, “까다로운 고객들이 정혜선만 보내면 조용해져 분다” 고 그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고객들이 다 좋아요. 그래갖고 한 번 가면 다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죠.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 같애

아주 오래된 애인데, 저기 치평동이라고 여름에 갔는데 부부는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 놓고 딱 누워 있고, 나는 의자 던고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며 위에 다 닦고[닦고] 너무 더워서 “저 선풍기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디서 고개 떨어진 선풍기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

것까지 다 좋은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저희 집은 과일이 없어요” 하면서 도마도[토마토]를 하나 주는데 썩은 거 있잖아요(웃음). 썩은 도마도 그거 하나를 딱 갖다 주고.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입에 댈 수 없는 점심을 주더라고요. “이거 못 먹어요” 할 수는 없고. 근갑다 하고 안 본 사이에 그냥 쓰레기통에 얼른 내뱉어[내버려] 버렸어요. 근데 “저희 냉장고 좀 청소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 갖고 청소를 하는데 도마도 한 박스[박스]가 있는 거예요, 과일 통에. 진짜 눈물 나서 그거는 평생에도 못 잊을 것 같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를 돈 주고 살 때는 자기 일을 그만큼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네 네 시간이면 네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는 게 내 책임이고 사무실에 어떤 영향 안 가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들은 내가 알아서 냉장고 열어서 과일도 있으면 하나씩 먹고 하는데, 어쩌다가 중간에 배치돼 간 집은 배고파 죽겠어도 냉장고 문도 안 열어요. 손도 까딱 안 해, 고객이 먹어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떤 집은 가면 접시에다가 “이모님 이거 드세요”, 하고 내 간식을 딱 놓아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거의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모르더구만(웃음). 젊은 고객들 집 가면 자기들만 아기들 데리고 앉아서 먹었지, “이모님 이거 드세요” 그 소리 안 해요. 놀래버려요. ‘젊은 분들은 아, 역시 이기적이구나’ [그래도] 남에게 피해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그런 집과는 다르게,] “이모님 이거 드세요?” 하면 “나 좋아해” 그러면 “글구나” 하고 챙겨 주는 거 보니까, [먹으라는 소리 안하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젊은 사람들은] ‘아 모르는구나. 남을 대접할 줄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죠. 그런 걸 몇 번 느꼈어요. 나빠서 안 준 게 아니라 모르는[모르는] 것 같애. 혹시라도 ‘내가 이걸 줘서 실례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점심은 줘야 되죠, 그쵸.

한밤중이고 뭐고 전화가 와요

근데 “이모님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걸 전화로 물어보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모님 핸드폰 어디 있어요?” 찾다가 없으면 한밤중이고 뭐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거의 기억해. 내가 치웠으니까. 한 80%는 내가 알려 주면 나오는데, 한 10~20%는 못 찾은 경우도 있어요. 찾았다는 전화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저녁 내내 신경 쓰여. 그래서 다음에 가 갖고 “그거 찾으셨어요?” 그것부터 확인하거든요. “응 저기 있대” 그래요. “전화 좀 해주시지” 내가 그러면 “공케이” 그러고 말아버려. 그게 또 속상해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여튼 좌우

시간 한 번씩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우리가 갈 때쯤 되면 설거지도 하나 [많이] 갖다 놓고 일도 막 갖다 놓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거의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굳이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개중에는 아직 사진 찍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사장님한테 제가 혼난 적 있거든요(웃음). 어디를 갔는데 전자시계가 있어요.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 시계를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자기한테 보내주래요. 갈 때도 찍고 보내래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여. 그것도 힘들었는데, 뭣 하다 보면 꼭 그 뒤에 [사진이] 와요. 예를 들어서 청소가 조금 덜 된 거, 먼지라도 있으면[있으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저한테 전송을 해줘요. 사진보고 저는 겁나게 큰 먼지인 줄 알았어. ‘이게 어찌 안 닦아졌지?’ 그 뒤에 가서 보면 진짜 이만(손톱 끝을 가르킴)한 걸 갖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고객도 있어요. 제 속으로는 굉장히 속이 상해갖고 이걸 또 언제 고만뒤 하고 있었죠.

근데 언제 들어가니까 전화로 누구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모님(상냥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어찌고 저찌고 했었는데 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를 고소하게 생겼던디?(웃음) 그 전화 하는 거에 질려부러갖고 내가 나왔어요(웃음). 좋게 나오면 되는데, 왜 고만두냐고[고만두냐고] 그래서, “이전에 하던 고객이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거기로 오래요” 그랬어요. 사실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약 올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막 대판 퍼붓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사장이 “언니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게, 내가 몸이 아파요, 핑계를 대지 왜 약을 올렸냐”고 이사장님한테 혼난 거는 그거 하나예요(웃음). 반성은 했어요.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고도 고지식하게 계속 다녔어요. 지금은 아니다 싶으면 핑계 대고 나와 볼죠.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빨래부터 해요

오래된 집들은 거의 말 안 해도 거의 내가 알아서 하니까 고객님들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서비스 한,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반드시 물어봐요. “어디 더 손 보거나 보충해 줄 곳 있나요?” 하면 “괜찮아요” 하는 사람 대부분이고. 특별히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쪽은 해주는 거죠. 어떤 집은 꼼꼼해서 오늘 할 일을 다 적어놓고 간 집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지금은 오래된 고객 외에는 여덟 시간짜리가 없어요. 그전에 여덟 시간 할 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요리도 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는 다 했어요. 근데 네 시간씩 할 때는 요리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청소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 요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여덟 시간짜리 일이 많은데 다른 가사관리사들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버스 안 갈아타고 편한데, 왜 맨날 갈아타야 되는디 여덟 시간짜리를 안 가지? 나중에 알고 보니 잡다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청소만 딱 하고 오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도 네 시간만 하죠.

청소를 할 때는 [고객 덕에] 가서 주인이 없을 때는 저 안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요. 맨 첫 번째 하는 일은 저는 무조건 빨래부터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세탁

기부터 보고, 다음에 화장실부터 청소해요. 보통 화장실이 두 개니까. 근데 옛날에는 선입감에 화장실 청소하기 싫었죠. 근데 저는 어차피 고정된 집들이니까 깨끗이 다 사용하니까 이제 화장실은 별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대부분 안방이 제일 끝에 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와요. 고객이 방 차지하고 있으면 없는 방에 가서 하고. 청소하는 거는 평수 넓은 데 가서 비싼 거 하고 싶지, 어차피 네 시간 투자하는 건 똑같은니까. 오히려 큰 평수들은 정리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평수는 살림이 많애. 그래갖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거를 정리하기도 힘들고.

명품을 몰랐어요

제가 명품을 잘 몰랐어요. 고객님 집 아들이 버릴 물건을 내 놓는다 그래서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 다음 번에 가니까 사모님이 “우리 아들 방에 뭘 지갑이 있었다는데 그거 못 봤어?” 그래서 “몰라요. 있어서 다 갖다 버렸는디!” 근데 그것이 요만한(손바닥을 펴며) 건데, 그 안에 지갑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그게 프라다였는가 봐요. 깜짝 놀라서 쓰레기통에 가서 보니까 없어. 이미 다 가져가 볼고 없죠. 미안하잖아요. 누가 롯데[롯데백화점]로 가라 그래요. 1층에 가면은 프라다 매장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고유번호가 있어야 똑같은 걸 산다더만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오십만 원인가 된대요. 기절할 뻔했어. 못 샀지. 다음에 가서 사모님 사실은 제가 그거 살려고 롯데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미친놈이 뭘 그 비싼 걸 살 것이야. 냅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마무리 됐어요(웃음). 그다음부터 아들이 들어오면 나는 저쪽 방으로 도망가지(웃음).

노동적인 것이 힘든 거는 너무 더럽고 곰팡이 다 끼었고, 그런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 건조기가 나온 뒤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빨래를 세탁한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서 내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 건조기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큰 건조기는 상관없는데 대부분 집이 보통 적은 거더라고요. 한 번 딱 누르면 한 시간 오십 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건조가 되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조금만 양이 많아지면 이게 다시 돌아가요. [시간이]추가가 돼버려. 예를 들어서 건조되려면 이십 분 남았다 하고 가서 보면, 다시 돌아가서 오십 분이예요. 근데 조금만 안 말르면 기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마를 때까지. 그럼 미쳐요. 시간이 초과 되잖아요. 되근해야 되는데 싫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건조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거의 오래됐기 때문에 기계가 다 익숙한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새집을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어요. 청소기 같은 것도 그걸 씻을라[씻으려] 할 때는 일일이 사진을 찍어요. 뭣도 모르고 막 다 빼 갖고 분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말랐을 때 가서 쥘려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핸드폰에 찍어요. 찍어놓고 그대로 해야지. 기계가 어렵더라고, 다 달라요.

위험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어요. 유리창 닦는다고 회전의자 같은 거에 올라가고 그런 건 위험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에 올라갔다가는 여지없이 다친게 조심하죠. 저희가 4대 보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요. 무조건 다 그런게 아니라 고객 집에서 일했을 때 고가의 물건이 다쳤다가 하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해 준다대요.

배워서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깔끔한 집은 역시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래요. 주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닦을 거 두 번, 세 번 닦아야 되고 많이 긴장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깔끔한 집은 가사관리사들이 많이들 짤리더라고. 그런 집을 내가 가면 오래 가지. 깔끔한 집은 힘들더라도 좀 배워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깔끔해요?” 그러면 가르쳐 주더만요. 네모진 그릇[그릇]은 네모진 그릇대로 짹 한 줄로, 동그란[동그란]건 동그란 것대로. 또 이쁘게 개 놓은 수건 있잖아요, 그면[그러면] 고거 뿐[모양] 따라 갖고 다른 집에 가서 써먹죠. 서랍이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다른 집에서 또 그렇게 해 주죠. 개판으로 돼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집에서 배워온 거 그대로 해주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배워요, 배워. 남의 집에 다니면서 살림을 배웠잖아요. 이제 어디 가면 살림 못 하네, 그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배워서 날 사람 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재밌었어요. 우리 집 아닌 남의 집은 어떻게 살까? 이 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남의 집은 어떻게 다 예쁘게 잘하고 살까. 그런 거 배우고 싶었거든요. 또 하나가 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방법을 좀 배워와야지 하고 갔는데, 나하고 이야기 해 줄 사람이 없어. 다 아침에 출근해 버리고 저녁때 오지.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고 취미 생활한다든지 다 바쁘더라고.



여름 보성옹치계곡 운영진들 아우회
(2024. 7)

막상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단점이 오히려 내가 무식해지더라고요(웃음).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어요. 남의 집 어지러지고 더러운 집 깨끗이 하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를 쓰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어지러져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가 보면 고객들 소비 형태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택배가 엄청 와요. 그 쓰는 돈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는 돈은 지극히 적어요. 그 적은 돈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집안이 깨끗해지잖아요. 집에 와서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일을 다 해놓으니까. 부부 싸움도 안 날 것 같아,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아, 집에 오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러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힐링하기 위해서도 좋고, 우리 같은 사람 일자리 만들어줘도 좋고. 우리들은 창틀 먼지 다 닦잖아요. 그런 거 다 자기들이 닦으려고 하면 힘들잖아. 웬만하면 사람을 쓰는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좋은 데는 널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집은 너무 더럽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미안해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있고 살림할 줄도 모르고 좌우지간 사십 몇 평이 되는 아파트를 죄다가 공간이 없을 정도로 늘어놓거든요. “괜찮아, 그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해?”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고 태도가 달라져.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면 나도 한 번 닦을 것도 두 번 닦고 뒤돌아볼 것도 더 하고(웃음). 이쁘잖아? 좌우지간 안 미운 집이 있어요.

우리집은 그렇게 깔끔하게 못하죠. 집에 들어가면 완전 지치고 힘 들고 하나. 근데 고객들 집은 직업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나를 쓸 때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 만큼 해줘야 되니까, 그냥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거고, 집은 완전히 내 마음대로니까 다르죠.

일에 중독 걸렸어?



제1회 영산강 서창들녘역새축제'에
난타단원으로 무대에 오른 정혜선
(2015. 11. 11.)

고정고객이 있어도 다달이 수입은 다르죠. 왜냐하면 고객이 “오늘은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쉬어야죠. 그럼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동료들에서는 그런 게 가장 애로가 돼요. 다행히 일이 많을 때는 다른 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일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나 보네요.

보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한 달이면 거의 네 번이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줄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고객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해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 월말에 주는 집

도 있고 거의 그때그때 주더라고요. 일했는데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은 없어요. 다 받았어, 다 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빛나홈] 와 가지고 얻은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장기 고객으로 하던 일만 계속 했으니까 사무실에 “일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기 봉선동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 번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최근에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나 봐요. 눈치가 그래요. 거기는 두 부부만 살고 집도 일주일에 두 번 갈 일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치우고 어지러진 [어지르는] 사람도 없고. 제가 도중에도 “뭘 두 번이나 와요. 한 번만 올게요. 나 일자리 많아요” 하면[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쉬어. 뭘 일에 중독 걸렸어?” 그랬거든요. 사모님이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만 와” 그 말 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번만 올게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이 줄었고, 다른 때 같으면 줄면[줄면] 약착같이 그 일을 채우는데 이제 나이도 있잖아요. 맨 처음 그때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 때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다 했어요. 안 쉬고 그냥 쪽 일만 했어요. 이때까지 누가[년 터리] 날 정도로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 가라는 데는 거의 다 갔던



북구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페스티벌
신용동 라인댄스단원으로
무대에 오른 정혜선
(2023. 9. 21.)

것 같아.

옛날에는 제가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젊었으니까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힘들어요. 팔이 아파서 얼마 전까지 한의원 가서 치료하고 다녔거든요. 치료하다 보니까 금방 돈이 얼마나 들어가 불타라고요. 또 딸들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 일중독 걸렸다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칠십세까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칠십이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고 내 예상대로 즐기고 있어요. 아주 일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네 시간만, 오전에 하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별로 안 돼요. 또, 내 노후준비는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은 그래요. 내 개인적인 생활도 하고 싶어서 일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일만 하고 살았었죠. 지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하는 거고. 어깨부상으로 난타는 이제 안 하지만, 놀러도 다니고, 노래교실 다니고 있고, 라인 댄스도 일주일에 두 번 다니고 있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이런 일 한다고 하지 마

내가 맨날 웃는다고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우리 집사님 웃어서 좋아. 맨날 웃어” 그래. 우리 식구들도 하여튼 우리 엄마같이 초긍정적인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요(웃음). 나는 그 말이 좋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 긍정적인 생각을 나는 참 좋게 생각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든지 긍정적이거든요. 진짜 힘들 때 많이 읽었는데 어려울 때 한 일곱 번 인가 읽었을 거예요. 우리 딸한테도 읽으라고 주고 주변에 사람들에게도 한 다섯 권 사서 나눠준 것 같아. 근데 남들은 그렇게 감동적이었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꼬라지[신경질] 나면 그거 옆에 놓고 읽



정혜선이 곁에 두고 힘들 때마다 보며 감동을 받는 책 「긍정의 힘 믿는대로 된다」 조엘 오스틴 지음 2009

거든요.

우리 애들은 착실하게 다 제 갈 길 가고 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영화 제작하는 회사에 오래 있어 가지고 기획 총괄인가 뭐 한다대요. 둘째, 셋째는 광주에서 교직에 있는데 북구에서 둘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는 거기 딸들 집에 가고요. 어차피 애들이 출근하니까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주말에는 방림동 우리 집 가고요. 남편은 혼자고,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딸들은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엄마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말은 맨날 그러죠. 내가 “엄마 이런 일 한다고 하지 마” 그러면 딸들이 “엄마가 뭐 어때서?” 그래요. 우리 막내는 학교에서 청소부 아줌마들, 그런 아줌마들한테도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친절한가 봐요. 금계 아줌마들이 착하다고 근대[그런대]. “우리 엄마도 청소해요” 그런다고 얘기를 하대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한다네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자기는] 한다고 그러대요.

물론 내 자격지심인진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추는 거고. 지금도 취미생활하면서 전부 “언니, 뭐 해?” 그럼, 감추고 “놀아” 그리고 다니거든요. 저 노무[농의] 언니는 논다는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한다고. 근데 “내 일을 하고 있다,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하고 있다”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 좌우지간 아파요.

와이 다닐 땐데, 내가 이렇게 무용을 하고 노래 듣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춤을 배우고 싶는데 그렇다고 세상 춤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십[worship 찬양율동]학원 가면 몸으로 찬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삼 년인가를 다녔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일 하는 걸 아는 언니한테 자꾸 물어봤나 봐요. 정혜선 언니는 뭐 하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으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난 부부동반 해외여행(2017. 5.)

니까, 느끼게 되잖아요. 어느 때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 원장님이 왜 저러지? 약간 무시하는 듯 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사람도 요새 원장님이 언니한테 왜 그러지?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할 때까지만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몇 십만 원씩 주고 드레스도 장만하고 중간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그러니 무책임할 수 없다, 그때까지만 해야지 마음먹고, 꼭 참고 하다가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했었으면 얼마나 베테랑이 돼 가지고 교회에서 또 할 건데. 그거 끝까지 못한 게 너무 안 좋아.

저는 사실은 다시 하라면 이 일은 안 해요. 배울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하바리[품위나 지위가 맨 아래에 속하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는 내내 그랬어요, ‘어디 논 팔고 밭 팔아서 [학교]보내준 게 이 짓거리[가사노동]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묘똥[무덤]서 일어나 불것다’ 막 그런 생각을 하죠(웃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싶어서 슬펐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좋은 일이고 거기에 맞춰서 했을 뿐이지. 내 자신이 나 진짜 대단한 일이다,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동료들 보면 내 시간 따로 쓰고 이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 다들 좋아라 하더라고요.

안 해본 사람은 선뜻 이 길로 못 들어오잖아요. 원래 꼼꼼하고 정리 정돈을 잘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만 착실하게 하면 수입도 괜찮고 주부들이 살림하면서 애기들 학교 보내고 네 시간 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언뜻 못 뛰어들은 게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좀 비뚤어져 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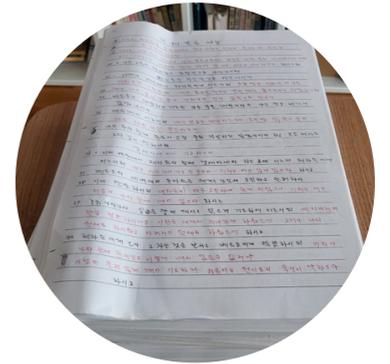
저는 교회 가기를 참 잘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온 게 아니라 처음에 갔을 때부터 성경공부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줘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아무튼 은혜를 잘 받아요. 뇌출혈 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딱 느꼈잖아요. 죽거나 식물인간 됐거나 뭐 반신불수 돼야 했는데 근데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것이 겁나게 지탱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도 자살도 최악이라고 안 되고, 이혼도 최악이라고 안된 게 다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빗쟁이들 오고, 분식집 하고, 남편은 일주일별로 술 마시고 남하고 싸우고. 그 당시에는 애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지 왜 안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었나 봐요. 근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딱 끝나, 그래서 버텼어.

요즘엔 내가 해이해지고 무더져서 [교회에] 좀 시들해졌어(웃음). 근갑다 하고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엔 정말로 힘이 됐어요. 저는 오로지 교회만 있었어요. 금계 거의 한 십 년을 아동부 교사도 했었고 계속 열심히 했었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도의 탑을 쌓으라” 였어요. 기도를 자주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중요시 여겨라, 그 말씀이 탁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날부터 다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계속 읽고 시간 정해서 다시 기도하고. 이래서 또 회복이 되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그 덕으로 교회에 애들도 다 가고 지금은 남편이 나보다 더 잘 다녀. 나는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하면 슬쩍 한 번씩 빠지기도 하다가 이번 설교로 한 방 먹었죠. 그래서 지탱이 됐죠.

지금이나나 나를 위해 내 시간을 갖고 하는 거지, 나는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착실하게만 살아왔어요. 낮에는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집에 오면 성경만 읽고, 2년 동안 성경 육십육 권을 필사도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날라리가 됐잖아요. 좀 비뚤어져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좀 해이해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너무 재밌어요.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금계 그 노래 교실 가면 막 노래도 배워 주고, 춤을 배우고 싶는데 스포츠 댄스 같은 건 짝꿍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누가 손잡는 거



정혜선이 2021년 3월 12일부터 2년간 필사한 성경 66권 필사본



은누리교회 오창주목사로부터
성경필사완료 수료증 받는 정혜선
(2022. 11. 20.)

를 싫어하거든요. 이 손이 빠져서[거칠어서], 고생했니 뭐 어찌니 그런 소리해서 싫어요. 근데 라인댄스는 짝꿍 안 맞치고[맞추고] 혼자 하니까 그걸 택해서 간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제일 쉬운 거래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운동도 되고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치매예방도 되고.

이게 참는 보람이지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분식가게 할 때 부동산 저거[공인중개사], 그 자격증을 학원에 가서 땀어야 하는데, 아줌마를 하나 쓰고 했어야 되는데, 주방에서 내가 음식을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또 그때 목사님이 팔죽 전문점을 내라고 그랬거든. 뭘 전문점을 내, 글고 감히 엄두를 못 냈지. 식당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거인디. 능력 있는 엄마들같이 돈을 모아서 애들한테 줘 주고 그럴 것인데 그게 제일 안스럽죠. 우리 둘째가 의대 간다고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형편에 어떻게 보내냐고 대신에 교육대에 보낸 것도 너무 후회되고. 막내딸이 사립고 교사채용에 합격했을 때는 너무 기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네요.

다른 일을 해 보겠다고 3년을 허비했거든요. 어쨌든 자기 자리 찾았으니 기쁘긴 하지만 그때도 내가 학원을 좀 보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내가 살아왔던 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고 남편하고도 이혼할 계기도 많았었고 정말 안 살아야 할 사람이었고. 근데 버티내고 생각하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잘했다, 잘 참았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막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하는 인생 별로 부럽지 않고 어쨌든 난 잘 버텼고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큰돈은 못 벌었지만 내 몸으로 그렇게 착실하게 다 해서 남편 빛 짚어진 거 다 갚았잖아요. 2013년에 삼성생명에대출금 다 갚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가요. 그리고 원래 내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날 바로 가서 '혜선'으로 바꿨다가요. 그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것 같아 벗어나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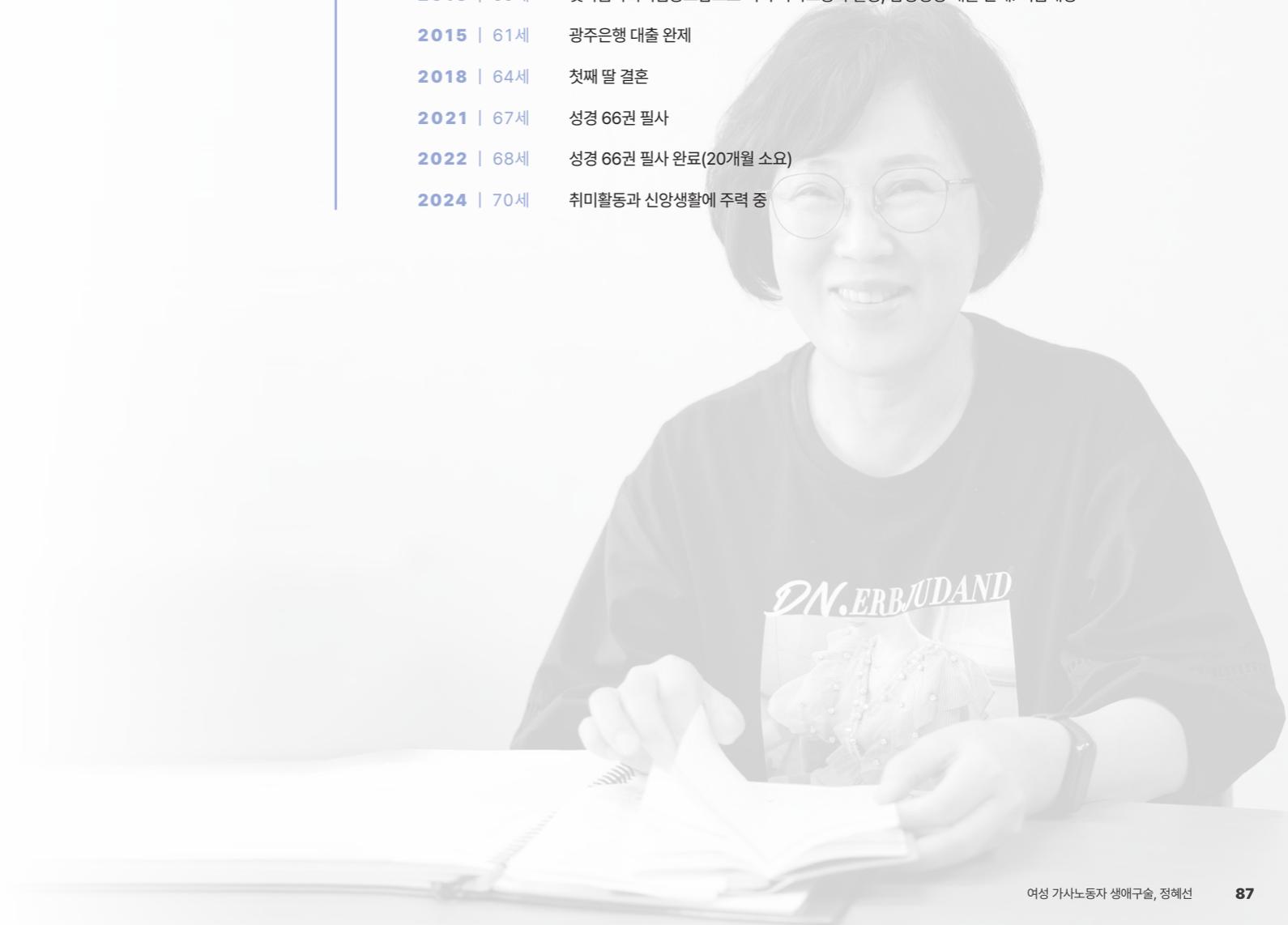
돈도 별로 안 들고 바까주더라고요(웃음). [빛 독촉] 전화 한 통, 한 통 받을 때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불고 싶고, 이 터널을 언제 빠져 나가나 했는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당시에는 진짜 앞이 안 보일 것 같았어요. 앞에 희망도 없을 것 같고. 내 운명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산다 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참는 게 낫겠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 나 빠도 조금 더 길게 보며 참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지금 난 너무 떳떳해요. 이게 참는 보람이죠. 끝



은누리교회 위십발표회를 마치고 대기실서 (2011. 12.)

- 1954 | 01세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에서 2남5녀 중 셋째이자 둘째딸로 태어남
- 1963 | 09세 함평나산국민학교 입학
- 1969 | 15세 <동양종합속성학원>에서 중학교 과정 마침
- 1970 | 16세 <성만여성> 입학
- 1972 | 18세 서울국제우체국에서 6개월간 실습
- 1974 | 20세 서울소재 <웨어차일드씨미콘닥터(주)> 4년 근무
- 1977 | 23세 강두현씨와 결혼 양동발산마을서 신혼
- 1978 | 24세 생활고로 보성에서 시댁살이 함
- 1979 | 25세 첫째(딸) 출산
- 1980 | 26세 광주 황금동에서 주점 7년 운영
- 1981 | 28세 둘째(딸) 출산
- 1983 | 30세 셋째(딸) 출산
- 1987 | 34세 남편 회사설립(삼보토건), 방림동 라인호친아파트 입주
- 1994 | 40세 교회나감. 교보생명 설계사로 활동
- 1995 | 41세 교보생명 신인여왕상 수상. 뇌출혈 수술
- 1996 | 42세 남편회사 부도로 아파트 경매됨
- 1997 | 43세 분식점 운영 (9년)
- 1999 | 45세 방림동 이층 주택 이사
- 2003 | 49세 라인호친아파트 이사

- 2005 | 51세 분식점 폐업 후 팔죽집 운영
- 2007 | 53세 금남지하상가 의류매장 관리(3년)
- 2010 | 56세 YWCA에서 가사도우미(3년)
- 2013 | 59세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직 가사노동자 활동, 삼성생명 대출 완제. 이름개명
- 2015 | 61세 광주은행 대출 완제
- 2018 | 64세 첫째 딸 결혼
- 2021 | 67세 성경 66권 필사
- 2022 | 68세 성경 66권 필사 완료(20개월 소요)
- 2024 | 70세 취미활동과 신앙생활에 주력 중



그림자 노동이지만 지금이 제일 좋아

전희숙 김강현 채록



전희숙은 1967년 초가집이 즐비한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칠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광천초등학교를 거쳐 중앙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일 때 버스 안에서 518의 매운 포화 속을 지나갔다. 이복 출신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족들과 함께 힘겹게 문구 용품 부업 일을 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엘지이노텍에 입사한 후에도 부업은 이어졌고 자신이 일해서 받은 봉급마저 생활비로 대부분 갖다줘야 했다. 돈 한 푼 편히 쓸 수 없는, 회사와 가정 양쪽의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던 마음으로 일급 살 연상의 마음씨 착한 남편을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의 형편도 넉넉지 않아 사글셋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으레 결혼하면 퇴사하던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나 임신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7년 일했던 직장을 그만뒀다. 아이를 낳고 제빵 일을 하는 남편을 따라 순창으로 갔다.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남편이 제과점을 열기 위해 광양으로 이주했다가 가게 자리가 전날 나가버리는 바람에 부식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 몇 년 후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했던 부식 가게가 제법 장사가 잘돼 돈을 모으긴 했으나 분양 잔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리저리 손을 빌려 해결한 것도 잠시, IMF가 터졌고 완공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마음 졸였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는 했으나 IMF 여파로 대출 금리가 10% 넘게 올라 버렸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됐지만 대출금을 갚느라 몇 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빛을 다 갚고 나서 영광에 상가를 분양받고 광주 광산구 운남동으로 이주했다. 셋째 언니와 함께 부식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1년 사업을 접고 남편과 함께 안식년을 가졌다.

1년 후, 지루함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 알아보던 중, 먼저 가사 관리사를 하고 있던 셋째 언니가 추천하여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에서 교육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 수입은 부식 가게를 할 때보다 덜했지만 마음이 편하고 적성에 맞아 처음에는 오전만 하려던 것이 오후까지 일하게 됐다. 광양에서 바쁘게 일했던 시절, 가사 관리사를 고용했던 경험이 가사 관리사뿐 아

니라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 2014년 다른 가사 관리사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이사장이 된 후 영화 동아리, 난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야유회도 추진했다. 교육자료를 만들어 신규 가사 관리사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고객과 가사 관리사 양쪽 모두의 인식 변화를 꾀했다.

전국 가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2022년 가사 노동자 법이 통과되어 기쁘기는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기업이 뛰어드는 경쟁 속에 신규 가사 관리사의 유입이 줄어들고 퇴사자는 많아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중, 2024년 6월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가 해산했다.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협동조합의 운명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는 한편, 이대로 지지 않고 다시 꽃피우게 되기를,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는다.





교무실에 불러 가는 일이 허다했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희숙이에요. 제 고향은 여기서 가까워요. 광천동. 형제는 2남 5녀 중에 다섯째 딸. 저희가 좀 많죠? 근데 오빠는 없고. 저희 남동생만 제 밑으로 둘, 언니만 넷. 그래서 2남 5녀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죠. 저희가 이제 태어났을 때. 광천동이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에서 차츰차츰 늘려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저희가 형제가 일꾼이다 보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그런 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북 분이세요. 고향이 이북이어 가지고 형제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냥 맨몸 훌훌단신¹ 만나서. 일꾼 명 자식 키우니라고[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저희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내 수공업 일을 했거든요.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방학 때 쉬는데 저희 집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하고. 쉬는 날 방학 되면 더 일하고. 그 옛

1 혈혈단신(子子單身)의 비표준어

날에. 우리 지금은 안 쓰는데. 서류철 하는 거, 철끈 때는 검정 거, 표지²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걸 했었어요. 다 재단해서 풀칠해서 말리고 구멍 뚫어서 편치질해서 문구점에다 납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는 새 학기 거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바빠요. 그걸 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는 광천초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앙여중 여기, 양동시장 있는 데, 양동 중앙여중 나왔고요. 중학교 때 갑자기 집을 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너무 매운 거야. 사람들이 막 재채기를 하고. 이제 저는 어린 마음에 누가 고춧가루를 가지고 탔나 보다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18이었고 제가 그때는 광천동에서 다녔었으니까, 기아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세아 자동차인데. 거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막 장갑차 나오고 총소리 들리고. 그때 우린, 집에 있었지요. 제가 중학생이라 나가서 크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냥 집에서 숨죽이면서 총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불 덮고 방송만 들고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중앙여고를 다녔어요. 저랑 같이, 중앙여중, 중앙여고가 같이 있어가지고. 중앙여고에서도 그때 꽤 많이 희생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을 체감을 했던 거죠. 5·18이라는 게, 좀 많이 가슴이 아프죠.

저 학교 다닐 때는 육성회비를 냈는데. 돈을 제때 안 줘서 교무실에 불러가는 날이 허다했고 학교에 울고 가는 날이 좀 허다하니 넉넉하게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여상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광천동에 있던 송원여상. 어렸을 때는 간호사나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칠 남매다 보니, (웃음)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마는.

2 쪽 표지를 가리킴

취직해서 번 돈은 다 엄마 갖다주고

처음에 취업할 때는 쪼그만한[조그마한] 샴시 회사인데 경리로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한 이 년 정도 하다가 제가 또 일신방직도(웃음) 몇 개월 다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가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서 육 개월 정도 하다가 86년도에 엘지 이노텍을 들어갔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 번도 제 손으로 옷을 사 입거나 그래 보지 못했어요. 용돈을 못 쓰고 별어서 다 엄마 갖다주고 생활비로 다 썼었어요.

근데 엘지 이노텍 다니면서, 봉선동에 인화원³ 이라는 농아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엘지 이노텍에서 농아학교 애들한테 하청을 준 거예요. 거기에 제가 두 달간 작업 지도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농아학교에 애 아빠가 총각 때, 운전을 해 주고 있었어요.(웃음) 두 달간 거기서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면 그 사람이 항상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애 아빠가 첫눈에 저한테 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두 달 끝나고 오는 날, 책에다 편지 써



1991년 엘지이노텍 근무 시절



1992년 결혼식

서 저한테 주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여. 일곱 살 차이도 나고. 부모님도 애 아빠 중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뭘,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두 달 만에 회사로 복귀를 했고 애 아빠는 거기서 우리 회사에 납품은 계속 들어오니까 얼굴을 보긴 했죠. 대시했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거기에 근무하신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진짜, 부모님 안 계셔도 너무 착하고 자기가 보증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그런다고, 좀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결혼 조건 1순위였어요.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좋은데. 그 조건 하나만 딱 맞더라고요. (웃음) 그나마, 그래서 그냥 조금 사귀어 불라고 마음먹었었고요.

3 광주인화학교의 전신



1992년 남편과 신혼여행

“그러면 그냥
오빠, 동생으로만
한번 만나 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오빠, 동생으로만 한번 만나 보자” 해서 만났는데요. 연애 오 년 하다가 결혼하긴 했는데 둘 다 너무 없는 상태에다, 부모님이 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저도 칠 년 동안 직장 엘지 이노텍 다니는데 항상 엄마한테 봉급 다 갖다주고 용돈 조금 갖다 쓰다 보니 너무 이제, 돈에 좀 목이 마르고.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집에서는 또 가내 수공업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피처로, ‘결혼을 하자’ (웃음) 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집을 텔꼬[데리고] 갔더니 엄마가 싫어하더라고요.

어서[어디서] 조선 팔도에 저런 놈을 텔꼬[데리고] 왔냐, 나이도 일곱 살 많지, 부모님도 안 계시지, 뭐 벌어놓은 돈도 없지, 그래서 우리 딸하고 결혼할라면 오 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오 년 기다려서 결혼을 했고요. 그때는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 주고 농[장롱] 딱 하나 해 주더라고요.

백이십만 원짜리 사글셋방에서

저희 애 아빠는 집이 효천이었어요. 도동마을이라고 행암동, 거기에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셋째 아들인데 부모님이 그때는 암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애 아빠 말에 의하면, 애 아빠 중학교 때 돌아가셨대요. 살아 계셨을 때 모습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했고 어머님밖에 몰랐대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아들

품에 안겨서 아버님 그리워하면서 울다가 일, 이 년 정도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근동에 땅이 다 우리 시댁 땅이고 막 그랬거든요. 딱 우리 큰 시숙님이 그 땅을 다 팔아가시고. (웃음)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다 팔아갔고 와서 나중에 니네 아파트 한 채 해 준다고 하시더니, 다 팔아갔고 가서부렸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네까지는 서울에다 집 한 채를 사주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결혼할 때 사 준다 하더니 그걸 다 팔아가시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동생이나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결혼할 때 딱 오십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이십만 원짜리 사글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엘지 이노텍에 칠 년 근무하면서 스물여섯 살에 결혼을 하고 더 다니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임신하면 회사에서 거의 퇴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고 다닌 분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도 좀 이겨내고 다녀볼라 그랬는데 바로 신혼여행 가서 애가, 큰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막 하혈하고 병원에서 되도록이면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만뒀어요.



2008년 베트남 가족여행

그 당시 애 아빠가 빵 굽는 거, 제과 일을 했어요. 첫애 낳고 광주에서 살다가 한 일 년 정도에 고창으로 가서 제과점 기술자로, 공장장으로 거기서 한 이 년 정도 있다가 거기 그만두고 제과점을 하나 차리려고 했어요. 우연치 않게 광양에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났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연구도 없는 광양에 갔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 그 가게가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과점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둘째 가졌을 때거든요. 마침 아는 사람이 부식 가게를 했는데 그럼 뭔가 해 볼 거면, 한번 해 볼 거냐고 권해서, 가게를 보러 갔는데 그냥 방 하나 딱 딸린 그 쪼끄만한[조그마한] 한 열 평 남짓한 상가 가게예요. 부식 가게가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용감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애 아빠하고 부식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젊었잖아요. 제가 스물여섯에 결혼해서 스물여덟 정도에 부식 가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부식 가게 하면서 별 보고 일어났다 별 보고 잔다는 게, 그때 다섯 시에, 막 네다섯 시에 인나[일어나]갔고 시장 가고 문 닫고 하는데 제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해 보다가 그 부식 가게 하면서 흠을 만지니까 이 손이 막 피가 나더라고요. 막 흠 만지고 이렇게 따듬고[다듬고] 하니까 거북이 등껍질처럼 짹 짹 갈라져서 여기서 피가 나왔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쓰라리고[쓰라리고] 아프더만. 그 고생을 정말 오래 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제가 부식 가게를 하는 걸 보고, 이방인이라고 “아,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막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도 많이 안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체 부지런하게 다섯 시면 인나고[일어나고] 밤 열두 시까지 장사를 하고 하니까. 그때는 “아, 니네가 일주일을 갈까? 한 달을 갈까? 일 년이 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저희가 젊은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대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좀 장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부식 가게 할 때는 평일에는 쉬지 못해요. 그래서 명절에만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저희가 일 년 무이자 할부 끊어갖고 해외여행을 좀 갔어요. 처음 해외여행 갈 때가, 중국 만리장성에 갔어요. 애들 다 데리고 갔는데 저희는 돈도 중요하지만 애들 어렸을 때 가족 간의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평상시에는 못 가니까 명절이면 항상 거의 해외를 나갔어요.

부식 가게 운영 시절 남편과



그걸 다 겪어 나가고 고생하니까

또 좋은 결실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여행 가는 것들이 참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참 좋았다고 해요. 또 평상시에는 장사하다 보니 봐줄 수가 없어서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학원을 좀 돌리는 거였어요. (웃음) 그나마 이제 애들한테 이 학원 갔다 오면 저 학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일할 시간이 좀 주어지니까. 그 대신 저는 공부, 학원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들이 운동선수인 줄 알았어요. 하도 운동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시키마니까[까마니까].

그때 광양에 신도시가 생겼었거든요. 이제 조금 돈이 모이지니까 애 아빠가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 상가를 그냥 한번 분양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양 신청해서 혹시 되면은 우리가 좋으면 하고. 그때 한참 이제 프리미엄이 유행할 때였어요. 안 되면 프리미엄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덜컥 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웃음)

상가가 돼버려서 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친정이고 막 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저희가 하도 착실히 사니까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중도금 마련해서 일단은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를 이익 빛내서 갔어요. (웃음) 그때 뭐가 생겼냐면, 딱 IMF가 생겼어요.

95년도에 저희 둘째가 생겼고 이제 분양을 받았고 거기 건물 올라갈 때, 막 97년도잖아요. 그 때 IMF가 생기면서 상가들이 다 무너지고 못 짓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상가를 하나 해놨는데, 빚은 이익을 냈는데 중도금 내놓고 했는데 이 상가가 올라갈 수 있나 없나. 그런데 마침 저희 상가는 안 무너지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를 해서 갔는데 계속 IMF였잖아요. 그 이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IMF 터지면서 이자가 정말 비쌌어요.

막 십몇 프로 했을 때여가지고 아무리 벌어도 이자 감당하느라 원금이 갚아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장사도 엄청 잘 났어요. 하루에 막 거의 이백씩, 부식 가게 하면서 이백 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딱 부식만 했는데. 근데 그 현금이 막 매일 이백씩 들어오는데도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어두운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서 안 무너지고 그래도 그걸 다 겪어 나가고 고생하니까 또 좋은 결실도 있더라고요.

광주로 나오자

광양에서 한 칠 년 정도 하니까 빚 갚고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광주로 나오자 해서 광주로 나왔어요. 광주로 나오면서 영광에 주공에서 상가 분양을 하더라고요. 광양에 있으면서 이제 영광 상가도 같이 분양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또 거기가 마침 된 거야. 그래서 거기 지을 동안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운남동에 육 단지, 일 층 상가에서 마침 쓰러져 가는 부식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세로, 또 부식 가게를 시작했어요.

전체적인 올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식 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김밥도 맡아서 팔았어요. 거기서 좀 키워가지고 권리금도 받고 영광 상가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에서 일 년 삼 개월 정도 마트를 하다가 너무 잘 되고 하니까 미니스톱에서 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스톱에 세를 내주고 지금은 이제 세 받고 있어요.

부식 가게 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웠던 건 저희 애들이 광양에서 5학년 2학기 때 광주로 전학을 왔는데 육 학년 때 전교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번 나가겠다는 거예요. 광양에서는 좀 나름 했거든. 계속 반장, 회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웃음) “야 너, 광양 촌에서 와가지고

너를 위하여 누가 전교 회장으로 뽑아주겠니?” 했는데 뭐 벽보 붙이고 막 홍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데 엄마는 못 도와준다. 니가 되면은 엄마가 나머지는 도와주는데” 라고 했어요. 지[저]가 나가더니 전교 회장을 덜씩 해 갖고 왔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자모회장도 해 보고. 우리 큰아들이 전교 회장 하는데. 이제 우리 둘째도 나름 전교 부회장을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전교 일 등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회장도 계속하고. 우리 둘째는 고등학교 갈 때 전교 일 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항공대 가서 지금 비행 조종하고 있어요. 큰 애는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좀 특수직이에요.

저희는 부식 가게 하면서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대요. 남들은 그렇게 싸우는데 저희는 서로 떨어지면 불편했어요. 지금도 사이는 좋아요. 애 아빠나 저나 사람들이 항상 천생연분이다 할 정도로 한 번도 안 싸우고 항상 둘이 이렇게 붙어 있고. 오로지 저희 신랑은 아버지 닮아서 딱 저밖에 몰라요. 잘 결혼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둘이 사업했지만, 술 담배도 안 할뿐더러 장사하면서도 아침에 먼저 가서 문 열고 항상 저 먼저 들어가서 애들 챙기라 하고 문도 제일 나중에 자기가 닫고 오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목하거나 지금까지 이 정도 경제적인 바탕이 된 건 반려자를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해요.

저희 애 아빠는 항상 하는 게 자기가 한 발 더 움직이면 내가 한 발 더 편하다는 그런 주의여가지고 애들한테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야. 너네 엄마 너무 예쁘지 않냐?” 내가 뭐 이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글고[그리고] 똥똥한데, “야, 니네 엄마 저 정도면 날씬해” 항상 애들 앞에서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존중해 주면서 뭐 생일이나 무슨 날 돌아오면 항상 저한테 좀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딱 닮아서 자기 각시[아내]한테도 이벤트를 잘해주고 저한테도 “우리 엄마가 제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이거 한번 해 보라

2011년도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쉽이 필요하다 해서 가게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처음으로 그때 우리 애 아빠랑 둘이 딱 일 년 쉬어봤어요. 막상 일 년 놓고 나니 너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 볼라고, 직장에 가 볼라 했더니 제가 사무직 그런 걸 전혀 못 하고 고등학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쉽이 필요하다

졸업하고 갔던 게 다 현장 그런 거여가지고 어디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물며 식당도 경험자 우대 그렇게 해서 뽑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식당보다는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저희 넷째 언니가 동생이랑 전대 병원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언니, 나 일자리 있으면 좀 줘봐” 했더니 “너 그거 미화원 할래? 그거 하겠냐?” 그랬어요.

“왜 못해? 언니,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쩌[저기] 전대 화순병원에서 한 육 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청소 방법을 좀 알아갖고 왔어요. 저희 셋째 언니가 제가 부식 가게 할 때 여기 상가에서 같이 도와줬거든요. 모든 김치 반찬을 담당했던 언니였어요. 제가 부식 가게를 접고 가버리니까 그 언니가 이제 백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가사관리사 일을 먼저 하고 계셨던 그 언니 친구가 권해서 셋째 언니가 시작했는데 너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 년 동안 놓고 “언니, 나 이제 뭘 해야 될까?” 어디 가려고 보니 기술도 없고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너무 괜찮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광양에 있을 때 부식 가게를 하면서 바빠서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사는) 언니가 이걸 권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해봐라” 그러니까 “언니, 너무 쟁피해 [창피해]. 막 이런 속옷 같은 거, 이런 이불, 막 내 치부를 내놓은 것 같아” 이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시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라곤 와이[YWCA]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 가사관리사 분을 일주일에 두 번

을 쓰고 살았어요. (웃음)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나는 일하고 집에 와서 딱 씻고 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망설였었는데, 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꾸준히 장사하면서 계속 이용을 했어요. 거기에 한 번 이용했는데, 처음에 네 시간씩 해서 그냥 차비도 좀 주고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엉망으로 해 준 거예요. 네 시간인데 한두 시간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참다 참다 안 되겠길래 옆집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거기에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다른 분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분은 정말 정말 깨끗이 해 주면서 우리 애들 팬티까지도 막 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미안해서. 그때는 건조기가 없었지만 내가 이제 빨래를 돌려놓고 가요. 그러면 일을 두 번 만들지 말고 빨래 놔두라고 해요.

저는 그때 바쁘니까 흰옷 빨래 다 한꺼번에 돌렸더니 그분이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할 테니까 절대 만지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사관리사를 쓰면 얼마나 편한지도 알고 있죠. 나중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일하는 입장에서의 제 생각하고 일 시키는 입장에서의 제 생각하고 그 양쪽을 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창문 청소를 하는 모습

“너,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론 일주일, 실습 삼 일

처음에 왔을 때, 남들은 “너,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냐?”,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격증도 없고 뭐, 사무 경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했던 게 부식 가게, 마트, 김밥집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거 하나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오전 타임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오전, 오후 다 하게 되고, 일주일 하게 되고, 고객님들이 너무 만족해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괜찮은 직업이에요. 저는 만족해요.

그전에는 전가협⁴ 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여노⁵ 에서 각 여노 부설로 여기 가정관리사협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정관리사협회라고 그래가지고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설 기관으로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교육 체계가 오히려 더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4대 보험을 안 들다보니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여가지고. 그때는 이론만 일주일 교육 받아요. 일주일 강의에서 전가협에 대해서 강의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성노동자회 부설이다 보니 우리에게 대한 교육도 있지만은 여성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있었어요. 그 여성노동자회 회장님인 서연우 회장님이나 옛날에 주경희 회장님, 그분들이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좀 많았어요. 그다음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저런 시간들, 이론 교육, 그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하고 실습을 한

4 2004년 가사노동/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경제공동체

5 한국여성노동자회: 1987년 창립

삼 일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 후에 파견을 하고. 삼 일 실습으로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따라다니면서 선배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본인들 하던 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가 누구를 갈킨다는[가르친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문제도 아니고, 고객님들이 이렇게 누구 하나 데리고 간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눈치를 봐가면서 했는데. 따라가서 실습하면서 배우는 게, 기본적인 큰 틀에 있는 것들 주방 정리, 세탁 방법, 빨래 어떻게 개는 거, 화장실 청소, 창틀 청소 이렇게 나눠서 기본적인 것만 우선 하라고 배워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뭐 베란다 청소라든지, 싱크대 정리, 수납 정리, 이런 것들은 시간 남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된다고 하셔서 거기 따라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수건 정리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

전에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사랑방[신문]이나 어디 뭐 114안내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격에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 이 일이 그러잖아요.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그리고 여성노동자회 소속인 우리는 그래도 그 타이틀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성노동자회에서 교육한다고 하면 여성노동자회를 믿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한 열 명 이상 정도 모집하게 되면 교육을 시작하고 했던데요, 제가 12년도에 거기 처음 발을 들였는데 저랑 같이 교육받았던 사람이 열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육받았던 사람 중에 저희 기수는 딱 두 명 있었는데 그마저도 작년에 나가고 열 몇 명 중에 저 혼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해요

저희가 고객한테서 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고객한테 전화로 사정을 여쭙봐요. 몇 평인지, 반려건이 있는지, 반려묘가 있는지, 뭐 옥탑방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일단 고객님한테 다 확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금이 조금씩 달라져요. 요즘은 특히 반려견, 반려묘들이 가족이나 똑같잖아요. 저도 그런 건 좋아하긴 하는데 개네들이 사람 한 사람 분을 차지해요. 배변도 잘 가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반려묘, 반려견이 있는 경우는 오천 원, 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지. 복층인 경우에도 돈이 좀 더 추가되고 그다음에 격주로 갈 때는 또 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저희 관리사님, 되도록이면 제일 좀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광산구 쪽에 일이 나왔다 그러면 광산구에 사시는 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배정을 해요.

보통, 복장은 이렇게 일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맨얼굴로 가는 것보다는 찌한 화장은 아니지만 과한 악세사리

기본적으로 제가 회사의 얼굴이다 보니 그래도 단정하니 입고 가시라 해요.

도 피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회사의 얼굴이다 보니 그래도 단정하니 입고 가시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고요.

일단 좀 단정한 복장을 하고 가서 처음으로 이 고객 댁을 방문했다 하면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신발이 좀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올 때 제가 신발을 좀 가지런히 일단 해놓고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가사 관리사 누굽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오늘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어디서 갈아입을까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내해 주는 데나 방에 가서 갈아입으면서 마음에 정리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옷을 딱 갈아입으면서. 딱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 이 집은 오늘 좀 힘들겠다’, 어찌됐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마음가짐을 조금 갖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꼭 작업복은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그래요. 그 입고 갔던 옷을 입고 그대로 일하면 끝나고 갈 때 옷을 망칠까 봐 그냥 일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항상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에서 제작한 앞치마 있거든요, 그 앞치마 두르고.

환복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집이 처음이다 보니 혹시 고객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처음 갔을 때는 집을 살살이 다 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고객님이 이 부분은 꼭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이 “저희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데” 아니면 “화장실 주방 쪽은 오늘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그날 꼭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끔[있게끔] 해 주고.

이제 차근차근 다음에 두 번, 세 번 왔을 때 안 된 부분을 하게 되고요.

보통 고객님들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차라도 한잔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차 한잔, 간단히 티 타임 오 분 정도 갖고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물어보면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환기, 환기시키고 그다음 세탁기. 요즘은 빨래가 건조기가 있다 보니 저희가 네 시간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흰 빨래 검정 빨래 분리하고 건조기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먼저 빨래부터 분리해서 세탁기 돌리고. 고객님이 간단히 이제 티 타임 하자고 할 때, “먼저 세탁기를 돌려놓고 잠깐 티 타임 갈게요” 하고 세탁기 돌리고 고객님하고 간단히 티 타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해요. 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 시간 분배가 어려워요. 근데 꾸준히 가게 되면, 보통 주방에는 한 사십 분 정도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들을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돌린 빨래를 다 정리한 다음에, 각방 하나씩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화장실 하고. 제일 더러운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곰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염도를 먼저 체크해가지고 세탁기 돌려놓고 주방 청소하기 전에 오염이 심하면 저희가 보통 쓰는 게 락스와 세제 하나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다 묻혀놔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에 물을 한 번 뿌리면 어느 정도 곰팡이들이 쉽게 다 제거가 되거든요.

청소가 모두 다 끝나면 제가 사용했던 청소 도구 정리하고 걸레 빨고 마지막 문단속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객님 요구 사항대로 맞춰드리면 별문제 없이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가사관리사로 일하러 다녔을 때는 돈을 주니까 깨끗이 했는데 저희 집은 돈을 안 주니까(웃음) 대충 하고 삽니다.

한 번도 안 받아본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고객은 없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저희는 기본이 네 시간인데 고객님 사정마다 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 시간에 딱 끝나는 집도 있고, 좀 빨리 끝나는 집 있고, 또 네 시간이 더 걸린 집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네 시간을 잡고 파견을 하고요.

혹시라도 일을 하다 보면 딱 그 집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집을 딱 스캔하면 이 집은 네 시간에 끝날 수 있다 없다 저희 관리사님이 좀 판단이 나와요. 그다음에 고객님이 계실 경우에는 “고객님 오늘 제가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조금 시간이 오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양해를 구

해요. “제가 혹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드리는데 네 시간 안에 못 끝나면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더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고 올까요? 아니면 고객님 추가 안 하시고 그냥 네 시간에 그냥 끝내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그냥 저희는 추가 안 할 거니까 네 시간에 맞추고 그냥 끝내주세요” 하면 그냥 오고, “아니, 그냥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하면 이제 추가를 하는데 그때는 한 시간당 만 오천 원 추가 요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고객하고 미리 얘기를 한 상태에서 고객님이 오케이 했으면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 아니면 그냥 오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 또한 거의 비례할 정도로 많아요. 어떤 고객님들은 바퀴벌레가 그냥 우두두두 머리에 떨어지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너무 짹짹해서 샤워부터 하려고 옷을 딱 벗었는데 바퀴벌레가 제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고객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딱 가서 땡땡(초인종) 눌렀는데 “어, 이모님 오늘 손님 오셔서 오늘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근데 딱 집 앞에 가서 땡땡 눌렀는데 오늘은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간 들여, 돈 들여갔다 그냥 공치고 오는 거잖아. 그날은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또 양호해요. 청소하다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을 좀 해드리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정리 정돈을 했는데 뭣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인데, 이게 이모님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저희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들이 없어지면 거의 다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거의 안 만지거든요. 저희는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물건이 나와서 찾아졌으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와봐요, 그럼 정말 짹짹해요. 그다음에 이 집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힘든 게, 요즘 건조기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네 시간을 기본 서비스로 가는데 보통 저희가 흰 빨래, 검정 빨래 두 분류로 해서 빨래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손빨래까지 세 분류를 해요. 그리고 나면 고객님들이 이렇게 세탁기를 한 번 돌려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돼서 바로 건조기를 돌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빨래는 산더미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정, 하얀 이렇게 구별해서 세탁기를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고 나서 건조기를 돌리면 요즘 건조기가 시간이 또 많이 돌아요. 한 번 도는데 좀 무게가 있는 것들은 거의 두 시간씩 돌아버리니까.

그냥 건조만 두 번 하면 괜찮은데 빨래를 먼저 하고 나서 건조를 해버리면 이제 한 번은 돌아가요. 건조기에서 다 빼서 딱 개켜놓고 오면 좋은데 빨래를 두 번, 세 번 해버리면 나머지 빨래는 건조를 다 못 하고, 일을 마무리 못 하고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님이 “아니 이건 안 해 주셔요?” (그러면) 저희도 너무 짹짹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는 건조기가 좋지만은 저희한테는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을 그만큼
좀 많이 철저히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고객님이 집에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청소하는 지를 보시니까 두 말도 안 하세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 중에 “어? 우리 전에도 써봤는데, 다른 분은 그때 시간이 남아서 가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참, 저희는 난감한데 그분들이 다른 업체를 쓰시다가 이렇게 저희 업체를 쓰시면 보고 두 말도 안 하시고 딱 (요금)을 넣어주세요. 저희가 교육을 그만큼 좀 많이 철저히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좀 높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한 번도 안 받아본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고객은 없다” 라고. 한번 받아보면 너무 좋아서 계속 이걸 꾸준히 이용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가협에서 일을 하다가 고령화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저한테 딱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경력 단절됐다가 언니 소개로 일을 시작했잖아요.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출자도 해야 되고 4대 보험도 넣어야 되고, 4대 보험을 내게 되면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반을 주고 자부담 반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협동조합이다 보니 저희가 사장도 되고 종업원도 되다 보니 그 4대 보험 사측 부담과 자기 부담, 그걸 다, 백 프로를 본인들이 내게끔[내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조금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4대 보험 때문에 가입을 꺼려했던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다섯 명이라도 먼저 받기인 해서 다섯 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후발 주자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끔[들어오게끔] 하자 해서 처음 다섯 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협동조합을 하려면 공부를 좀 했어야 돼서 일 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같이 겸했어요. 뭐 전국 가정 관리사 협회하고 협동조합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일을 했고. 그 뒤로 14년도에 협동조합을 일차로 가면서 처음 다섯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보이니까 후발 주자로 또 계속 영입됐었죠. 그때 당시에 한 육십 명 정도 됐는데 다 빠져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십 명밖에 협동조합에 못 왔어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업체를 이렇게 끼고 하시든지 아니면 연결해 주는 어플 받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냥 알음알음으로 아시는 분들, 지인들 이렇게 일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이 일을 제일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망설이다가 오셨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하시다가 막상 딱 한두 달만 고비 넘어가면 그때 가선 이 일을 하길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시는데, 여기 처음 발 디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뭐 화장실 청소, 설거지, 빨래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 이미지상 힘든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어디 가서 남한테 땀땀하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나만 만족하는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114 홍보나 홈페이지에 올려도 그렇게 크게 많이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분씩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제가 일대일로 바로바로 교육을 시켜 버려요. 근데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4대 보험 들어간다는 걸 설명을 하게 되면 교육 받고 더는 안 오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신 분들은 일 끝나면 바로바로 현금 받아야 되는데 이론 교육 있고 또 실습도 있고 4대 보험도 댄다고[댄다고] 하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조합에 문의가 들어오면 일단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충은 저하고 상담하고 가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하시겠다 싶으면 교육비로 오만 원 받고, 그 오만 원은 당연히 저희 운영비에 넣게 되고요.

뭘 교육을 하는데 오만 원씩이나 필요하냐고 그 돈 아까워서 안 오신 분도 있고요. 일단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간식도 준비하고 책자 그것도 있고. 전에는 오 일 교육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유입되게 하고자 최대한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 교육은 하루, 저하고 네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신 분은 “이런 가사일을 하는 데 뭐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 “저 일 잘해요. 집에서 살림 잘해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막상 제가 교육을 시키면 “아 정말 받기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최대한 아껴야

제가 가사 관리 서비스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물 창고예요. (웃음) 저한테는.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며) 작업 실내화, 그다음에 스키지[물 굽개], 작업복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 댁에 청소용품이 거의 있겠지만 보통 세제들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청소하는데 저희가 편하려고 과탄산소다를 이렇게 소분해서 다니고 있고요.

독한 세제보다는 과탄산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잘 되고 우리 몸에도 좀 덜 해롭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귀퉁이 같은 데 곰팡이 있으면 그 락스 조금 문혀가지고 이걸로 찹찹(철 솔로 시늬하며) 문혀놓으면 한 삼십 분 정도 있으면 굳이 안 닦아줘도, 조그만 오물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싹 지워져 버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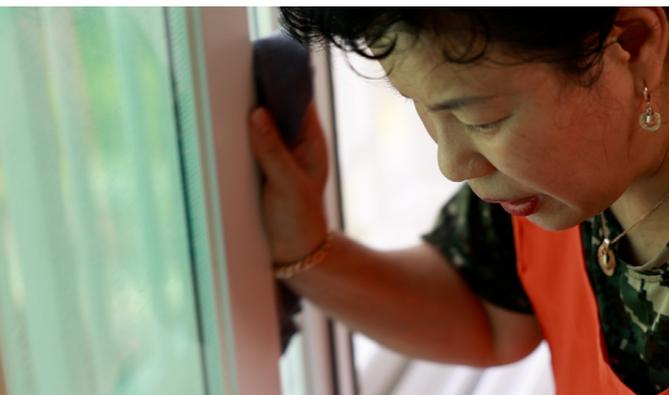
그래서 좀 오염도에 따라서 락스를 쓸 때도 있고 과탄산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솔을 가지고 다니고요. (헤라 꺼내며) 이건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이 건 헤라[스크래퍼]라고 창틀 청소하는 거, 고객님 댁에 창틀 청소들을 거의 못 하셔요.

이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틀 청소할 때 전에는 막 손가락으로 물티슈 꺼서 (닿는 시늬 하며) 이렇게 청소하면 이게 관절염이 심하게 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하는데 손이 제일 아프고 저려서 그만두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창틀 청소할 때는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헤라라고 해요, 기억 자 헤라. 그리고 귀퉁이에 좀 손이 안 들어가는 데 뭐 타일 틈 새라든지, 수도꼭지 틈새 그런 곳을 이걸로 청소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것들은 (케이블타이 꺼내며) 제가 혹시 몰라서 전선이 너무 널브러져 있으면 이거 타이틀 갖고 다니면서 정리 해 주면 그거 별거 아니지만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가느다란 철제 솔 꺼내며) 이것은 이렇게 철 수세미로 가스레인지 같은 거 청소하긴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조그만] 틈새에, 이게 철로 돼 있어갖고 이걸로 이렇게 틈새를 문질러 주면 잘 닦여서 저는 이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이 조금 큰 걸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청소도 중요하지만은, 정리 정돈도 어느 정도 해 드려야지 고객님들이 청소했다는 기분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 전문이지만은, 정리 정돈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 정돈의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약상자 가리키며) 일레로, 이게 그냥 바닥에 딱 떨어져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는데 집에서 못 쓰는 단단한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보이게끔 정리 해줘요. 그리고 이 약들은 그냥 통째 있으면 절대 안 먹어줘요.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게끔 [있게끔] 아침에 그냥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위로 조금 커트를 해줬고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바구니에 하면 훨씬 더 깔끔한 맛이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간단한, 부피 안 차지한 것은 바구니 이런 거에, 제가 다이소를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걸 보자면 (다른 찬장 열고) 이게 문구용 책꽂이 파일이에요. 보통 접시를 이렇게 (가로로) 겹쳐서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빼려면 너무 힘드니



까 저는 파일을 이용해서 책 끝듯이 이렇게 (세로로) 꽂아놓으면 접시 같은 거 빼서 쓰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다이소 가면 오천 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참 좋은 것 같고요.

(화장실로 이동)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도 보통 (바구니 가리키며) 이런 그릇들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날개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면대에 놔두면 이걸 다 들어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넣어서 이걸 한 번에 들어서 청소하고 제 자리에 도로 놔두게 되면 이게 정리 정돈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다이소 가면 이런 게 천 원짜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 주면 고객님 보기에든 깨끗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청소할 때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이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청소 도구 용도로 제일 제가 선호하는 게 이거(기역 자 헤라 꺼내며), 제가 필수로 어디 갈 때 나 꼭 안 잊어먹고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저희 창틀 청소할 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베란다로 이동하여 문 열고 가운데를 가리키며) 이 넓은 면적의 청소는 괜찮아요. 근데 이 구석 (가장자리 가리키며), 이 구석을 봤을 때는 이 기역 자 헤라로 한 번만 딱 꺾어주면 이게 깨끗이 청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힘들지 않게 도구를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고 몸을 아낄 수 있는 청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청소가 깨끗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이거 하나씩 놔두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꺾이나 애들 유리창에 스티커 붙어 있을 때 이걸로 하면 기스[흠집] 안 나고 수세미로 힘들어서 막 안 닦아도 되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합원들 교육 시킬 때 이걸 다 하나씩 사서 줬었고요. 그리고 유리창 청소할 때 보통 우리들이 유리창 청소하면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유리창이 제일 쉬워요. 물걸레로 한번 이렇게 짹 해주고 부드러운 수세미를 한 번 쓱 문댄 다음에 스키지로 유리창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딱 한 번 밀고 나면, 안 닦아줘도 이 거울이 깨끗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요령인데요. 여기에 오면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받고 몰랐던 걸 자기 집에서 활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 관리사님들이 “아, 내가 그동안 살림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걸 아니었다. 역시 살림도 다 배워야 된다.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처음에 와서는 가정에서 실습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좀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집이 더러우면 쓰겠냐 싶어서 (웃음) 집에 가서 청소를 한 번씩 더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년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칠 년 일했습니다. 지금 십이 년째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사무실 이사장까지 있게 됐어요. 저는 가사관리사를 쓰기도 했고 일도 했잖아요. 그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돼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득할 때 관리자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고 우리 관리사님한테 ‘내가 할 때는 이게 좀 그러더라’ 그러면서 절충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신입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무조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가사노동자들과 회의 장면

근데 제가 이사장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회의 때 많이 알려드리고 창틀 청소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렌지 후드 청소하는 방법, 이런 거 회의 때 막 시연해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려고요. 청소 도구가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많이 구입해서 조합원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거 너무 좋더라, 써 봐라” 하면 다들 써보니까 “이걸 왜 이제서[이제야] 말해줬냐?” 그래서 지금은 도구를 많이 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뭐 자본 투자인 거 아니고 우리 몸이 재산이고 이 일은 나만 건강하면 칠팔십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몸을 내가 최대한 아껴야 이 일을 오래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내가 무리 안 가는 쪽으로 일을 해라. 영리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 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들이 같이 일을 가다 보면 이제 다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했던 게 임신부 막달 서비스⁶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용섭 시장님 있을 때 그 사업을 했었어요. 시에서 임신만 하면 임신부들한테 이십만 원을 가사 서비스 이용권으로 줬어요. 한 번에 이십만 원을 쓸 수도 있고 그걸 쪼개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뭘 에어컨 청소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민단체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이라 웬지 믿음이 간다고, 자기 집에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줬는데 너무 만족해하시고 좋으셔서가지고 그분이 맘카페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돼서. (웃음)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산모들이 임신부 막달 서비스하면서 맘카페에 저희도 모르게 그게 공유가 많이 됐었나 봐요. 산모님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광주 임신부가 작년 기준으로 한 육천오백 명 정도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백이십 건 정도 시 사업을 했고요. 올해 오월까지는 백 열 건 정도의 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한테 막달 서비스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됐고, 고객님들은 너무 만족하시고요. 그걸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십만 원이다 보니 이렇게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게 너무 조금이고, 시에 건의해서 좀 횡수를 늘려주라든지.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고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임신부 막달 서비스 검색해 보면 저희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 하면서 그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야유회를 가긴 했는데 한 번도 해외로 안 갔대요. 근데 제가 사무실 이사장을 하면서 조합원들하고 베트남 3박 5일 해외여행도 갔어요. 처음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여권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대요. 그런 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됐죠. 그리고 1박 2일 야유회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봤어요.

6 광주광역시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8 세계 여성의 날 난타 공연 (가운데)

또, “우리가 일만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영화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전 조합원들이 두 달에 한 번이나 안 되면 전반기, 상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영화를 관람해 보자 했더니 지금까지 한 다섯, 여섯 번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언제, 가족들하고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영화도 본다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반지, 팔찌 이런 것도 잘 못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온갖 치장을 하고 예쁘게 치마 입고 싹 꾸미고 왔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해요. 조합원들이 ‘내가 여기에 온 덕분에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다’ 하면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큰 많은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여노 노조에서 동아리 지원 좀 해 준다고 동아리 모임을 한번 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타 동아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무대에 서거나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젊은 나이였거든요. 젊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치, 박치예요. 무대에 서는 걸 너무 싫어하고, 뭘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방 가는 것도

'난 너무 음치, 박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계 여성의 날 난타 공연 조합원들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싶었는데 하도 옆에서 “젊은 애가 이래도 빼고 저래도 빼다” 고 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음치, 박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이다가 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공연을 하다 보면,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메인에 서서 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제 소질을, 그 끼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 먹어서 뭔가 남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다섯 명 정도 시작했는데 학원에 가서 주 2회, 처음부터 배웠죠. 그러가지고 그때는 막 공연 나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두 명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래도 뭐 서구청 팀, 법원 팀, 다른 팀하고 합류해서 공연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공연하러 다니려고 복도 샀어요. 처음에는 학원에서 빌려서 썼는데 눈치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두 개씩 가지고 치거든요. 그래서 개인당 두 개씩 다 사가지고 공연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심벌즈도 치고 난타도 쳐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한 삼, 사 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생기고 모든 모임이 다 중단되면서 멈췄어요. 그러가지고 올해 다시 시작했어요. 인제 이 월 달부터인가? 지금은 저희 조합원들 다섯 명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에도 썼어요. 작은 무대가 아니고 무려 도청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무대에서. 많이 떨렸지만 너무 즐겁게 했던 기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발표 무대는 토론회의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타로 무대 공연에 몇 번 서다 보니, 그래도 다른 발표에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십 년을 기점으로

가사관리사로 처음 간 집들은 정말 텔레비에 나올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딱 끝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내가 우리를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래요. 진짜 손만 댔다 하면 너무너무 일들을 잘하죠.

가사 관리사들의 나이가 조금 아쉽고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손목, 발목, 허리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그건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요. 저희같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런 보상은 다 돼서 산재 처리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정착이 돼야 해요. 보험 제대로 가입해 주고, 산재도,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있게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시작한 지가 올해로 딱 이십 주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여덟 개 지부로 시작을 했거든요. 광주, 안산, 전북, 이런 식으로 여덟 개 지부가 뭉쳐서 전가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 년에 분기별로 이제 서울로 회의하러 가고 무슨 공유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공유도 하고. 저희가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라고 피켓 시위며, 국회 이런 데에 매번 참석하고 했었는데 이십 년 동안 노력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년 전에 국회에서 가사법⁷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말만 가사법 통과 시켜줬지, 우리한테 돌아온 혜택은 아직은 너무 미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는 걸 꺼려하는 추세예요. (그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에는) 개선할 부분이 좀 많아요.

7 가사법

우리를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래요.

진짜 손만 댔다 하면

너무너무 일들을 잘하죠.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개선해야 돼요. 인증기관이 되려면 최저 임금 줘야 되고, 주휴수당 줘야지, 연차 줘야 되지, 보너스 줘야 되지, 퇴직금 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이런 일 하면서 그 돈을 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봉급도 겨우 가져가는데. 그러려면 이용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시간에 한 칠, 팔만 원은 줘야지, 조금 떼고 뭐 퇴직금을 주든, 주휴수당을 주든 하지. 고객들은 지금도 네 시간에 육만 원 정도를 주는 그 돈도 적지 않다고,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하고 6월달에 면담도 잡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좀 해 달라 하려고요. 으샤으샤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처음 했던 그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고령화가 돼서 점점 인원수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나 (이 일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생기다 보니 저희같이 조그마한 업체는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없어져가지고 다섯 개 지부를 하다가 그마저도 인원이 이제 다 없어지니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만 이십 년을 기점으로 그냥 해산을 하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월 십오일 날, 그날이 전국 가사관리사의 날이거든요. 서울 가서 기록물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저 때는 저랬었지.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가사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그림자 노동이 아니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남들한테 인정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반만 인정을 받았잖아요.

안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해산하는 게 마음은 좀 아팠지만 더 이상의 인원이 없다 보니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해산하고 왔어요. 정말 좀 아쉬웠어요.

서울 갈 때 회의한다고 갈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연대해서 가사관리사라는 것을 인식 개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 독단적으로는 뭘 할 수 있을지 조금 막막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 년 전에 이사장 되기 전에만 해도 그때 스펀일곱 명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시점으로 저희가 열아홉 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달 말부로 또 한 명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퇴사를 한대요. 이제 퇴사할 분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삼 년 안에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멤버들이 좀 많이 와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는 먹으셨더라도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많이 개선해서 정부 인증기관이 돼서 작게나마 운영하면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80%씩은 3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깐, 좀 젊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계속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이런 좀, 그 의무감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청소를 해줬는데요. 방송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야 할 집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저기 사동 쪽에 청소를 해 줬는데 거기 쓰레기를 차 세 대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청소 인원도 거기 남구 동사무소에서 열 몇 분 봉사활동 나오시고 전대 병원에서 열 몇 분 나오시고 저희도 열 몇 명 해서 하루 종일 청소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청소하고 나니깐 처음 그 쓰레기 집이 이 집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한 경험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는 아니지만 시설 청소를 정기적으로 갔던 것이 기억나고. 또, 나주 장애인 시설에 가서 청소해 주고.

저희가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그쪽 시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보통 봉사활동 하면 사진만 찍고 그냥 생색만 내고 이렇게 가버린대

요. 근데 저희는 봉사활동 가게 되면 거기치[거기에 있는] 용품 하나도 안 쓰고 뭐 세제며 뭐 걸레까지도 저희가 용품도 싹 챙겨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그 정도로 변화를 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아 오셨어요? 대충 하고 가세요” 이러신 분들이 딱 우리가 청소 끝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데서 봉사활동 오시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얼른 사진만 찍고 갔으면 하는 때가 많았는데 가사관리사 봉사팀은 또 와줬으면 감사하겠다고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하러 갔지만은 오히려 그분들 보면서 힐링을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십 대에 여기 들어와서 멧모르고 정말 힘든 줄 모르고 했는데요. 요즘 한 번씩 현장 나가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 일어날 때 “엇” 그러면서 일어나지더라고요. (웃음) 추임새가 바로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업할 때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가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할 때 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와가지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취미생활, 제가 좋아하는 난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편한 상태로 현재 잘 살고 애들 잘 키워 장가보내 났다는 것에 큰 보람을 갖고 제 인생에서 솔직히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이 훨씬 더 만족해요. 경제적인 건 조금 떨어지긴 해도 저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요.

이 일을 하는데 애들이 창피하게[창피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큰애가 여자친구 생겼을 때 우리 엄마가 이런 일 한다고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솔직히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야, 그래도 사람이 선입견이 중요한 건데. 왜 말했어? 나중에 하지” 제가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왜 창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더 당당히 지금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애들이 “엄마, 일을 너무 안 하면 무료하니까 조금씩만 하고 엄마 생활을 즐기세요” 그렇게 말해요.

애 아빠가 지금은 학교 쪽에, 옛날에는 소사라고 하죠, 행정실에서 화단도 가꿔 주고 복사도 해 주고 시험지도 복사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학교 행정실 쪽에 있어요. 애 아빠도 너무 편하고 좋대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유치원에 있어요. 유치원이 제일 편하대요. 장사할 때는 돈도 많이 벌긴 했는데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더라고요.

제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하고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 자꾸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고 해서 향후 계획은 아마 건강할 때 여행을 좀 같이 다닐까 싶어요. 아들이 게스트룸을 따로 준다고, 계속 미국에 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여행하고 좀 살고 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 1967 | 01세 | 광주 광천동 출생
- 1974 | 08세 | 광천초등학교 입학
- 1980 | 14세 | 중앙여자중학교 입학. 518 경험
- 1983 | 17세 |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
- 1986 | 20세 |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LG이노텍 입사
- 1992 | 26세 | 결혼, LG이노텍 퇴사
- 1993 | 27세 | 첫째 아들 출산, 고창 이주
- 1994 | 28세 | 광양 이주. 부식 가게 운영
- 1995 | 29세 | 둘째 아들 출산
- 1997 | 31세 | IMF 경험
- 2004 | 38세 | 광주 운남동 이주
- 2011 | 45세 | 사업 정리하고 안식년 가짐
- 2012 | 46세 | 가사관리사 시작
- 2014 | 48세 | 다른 가사관리사들과 함께 빛나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2017 | 51세 | 3.8 세계 여성의 날 난타 공연
- 2019 | 53세 | 빛나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반짝반짝

박연옥 장상은 채록



1951년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예부터 용전동은 서쪽으로 영산강 용전천이 흘러 담(צל)이 많았는데 부지런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일거리로 이웃들의 작물을 시내에 내다 팔며 7남매의 생계를 꾸렸다. 어릴 때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았고 농사에 손을 보탬 일꾼이 필요할 때는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모으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주변 교인들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약속을 정하고 나갔지만 조금 늦는 바람에 서로의 길이 엇갈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버스에 올라타고 계림동 인근 극장 모퉁이를 도는데 서로를 발견하고 극적으로 버스에서 내려 만남이 성사된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인생의 명 장면이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23살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약 3년간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시댁에서 분가할 기회를 엿보다가 친정 언니가 참여하고 있던 '나락계'에 동참해 종잣돈을 마련했고 광주 북구 서방 쪽에 작은 가게와 방을 얻으며 분가했다. 경제적 기반을 잡기 위해 남편과 각각 슈퍼 운영은 물론 탁구장, 휴게실, 횡집 등을 운영했고 그 동안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개 된 직후 셋째를 낳았다.

1980년 당시 대인시장에서 이불 장사를 하던 친정 고모의 권유로 그 해에 대인시장에 들어가 고모의 가게를 인수해 남편과 함께 운영에 나섰다. 혼수용 이불이 호황을 누릴 때는 누빔 기술자들을 몇 사람씩 쓰고, 공장까지 직접 거래를 확보해가며 일할 정도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결혼 혼수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인터넷, 홈쇼핑 등이 등장하면서 장사는 시들해져갔다.

손님이 예전 같지 않은 대인시장에서 마냥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다른 소일거리를 찾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가사도우미 교육을 받게 되었다. 당시는 편찮으신 시부모님의 수발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도 취득해서 활동 중이었는데, 성실히 일을 하고도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요양보호사보다 일을 마치고 나면 개운함까지 드는 가사도우미 일이 적성에 훨씬 맞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10년째 활동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고 바깥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가서 살림을 정리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것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데 가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봐 노심초사 마음 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랫동안 일을 도맡아 방문하며 마음을 줬던 집이지만 뜻밖의 오해를 받았던 일은 지금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항상 끝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해도 섭섭해 하지는 않으리라 다짐한다.

평생 바깥일을 하는 엄마 밑에서도 훌륭하게 커준 자녀들이 이제는 나이와 건강도 생각해가며 좀 편하게 쉬라고 권유를 하지만 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스스로의 경제를 꾸려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또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여러 나라를 직접 번 돈으로 여행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체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의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가사 일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이 또한 전문직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일해 오면서 '큰돈을 벌었다' 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한 일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을 기본으로 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덕이다. 백수(白壽)에 가깝지만 아직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친정어머니의 부지런함과 자립심을 존경하며 기회가 된다면 외국어를 비롯해 여러 방면의 공부도 하고 싶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인들을 만나는 일을 해 볼 계획도 하고 있다.

지산 용전, 부지런한 부모님의 둘째 딸로 태어나

51년생이니까 지금이 72세. 태어난 곳은 광주인데 우치동이라고 그 우치공원 쪽이 친정이에요. 지산 용전이라고. 7남매 중에 제가 둘째 딸인데 처음에 언니가 있고, 내가 둘째 딸이고 남동생 하나 있고 그 밑으로 계속 딸이..... 딸이 여섯이다. 나 밑으로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밑에도 계속 (애를) 낳은 것이 옛날에는 엄마들이 어찌고 방침도 없고 그러니까 일곱을 낳은 거지. 하나는 이제 얘기 때 가고. 둘이 잘못 됐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무튼 애가 많은 집인데 아주 옛날에는 다들 어렵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막 없고 그러지 않았어.

부모님 성격은 아주 성실한데 지금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지금 98세요, 98세. 저는 우리 어머니 따라가려 해도 따라갈 수도 없어. 신앙생활을 하세요. 종교를 가지셔서 믿음이 신실하고 지금도 절대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해. 바로 옆 근방 사셔. 제가 이제 반찬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도 잘 안 오세요. 아무튼 아들이고 딸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



남편, 딸, 막내아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님은 술도 잡수고 그래도 엄청 부지런하셨어. 68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래도 당시를 떠올려보면 열심히 일하셨어. 그때는 차량이 없을 때 인데 시내에서 용전 집까지 삼십 리였거든. 삼십 리면 그때는..... 이제 차량이 없으니까 막 구르마 [수레]로 소일거리를 하셨어. 우리집 나락도 갖다 팔고 쌀도 갖다 팔고 무도 갖다 팔고..... 또 동네 사람들 거 이렇게 갖다 팔아주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런 일도 하셨어. 아버지 부지런하셨어.

동생을 챙기고 동네 일꾼까지 모았던 아무진 둘째

그때는 뭐 다 안 가르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형편껏 가르치고 더 한다는 놈이 있어도 그것이 애들이 많으면 쉽지 않던 때인데 아무튼 나는 일찍부터 부모님 도와서 동생들 돌보는 일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해줬지. 그때는 동생들 봐주고. 동생들이 밑으로 다섯, 여섯씩이나 되니까. 그때 엄마들은 제일 큰 딸한테 보라고 하고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 그런 거 하느라고 나는 밭일은 많이 안하긴 했는데 그렇게 동생들 돌보는 것은 다 내 차지였고 이제 막 그때는 사람들 사서 일하니까 놈[일당을 받는 품팔이 일꾼]도 얻으러 다니고..... 내가 또 사람을 잘 사귀었는가 그 어렸을 때도 놈 얻으러 많이 다녔어. 가서 “우리 며칠날 뭐 일 하는데 그날 좀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는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더 자주 가서 말했지. 많이 했어. 시골에 집안의 일을 내가 거의 다 하다시피 했지.

지금도 그리운 학창시절의 추억

지산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있는데 학생 수가 (별로)없다고 합디다. 지산초등학교에서도 분교로 나뉘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락공원

쪽에 있는 북교. 이름이 그냥 북교예요.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한 60명 그렇게 했는데 오래 되니까 선생님도 다 잊어버렸지[잊어버렸지]. 지금 같으면 소풍도 차타고 가는데 그때는 걸어서 소풍을 갔어. 쌍교라고 있어. 담양 쌍교. 다리 있는 데로 주로 소풍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간식이라고 먹을 것이 없지.

엄마들이 그래도 소풍 간다고 돈 주면 가서 (사먹는데), 세모 모양으로 생긴 것에 물을 넣어주는 것이 있었어. 색깔 있는 음료수 담아서 갖고. 그런 거 사먹었던 생각이 나네. 도시락으로는 김밥도 없어서 그냥 밥에다 뭐 장아찌나 그런 것 싸서 갖고. 그때는 멸치 볶아먹는 것도 아주 고급 반찬이었어. 옛날에는 집에 있어도 용돈 이런 것이 없는 때니까 쌀 한 주먹씩 갖다가 오징어 바꿔먹기도 했어. 이제 쌀 한 홉 갖다 주면 오징어로 바꿔주는 건데 그때 얼마나 오징어를 많이 먹었던가..... 또 그때는 그 쌍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깨끗했어요. 지금 댐을 막아버려서 이제 안 나오는데 그때는 나룻배도 있었거든. 거기서 우리끼리 떡 감는다고 목욕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 아무튼 오징어를 얼마나 많이 먹어 갖고는 짜니까 냇가 가서 물을 막 마신거야. 그리고는 얼마나 설사를 했는가 모른다니까.

그때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고향 친구들이 다 소식이 없다가 올해 동네 친구 두 명은 만났어. 식사 한 번 하고 어디 놀러라도 한 번 가자고 해도 다 바쁜가[바쁘지] 그것이 잘 되지는 않네.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 결혼 안하려고 기절을 했어요[했다고 그래요]. 17살 때, 그때는 막 일본군들이 저기 하니까[위안부나 근로정신대로 끌고 가니까] 일본 안 보내려고 나이 될 먹은 큰애기들도 시집 보내 버렸잖아.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집안[비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친정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 집이 믿는 집이었어요. 급하게 시집을 보내는데 안 믿는 집에 안 오려고 어머니가 기절을 해버렸대.

아버지 집이 삼형제라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 그러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시는 거야. 우리들도 교회 간다 그러면 할머

니가 “교회가 밥을 주냐, 하나님이 밥을 주냐, 죽을 주냐”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우리보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고 엄마는 또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핍박 받으면서 다녔지.

엄마 말을 들은 거야. 엄마는 남동생을 신학대학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거든.

믿음이 강한 집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랑 뭐 옆에서 중매를 해가지고 만났어. 우리 남편집도 아주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야. 일곡동이 고향이고 그 집안은, 아주 시아버지 시어머니부터 전부 믿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원래 안 믿으면 주일날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니까 주일은 그냥 명절같이 쉬어버려요.

시집을 가니까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았지. 남편하고 만나게 될 때까지 그것이 인연 이었는가 (둘 사이에) 중매쟁이가 많았어.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쪽에 전도사님 계시고 하니까.



교회에서 진행한 결혼식



결혼식 날, 교회에서 분반으로 지도하던 초등부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하

나 한 사람을 갖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이 나 좋다고 했다고 하고 또 그 쪽에 가서는 내가 좋다고 했다고 하고. 한 7개월이나 8개월 만나보고 73년도에 결혼했어. 데이트라고 별도로 간 것도 별로 없고..... 그때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직장이 없었어. 남편은 직장이 없는데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더라고. 나하고 4살 차이라서 남편이 그 때 24살 먹었을 때 인데 직장이 없으니까 나도 그리 시집을 안 간다고 했지, 처음에는. 그런데 가정도 좋고 사람이 선하게 생겼더라고.

시아버지하고, 나보다 2살 덜 먹은 시누이가 (나와 남편을) 결혼시키려고 우리 집으로 와보더라고. 우리 시누이가 시아버지하고 둘이 왔어. 시어머니가 안 오고 시누이가 왔길래 나중에 “그 때 왜 (대신) 왔냐”고 물어봤더니 “올케 될 사람은 자기가 봐야 된다” 해갖고 아버지하고 같이 왔대.

처음에는 이제 승낙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 우리 친정어머니는 당신이 결혼했을 때 억지 결혼을 해놔서 딸이 여섯이라도 (본인들) 의사를 먼저 물어

보고 하셨거든. “내가 보기에는 좋고, 믿음도 좋은데 너는 어떠냐?”하고. 성실하게 보이고 그런데 “나는 네가 안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보낸다”고 했어. 딸들마다 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그런가 딸들 여울[결혼시킴] 때는 전부 의사를 물어보고 결혼을 시켰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 둘째 아들까지 데리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성질나고 싸울 일 있으면 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랬어. 성경책을.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한 두 달만인가 또 연락이 또 온 거야. 이제 옛날에 여기(대인동 인근)가 구(舊)역이었거든.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자고 그럼디다[그랬어요]. 다방, ‘국화 다방’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 구역에 있는 국화다방에서 한 번 보자고. 그런데 내가 좀 늦었던가 가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거기서 일 꼭동하고 연결된 버스가 있었어. 31사단 쪽으로 가는 거. 우리는 용전가려면 한 십오 리는 더 가야 됐는데 아무튼 다방에 (보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이제 그냥 가려고 구역에서 차를 타고 이려고 돌아가는데 계림동 극장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섰더라고.



약혼기념

버스 문 쪽에 내가 앉아 있는데 거기가 딱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나를 알아보고 “얼른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때를 아주 잊을 수가 없제[없지].

일곡동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시아버지 회갑기념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사진을 찍음. 박연옥님(가운데 좌/한복) 옆은 직접 올케 선을 보러 왔던 시누이

73년 4월 14일에 결혼했으니까 그 전년도부터 만났는갑네[만났나보네]. 신혼살림은 뭐 있나. 일곡동 시가집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살았어요. 거기 7남매. 거기[남편]도 둘째인데 딸이 넷에 아들 셋. 제일 큰 시숙님은 육군 사관학교 나와 가지고 군인으로 계시니까 저기 강원도고 어디고 가. 그래서 내가 거의 장남며느리처럼 살았지. 아저씨[남편]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밑으로 여동생 둘 있는데 나 손 아래 바로 두 살 차이 나는, 나 선보러 왔던 그 시누이는 그때 직장 다 넘디다.

그 대한전선이라고 그때 거기 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막내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던가. 또 셋째는 대학교 다니고. 그렇게 다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막 시집살이 그런 것은 없었어. 어른들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 가정이라 시집살이 없이 성격이 다 좋으셨어. 위에 큰 동서를 자주 못 봐서 그런가 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좋아해 주셨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나는 생전 혼날 것도 없었어.

시골로 시집가서 한 3년 살았어도 뭐 하나 언짢아하신 것이 없었던 것 같애. 그래도 분가한다고 했을 때는 좀 서운해라 하신 것 같애. 그것도 말로는 표현을 안 하시는데 기분 상 좀 그렇게 섭섭하시구나 하고 느꼈어.

우리가 분가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돈을 푼 때서 “너 이놈 갖고 (분가)해라”하고는 못 썼지. 우리 언니가 계에 끼워줘서 그것으로 짝간하게[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가지고 막 될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야. 이제 속으로만 안 좋았지. “니들 나가면 (다시) 못 온다”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시어머니도 (당때가) 이제 60대라 젊었으니까.

분가를 시도하다!

결혼할 때 남편이 직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도 내 살림을 꾸리려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한 3년 살다가 (일하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시골에 (재산이 좀) 있다 해도 얼른 뭐라도 차려주고 어찌지도 못하지.

그때 친정 언니가 담양에서 살았는데 ‘나락계’ 같은 것을 했어.

순번대로 나락 몇 섬 내려주고 하는 계인데 거기에 나를 넣어줘 갖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서방 쪽에다가 슈퍼를 얻었어.

처음에는 몰라. 한 3~4평이나 될까.



분가 전 시골집에서 남편, 큰 아들과 함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는 진짜 짜깁한 점빵[구멍가게]이었어. 애들 과자 같은 거 팔고, 부식이나 야채 같은 것도 없었어. 서방시장 옆이니깐 광주상고 근처였고.

당시만 해도 시택에도 감나무도 심고 논밭이 좀 있었어요. 어려운 집은 아니었거든. 농사가 많이 있으니까 가게를 얻어서 나왔어도 남편은 그거[시택 농사] 도와주러 다니고 나는 가게 봤어요. 내가 가게를 얻어서 슈퍼를 시작했던 걸 계기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근데 슈퍼도 작으니까 뭣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년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공적인 분가를 위해 무엇이든 하던 시절

아저씨는 저 서방시장 모퉁이에 있는 이마트 쪽에서 탁구장도 했어. 탁구장 하고 나는 또 가게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편이 아버지 밑에서 심부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사람이 순해갖고 막 악착스러운 면은 없어. 그래도 말은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 남편이 좀 순순한 사람이라면 나는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안 놀고 그렇게 [일]하지. 가게 하면서도 옛날에는 야쿠르트 배달도 해 봤네. 학교 같은 데서 배달로 받아서 하나씩 막 마시잖아요. 그것도 했었고.

그렇게 슈퍼를 한 몇 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매형하고 뒀을 했어. 매형이 좀 부자였거든. 둘째 매형이 재산이 좀 많아서 옛날에는 바(bar) 같은 것도 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좀 월급도 없이 일도 도와주고 그랬지. 그 무렵에 나는 서석동 앞에 가서 또 휴게실도 한번 해봤어. 옛날에 서방에서 슈퍼 할 때 보니까 떡볶이를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 기억은 통 안 잊어버려

바로 옆에 가게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서석동에 가게를 얻어서 그것도 좀 했어. 그때가 남편이 서방에 탁구장 할 때네. 그것을 한 2년 했을까 4년쯤 뒀을까..... 아무튼 조금 했어.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그때가 80년도네. 80년도에는 광주에 활어집이 없었거든. 횡집이 없었는데 그때 시누이 남편이 현대극장 앞에다가 활어집을 차린다고 막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같이 동업해서 하자고. 나는 잘하든 못하든 동업은 안한다고 그랬거든. 자네하고 나하고 뭘 사이 벌어질 일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아무튼 합자를 해서 했어. 그때 광주에서 횡집이 꼭 두 군데밖에 없었어. 남광주 시장에 하나 있고 이것이 두 번째.

그게 현대극장 앞에 장사가 잘 돼갔고.....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막 회를 먹으러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합자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어. 좋다가도 사이가 벌어지고 그런 것이 걱정되더라고. 그때 올해 44살 된 막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활어집에서 남편만 일하고 나는 조금씩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랬어.

주방장을 따로 쓰고 있는데 시누이까지 있으니까 나까지는 안해야 겠더라고[안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남편만 거기 횡집에서 일하라고 하고 나는 나와 버렸어. 그때가 광주사태(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렵이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기억횡집이 문 닫고 있는데 군인들이 술 먹고..... 우리 시누이네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키가 굉장히 컸었어.

근데 (시누이 아들이) 창문을 열고 조용히 내다봤는데 군인들이 뿔 썰게 술 먹고 들어와 갖고는 그 애를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 “우리 자식이 이제 (겨우) 중학교 몇 학년이다”고 막 그래갖고 사정해서 그냥 안 붙들려갔어.

6월 15일경에 애(셋째)를 낳았는데 그 전에는 시끌사끌[시끌시끌] 하니까 문을 닫았지. 그 다이너마이트 던진다고 그냥 난리고.....

나는 막 농성동으로 피난 다니고 그랬네. 임신해서 거기로 푹[독, 방죽] 타고 다니면서 그랬네. 시누이 남편 집이 그때 농성동에 있었거든. 지금 아파트 지은 벚꽃 많이 핀 데 있죠. 옛날 상록회관 그 근방이 집이었어. 우리는 광주역 뒤에 중흥동 살았는데 광주역 쪽이 무섭다고, 농성동이 더 조용하다고 그리 가서 잤는데 거기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오히려 거기가 더 시끄러웠어. 그 기억은 통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때 양동시장에 천변길 타고 가면 저쪽 버스들이 막 넘어져 있고..... 버스들이 막 몇 대 넘어져 있어. 그것이 생생해, 그 차가 넘어져 있는 것이. 5.18 난 뒤로도 얼마나 최루탄이 (던져졌는지) 많이 심했지. 그때는 이제 전두환 시절이었어.

대인시장의 이불집을 인수하다



대인시장에서 이불장사 하던 시절 남편과 함께(1983. 5. 15.)

이제 그 무렵인데 대인시장에 우리 친정 고모님이 이불 가게를 크게 하셨어요. 한 15년이나 하신 양반인데 그때는 슈퍼도 없었고 터미널이 대인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돈 별만큼 벌었다고 그러시면서 그만두신다고 나보고 하라고 하더라고. 조그만 장사는 했지만 그 큰 장사는 못한다고 생각했어. 이불 께맬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겠어? 그래도 아저씨가 딱 할란다 고[하겠다고] 추켜드립니다.

그래서 80년도에 대인시장으로 왔어요. 이불 가게를 했어, 서울이불집.

옛날에 집에서 간단한 것은 께맬봐어도 막 잘하지는 못했어.

옛날에는
시집보내면 전부 이불을 만들어갖고
막 몇 채씩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두고 썼지. 옛날에는 시집보내면 전부 이불을 만들어갖고 막 몇 채씩 해서 보냈잖아요. 나 이불(장사) 할 때도 그랬어. 시어머니 이불, 뉘 이불해서 한 세 채씩 해서 보냈어.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도 뭐도 없이 다 손수 했잖아요. 이제 사람도 두고 썼지. 누빔 기술자들 쓰고 꾸미는 사람도 몇 사람씩 쓰고 공장 놔두고 그렇게 했어. 나는 이제 판매를 했지. 영업을 하는 거지. 이제 기술자 놔두고 아저씨는 또 거기서 배달도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아저씨도 고생 많이 하셨지. 성실히 했어. 나서서 잘 도와줘. 항상 같이 일했어. 가게도 항상 같이 있고.

40년간 이불을 팔면서

이제 나이가 다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기억에 남은 손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혼수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딸이나 조카나 이제 단골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사모님은 조카를 데리고 왔었어. 그러면 큰딸이 올 때 조카하고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한 번 단골이 되면 유지돼 왔는데 한 번은 혼수를 짝 해서 다 골라냈는데 느닷없이 위에 천장에서 물이 후두둑 떨어져. 그게 뭐냐면 정화조 있는 데서 화장실 있는 물이 떨어진 거야.

하필 다 골라놓고 계산만 남았는데 그 위로 물이 쏟아진 거야. 그래서 그 손님이 그날은 그냥 가셨어. 그런데 다음에 오셨더라고. 기분 나쁘니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뒤로 와서 해 가줘서 뒤에는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잘 사요”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일도 있었어.

이제 한 삼십 년? 삼십 몇 년까지는 (이불장사가) 잘 됐어. 아저씨하고 나하고 있어도 손이 부족했으니까. 오후 되면 손님들이 많은데 그때는 밤 9시 10시까지 가게 문 열고 있었어. 그렇게 이불집을 한 40년 했어. 그만 둔지가 2~3년밖에 안 돼요.



이불가게에 놀러 온 큰 아들과 함께 배달시킨 밥을 먹다가

잘 때라도 걸을 차지하려던 아이들

아침에는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아저씨는 바로 나가서 문 열면 한 아침 9시나 10시에 내가 나가고 또 저녁에는 내가 일 좀 덜하고 집에 가있고..... 가게 하는 사람들 애들이 진짜 잔해. 애들이 잔해[가여워].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딸도 내 옆에 자려고 그러고 아들도 내 옆에 자려고 그러고. 잠잘 때 저만 보고 있으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일 할 때는 쉬는 날을 시장에서 정해줬지. 둘째 주, 넷째 주 쉬었어. 시장 전체에서 정해가지고 다 같이 쉬기로 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 나가니까 그냥 주일 날 문 닫고 쉬어버렸어.

애들 학교에서 일 있을 때는 애들 아빠가 급하게 일 보고 참석을 하지. 졸업식 같은 것은 다 참석했고 우리 애들은 아빠가 다 실어다줬어. 학교 다닐 때

자전거도 태우고. 차로 다 데려다 주고 나서 가게 문 열고 그랬네. 근데 이제, 제일 막내 그거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가 젊으니까 할머니가 소풍 갈 때도 다 가셨어. 그런데 허리가 다 굽은 할머니 손잡고 가니까 결국은 아들이 할머니를 돌보고 다니기도 한 거지. 그렇게 할머니를 더 봐서 그런 가 막내가 할머니를 더 생각합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고3때 뒷을 잘못 했는가 코뼈를 부러뜨려갖고 왔더만. 학교에서 애들끼리 어쨌다고 연락이 와서 아빠가 갔어.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된 일로 주먹다짐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다고. 서로 사과하라고 해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애. 나는 큰 아들이랑 딸 학부모 모임은 없는데, 우리 막둥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학부모들 모임은 아직도 해.

결국은 합쳐진 살림

이불장사 할 때는 주택에서 좀 살았네. 그때 좀 빚을 지고 중흥동에 집을 샀어. 돈이 모자라니까 큰방을 내주고 상하방[집에 딸린 작은 방]에 우리가 살았어. 집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큰방을 세로 내주고 작은 방에 산거야.



인물은 물론 성품까지 좋으셨던 시부모님과 놀러온 조카들이 함께

그러다가 조금 형편이 풀려서 그분들을 내보내버리고 큰방으로 돌아왔다가 중흥동 모아아파트 그거 지을 때 분양을 받았어. 엄청 좋았어. 집도 크고 사람들이 광주시에서는 제일 좋다고 했어. 거기서 30년 살았어. 이사한지 얼마 안 돼요.

결혼 3년 만에 시댁에서 분가했어도 거의 다 같이 살았다고 봐야지. 상하방에 있을 때도 집은 따로 있어도 (시부모님이) 애 봐주러 오셨다가 주무시고 가고, 거의 같이 살았는데 그때 방이 두 칸이었어. 한 방씩 차지하고 살았지. 또 가게 볼 때는 시댁이 가까우니까 늘 아저씨(남편)가 들락날락 하기는 했는데..... 부모님도 그때는 젊으셨지. 그러다가 어른들이 이제 좀 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애들도 봐주고 그래야 해서 저기 모아아파트 살면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다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같이 살았어.

간병을 위해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가 요양보호사도 됐어요. 시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91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시어머니가 한 10년은 걸어서 못 다니셨거든. 치매도 좀 왔지. 요양급여 그런 것을 3급이라도 받으려면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날은 정상으로 이야기 하는데 또 날이 꺾을 때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막 그러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갖고 거기서 다 검사하는데 “시방[지금] 몇 월 달이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해.

지금이 몇 월이고 얘기들은 몇 남매라고 다 쪼르르 이야기 하나까 (치매) 등급이 안 나왔지. 한 7~8년간 대소변을 받아 냈어. 치매기가 있어도 이제 (밖으로) 막 나가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순한 치매가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저귀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 안 보내고 집에서 직접 내가 모시다 돌아가셨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

직접 내가 모시다
돌아가셨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

이제 한 10년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요양사 자격증을 땀어요. 나라에서 막 처음 시행할 때가 그때였거든. 그때는 별다르게 시험이랄 것도 없었는데 내가 말을 해서 다섯 사람이나 그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몇 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네 덕분에 내가 따서 이렇게 다니고 있네” 하고 고마워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기분이 좋아.

지금은 가족들도, 다 부부 간에도 (요양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둘이 땀시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땀어. 시어머니 요양보호사를 몇 년 하니까 그래도 기저귀 정도의 별이는 나오대. 또 대인시장 (상인 중) 가까운 할머니들 두 분 요양보호 일도 맡아서 했어요.

가사도우미에 도전

처음에 80년대 그때는 (이불집이) 계속 잘 돼왔는데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갈수록 안 돼. 이제 대인시장 근처에 있던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떠나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갈수록 안 돼. 그리고 인터넷이 생겼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핸드폰에 손만 까딱하면 집으로 물건이 온다” 고. 일본에서는 그렇다는 그 소리를 하더니 우리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혼수 문화도 달라지고 가면 갈수록 안 되니까 가게에 들어 앉아 있기가 따분하잖아요. 가게에 앉아 맨 놓고 있기도 그래.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디서 가사도우미 교육을 받아 갖고 다니던 사람이 몇 있었어.

오전에 한가하니까 오전만 가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교육 한번 받아보소” 그러기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인시장에서 이불장사 하던 시절 상인회 활동을 하며 찍어둔 프로필 사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광주여성노동자회 거기서 교육받았어. 이제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정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살림은 하는 사람들이라 한 사흘간인가 교육 받았어요. 잘 안 지워지는 것도 지우는 약 써서 닦는 방법, 낙서 같은 것도 약 발라 놓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 것도 배우고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어요.

교육 받으러 갈 때 내가 두세 명 또 데리고 갔어. 그분들 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도 계시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서 놀고 있으니 “놀면 뭐 하나? 우리가 미래를 항상 (대비해야지).....” 내가 늘 젊은 사람한테 그래요. 계속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된다고..... 시방(지금)도 내가 젊은 사람한테 그래요. 근데 내가 요양사도 땀고 이것(가사도우미)도 하고 두 가지가 되잖아. 거기다 이 가게(이불집)도 하나까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양사는 내가 좀 기가 빠지고 안 좋아. 내가 일할 때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가사도우미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시간 맞춰서 일 딱 하고 뭐 편해. 더 일은 고될지언정 편해.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불집을 접으면서

사업한 사람들이 다 장사만 해갖고 돈 번 것이 아니야. 부동산을 했다든가 뭐 땅을 사났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튀어서 돈을 많이 벌지, 절대 장사해갖고는 뭐 사고팔고도 못해.

그때 우리 결혼할 때도 시댁이 그래도 괜찮게 살아서 집도 반 토막 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그랬는데 일곡지구가 지금 다 시내가 됐잖아. 그 토지 개발 돼가지고, 그게 그래도 부모한테 받은 것이 있었고 시장에서 하던 가게도 잘 될 때는 한 10평이라도 한 달에 월세가 이백 만 원이었거든. 잘될 때는 이불 가게에서 번 돈으로 세를 냈는데 소득이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었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가게 월세도 이제 이백에서 백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것도 조금 힘들어.

말하자면 하루에 뭐 얼마 팔았다 말도 못해.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가게세라도 보태려고 그래서 (가사관리사 일을) 나간 거야.계약을 40년을 동안 계속 연장하며 장사했던 거라 좀 섭섭은 했지만 워낙 안 되니까 접으면서도 시원했어, 그냥. 근데 그때 우리가 이불집을 하면서 흰하게 불 켜놓고 그랬을 때는 누가 가게를 얻으려고 왔었어. 우리가 가게를 세 번이나 고쳤거든. 몇

가게세라도 보태려고 가사관리사 일을 나간 거야.

천 만원 들었어. 그래도 주인은 그 고친 비용을 안 쳐 주더만.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 권리금도 없이. 자기가 뭐 김치 파는 집 한다고, 동생 준다고 그랬는데 안 됐는 갑고만[안됐던 것 같구먼]. 그런데 그 가게가 지금도 문이 닫혀있어, 한 3년 되도록. (그때) 나한테 가게 달라고 온 사람한테 내봤으면 그래도 세라도 받을 것인데 내가 (옛날에) 장사 했던 집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면 갑갑해 죽겠어. 그 주인이 약국을 하는데, 내가 (그 가게 세 나가게 하려면) 문이라도 열어놓고 있으라고 말도 해봤지.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는 첫 고객과 일 배정

교육 받아갖고 그때그때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이불 가게 하면서 했어. 처음 일할 때 떨리고 그런 것은 없었고 이제 ‘내 것 한다’ 하는 마음으로 했지. (처음)집이 어디였을까? 지금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집이 60평 아파트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 집을 오래 다니지. 근데 그 10년 동안에 아들 둘 결혼시키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지금도 나를 일주일에 한 번 써.이제 배정은 우리 이사장님이 한 분 있어서 해줘.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들이 모아 갖고 한 거야. 누가 개인이 아니고 다 같은 회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사장 한 분을 선택해. 그럼 그 분이 신청전화를 받고 우리들한테, 한 이십 몇 명 되는 사람한테 그 일감을 선정해서 줘. “어디 갈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일감을 줘요.

이제 이사장님한테 전부 우리 기록이 다 있잖아요. 쉬는 날이 있고 안 쉬 날이 있고, 또 비어 있는 날이 있으니까 “언니, 며칠날에 거기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봐. 이제 그러면 “갈란다” 해갖고 가고.

처음에 상대할 때는 가서 얼굴도 보고 어찌고 대면해야지. 자기 집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안 보고서 못하지. 그래갖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냥 낱짜 정해주고. 이제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하는데 직장 가버린 분들은 또 출입구 비밀번호가 있어야 내가 가지. 협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줘. “일주일 중에 언제, 언제입니다” 라고 이사장님이 알려주면 그 시간 맞춰서 가요.

막 처음에 이사장님이 일을 배분 해주면 이제 고객님을 먼저 만나지. (일할 때는) 첫 방문 때만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일하러 방문할 때마다 쪽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전혀 만나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있어. 그런데 직장에 나가신 분들이 더 편해요. 오히려 집에 계시면 부담스러워, 말하자면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니까 일하기가 더 힘들어. 일단 고객님들이 우리 집은 청소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해주고, 어떤 집들은 우리는 청소는 절반만 해줘도 반찬 할 때 같이 좀 도와주라는 요청하는 그런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반찬 하는 것은 잘 안 가려고 해. 같이 반찬 하는 집이 딱 한 집 있어. 이제 그분도 꼼꼼하게 해. 어찌 고쳐써고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일을 해). 반찬이 힘들어요, 청소가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반찬 하는 가사도우미들은 별로 없어. 또 입맛이 제각각이기도 하니까. 내가 반찬 같이 하는 집은 딱 한 집인데, 거기는 같이 맛보면서 해.

4시간은 기본인 집안일

일할 때 입을 옷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대로 다니기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버스도 타고 (남편)차도 타고 가면서 가방에 옷을 싸갖고 가서 일해. 일하면서 더울 때도 있고 좀 안 불편하게 하려면 옷을 딱 갈아입고 해야지. 그리고 퇴근하면서 다시 갈아입고 오고. 대부분 아무도 없을 때 일을 하니까 일복을 입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해.

고객님 집에 들어가면 먼저 부엌에 가서 설거지가 있으면 하고, 부엌 정리 싹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주위 청소도 해요. 어떤 분들은 빨래도 안 맡겨요. 이거, 이거 해 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데 그러면 딱 그것만 해야지 내가 다른 거 더 할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는 부엌 정리 한 번 하고, 먼지도 좀 닦고, 방청소 하지. 청소기 돌리고 닦고. 창틀도 가끔 닦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대청소를 해야 창틀을 닦을 수 있어. 우리가 딱 4시간씩 일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대청소가 아닌데 창틀 닦으려면 시간이 부족해버려. 시간이 또 남으면 창틀도 좀 닦을 때도 있지.

나는 나름 한다고 해도 고객이 제일 첫째니까.

원래 근무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이고 이제 1시간 더 하면 추가 요금이 있어. 근데 2시간 하는 집도 있고. 어쨌든 4시간 다 끝내고 와야 돼. 비용은 평수 따라서 60평은 한 7만 원 주고 35평은 6만 원 주고. 이제 1시간 연장 되면 한 2만 원씩 더 주고. 보통 정해져서 4시간. 비용은 협회로 입금할 때도 있고 나한테 직접 넣어줄 때도 있고 그래. (밥은) 아침에 9시쯤에나 먹고 가든지 아니면 좀 빠른 데는 8시에도 가요.

12시에 오면 집에서 먹고 또 내가 뭐 좀 싸갖고 가서 커피에다 먹으면 간식을 챙겨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잡수고 하시라고. 고객한테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내가 귀담아갖고 다음에는 더 신경을 써.

어찌겠어. 나는 나름 한다고 해도 고객이 제일 첫째니까. 이것이 좀 덜 됐더라고 말하면 그 말을 내가 보통으로 귀담아 들어. 그리고는 다음에 더 신경을 써서 하고. 그런 것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어려운 말도 꺼내야 하는데

원래 60평은 4시간에 6만원이었어. 그런데 2023년도에 올라서 7만원이 됐어. 그리고 거기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일이 많아서 그 시간 안에 안 끝나. 한 집에서 한 30분씩을 더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추가 금액을 주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아직 말을 못해갖고 1년 반째 그대로 6만원을 받는 집이 있어. 갈 때마다 오늘은 말을 해야지 하는데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자꾸 망설이게 되더라고. 비용[인건비]도 그때그때 바로 넣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막 오래까지 있다가 그냥 마지못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모아서 달라고 하는데 어

편 고객님이 내가 한 번을 덜 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돈 그거 안 받아도 괜찮는데 무엇이든지 해결은 하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 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그러고 말아버렸어. 사람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데.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

지금도 (인식이) 그런 점이 좀 있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 고객들을 봤을 때 좀 무시하거나 그런 집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느낌으로는 느끼지. ‘저분은 진심이 있구나’ 하는 데도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개화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옛날 같지는 않아. 덜해. 옛날에는 ‘식모살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사도우미(협회)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랬어도 여전히 안 좋게 생각되지.

이런 협회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었는데 갈수록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식이) 조금은 좋아지긴 했어. 내가 요양보호사도 따서 요양보호 일을 해봤어도 노인들 ‘아프다 아프다’ 소리 듣는 것보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딱 가서 내 할 일하고 오는 것이 사실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하게 이것을 하고 있어.

할머니의 오해가 섭섭하기도 하지만

이제 무슨 일 있었냐면은, 난 웬만하면은, 어른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어른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근데 작년인가 2년 전엔가는 이제 사무실에서 “언니 이런 집이 부르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런 거야. 전화하신 분이 전주 사람인데 이제 이런 일을 알고 우리 센터에다 전화를 한 거야. “어디냐?” 해서 갔지. 그런데 아주 부잣집, 회장님집이에요. 할머니가 90살이고 할아버지 93살인데 1년은 갔어. 날마다 다녔어. 다른 집은 오후에 한 세 집인가 다니고 (그 집은) 날마다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다녔어.

그 집은 월급으로 주더만. 갔는데 별로 일은 없었지. 가서 이제 할머니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래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막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아주 그냥 평생 같이 하자고 막 그러시대. 그 집 할아버지가 날마다 금남로 사무실에 나가셨어. 아침밥 한 술 드시고는 사무실에 나가

“자네는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살고, 아들도 잘됐는데 왜 일을 한가?”

셨는데 아흔 셋이나 되시니까 아파서 드리누우신 거야. 사무실도 못 나가시고 집에 계시니까 물리치료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를 막 근육 키운다고 운동을 시켜. 나도 이제 아픈 사람 돌본 적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회장님 다리랑 올려주고 운동시키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을 할머니가 시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느꼈어. 내가 그때 속이 좀 상했어.

작년 5월에, 장미꽃 피었던 때인데 할머니가 “자네는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살고, 아들도 잘됐는데 왜 일을 한가?” 그러더라고. 나를 막 생각해주는 것처럼 “아들딸한테 돈 받아서 쓰고 살지, 일은 그만 하고 쉬라”고. 그냥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고 왜 고생하냐고 나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을 계속 했는데 그 뒤로 한 달인가 지나니까 아드님이 “나이 잡수셨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모, 이제 좀 쉬시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쉬었어. 아들이 참 사람이 좋은 분인데 쉬어도 한 달 월급을 주더라고. 그렇게 한 달을 쉬고 나니까 또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 와주라고. 그런데 댁에 가서 며칠 일했는데 또 쉬라고 그래. 나보고 이전에 자기 돌본 사람 좀 한 번 불러봐 달라고 하더니 그 사람 쓰고 있대. 그 할아버지는 이제 내가 자기 운동시켜 주니까 좋아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 꼴을 못보고 내 앞에 먼저 일했던 사람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만뒀어. 할아버지 좀 어떠시냐고 안부전화라도 해보고 싶어도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전화를 안 하네.

다 맞을 수는 없어

말도 못하게 심란한 집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니기는 해도 나도 배우기도 하고. 나도 배워. 해주러 가면서도 배워. 근데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편안히 산 집들은 더 마음이 편한데 너무 깔끔한 집은 또 내가 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편안해야 되는데. 어떤 집을 가도 마음이 편한 집이 좋아.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은 마음이 편한 집들이 있고 조금 불편한 집도 있고 그래. 애들 셋 키우는 집이 있었어. 딸이 돌이고 아들 하나인데 딸들 생리할 것을 그대로 담가놓고 간 적이 있었어. 침대도 뿔이 빨갛게 묻어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손녀딸도 이만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불편할 것이 없어.

어느 집에는 할머니가 계신 집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가고, 두 번째 갔을 때까지는 집에 계셔서 문을 열어 주더라. 그런데 세 번째 가는 날에는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문자로 “일하러 왔으니까 비밀번호 좀 넣어주시라” 고 했는데 자꾸 틀린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아무튼 그 날은 일을 하긴 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되니까 그 뒤로는 정상으로 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 처음에는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을 못 믿었구나, 그렇게 못 믿는구나 싶으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째서 번호를 안 가르쳐줄까. 이런 것을 어째서 거짓말을 할까 그랬어.

거기서 또 맞은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맞으면 고객이 거절하는 데도 있고. 또 내 성격은 웬만하면 내가 먼저 거절을 안 해. 내가 꼭 참고 하다가 이제 정 저기(불편)하면 이제 나오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 일 해보면 다 맞을 수가 없어.

그런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 자르제. 안 맞고 그러면은 뭐 잘못됐다거나 어떻게 하면은 그 센터에다 전화를 직접 해. 나한테 안 하고. 센터에다 이사장한테 말해갖고 “사람들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교체해 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사도우미 일도 하는데 요즘은 임신부들 일을 해주는 것도 하거든. 요즘에는 무엇이 있냐면 광주시에서 임신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들이 2명씩 한 조로 해서 그 집 가서 6시간 씩 청소해줘요. 산모도우미는 아니고 옷 정리나 청소만, 막달도우미라고. 애를 낳은 사람도 있고 아직 낳기 전인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아기들도 안 낳으니까 “아기 가져서 축하한다고” 말도 해주는데 그것은 협회랑 협약이 돼 있

일단은 고객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거든.

어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6시간씩, 둘이 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데 둘이 가면 조금 더 신경이 쓰여. 혼자 가서 일을 하면 나만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짝꿍이어서 같이 일을 가면 혹시나 서로 실수를 하면 어쩔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일단은 고객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거든.

그런데 혹시나 말 한마디라도 하다가 서로 실수할까봐. 그것이 서로 신경이 쓰여.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일 하러 다녀왔는데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무슨 야채 그릇뚜껑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고객님이 사진을 보내서 그 뚜껑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일 불편해.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한테 서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못 봤고, 마지막에 그 집 신랑이 쓰레기들을 막 갖다버렸는데 혹시 그것이 아닐랑가[아닐는지]. 아무튼 뿔이 없어졌다는 말이 제일 곤란한 거 같아. 이 전화도 우리 이사장님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 했을랑가[했을지] 모르겠네.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좋은 법

일하는 집이 얼마나 마음 가는 집이 있었어? 그런데 또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 거기는 일도 없이 그냥 마음이 편해. 딸이 서울 사는데 의사사위가 그 요금을 다달이 그냥 보내줘. 그런데 이제 또 어른들은 그렇게 변덕이 좀 있어. 할머니가 느닷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이제 그만됐어. 그러더니 또 한 몇 년 있으니까 딸이 전화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만 필요하대. 그래도 또 갔어.

한 2년 했을까? 한 2년 했는데 또 엇그저께 또 딸 문자가 왔어.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제 자기 이모가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럼 그러라고.

나도 그동안 고맙다고. 사람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거든, 나는 그 생각이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일을 그만둘 때도 끝이 좋아야 된다고 봐. 사람이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도 고맙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권사님 또 필요하면 전화해” 그러니까 “응. 그래” 그렇게 말해.

말이란 것은 한 번 해버리면, 말도 한 대여섯 번 생각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객님하고도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내 성격대로 다 하면 절대 안 되고 한 발 물러서서, 한참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오해가 안 가고 그러더라고. 진짜 말을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을 상해지게 하면 안 돼. 누구든지.

‘깨끗해졌다’ 는 기분 좋은 말

고객들도 나한테 잘한다고 말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나는 ‘내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해줘요. 그 고객들에게도. 하여튼 남의 것이라도 그냥 막 함부로 쓰도 않고 ‘내 집에서 살림한다’ 하는 식으로 쓰니까. 세제라든가 물이라든가 막 내 것 아니라고 딱딱 쓰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냐. 그런데 나는 ‘내 것 쓰듯이 쓴다’ 이 말이에요. 오래 한 집은 거의 10년 일한 집도 있어.

이렇게 깨끗이 해주고 나면 우리들도 기분이 좋죠. 청소해주고 나면 기분이 좋지. 그리고 고객들이 “너무 깨끗해졌다”고 하면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나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보통 일주일에 다섯 집이나 여섯 집 일을 하고 있거든.

후회 없겠다는 생각으로

후회 같은 거 없이 잘 살았다고 내가 감사해. 지금은 건강하지만 중간에 아팠어. 이불집 할 때 갑상선 수술도 했어. 건강 검진하다가 내가 갑상선이 발견됐는데 남편도 위 수술을 했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때는 이불집 치운다고 심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를 위로한 것이, “우리는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까 하루 빨리 정리해버리자” 고 그랬어. 그렇게 그만뒀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한 40년 (결에서) 같이 장사한 사람들이, 김치 장사는 김

치 싸주고 상추 싸주고 두부 싸주고 밥도 싸주고 그래.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그래도 이상하니 뭣을 하면은 팔랑 날아버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업한다고 다 없애 먹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냥 꾸준히 이려고 간 거지. 평탄하게 가는 거야. 막 없애 먹고 어찌고 막 다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어. 그래도 남편이 착신했어요. 지금도 ‘뭘 좀 도와줬으면’ 하면 나 실어다 주고 그래. 나는 운전면허 뺐어도 운전 안하는데 남편이 나 어디 간다고 그러면 꼭 데려다주고.

나도 70살까지 살았으니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다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후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일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갈 수 있으니까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 나 생각해서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집에서 있기도 뭐하고 사업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한가하니까 한다 해갖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여행도 하니까
이런 것이 좋아. 그냥 다 좋아.

2014.06.01

남편과 함께 떠난 캄보디아 여행에서(우측 세 번째)

요즘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 쉴 때도 있고. 그렇게 걱정 많이 해요. 애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몸 생각하면서 하라고 걱정해요. 나보다 나이를 덜 먹은 사람들도 나한테 물어봐. 그런데 나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해. 내가 기쁘게.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방[현재] 98세인데 노인일자리 다니시거든. 어머니도 하루라도 집에 있으면 갑갑한 성격이야. 나도 늘 시장에서 사람 만나고 살다보니까 집에 못 있겠어. 장사를 오래하고 사람 만나던 사람이 집에 있으면 못 견뎌. 그 코로나 시절에도 사람들 같이 못 다니게 하니까 우리 아저씨랑 뽕 돌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돈 벌어갖고 막 유럽도 가고 미국도 다녔어. 어디 아는 미장원에 갔는데 한 번은 문을 탁 닫아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언니, 나 어디 여행 갔다 왔어” 그러니까 참 멋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불가게 하면서 그 호주 어딘가 가는 법을 배웠어. 여행사 가면 가르쳐준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노랑풍선 그런 데 전화해갖고 예약을 했어. 아저씨(남편)는 비행기 타면 무섭다고, 그래서 안 간다 하길래 처음에는 계모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 백두산 갔고 그 뒤로도 막 다녔어. 아저씨보다 내가 더 많이 다녔어. 다녀보니까 그냥 배운 것보다 눈으로 보니까 더 느끼고 배워집디다. 여행은 꼭 다녀야 겠드만.

서유럽도 좋고 동유럽도 좋고 좋습니다. 미국도 한 번 가 볼만하고. 나 여행 갈 때는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어서 가. 내가 일해서 여행도 하니까 이런 것이 좋아. 그냥 다 좋아. 지금도 감사해. 그냥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내가 아니면 부모도 못 모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큰언니 역할을 했으니까. (형제들과도) 다 친하고, 어찌고 한 것 없이 나는 그냥 두루두루 다 그런 성격이야. 말하자면 나를 다 좋아해. 동생들이. 그냥 내가 맡았으니로써.....

맡았니가 72살 때 돌아가셨어.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이제 6명이 됐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가 큰 딸이 됐지. 셋째 여동생만 대전에 살고 나머지는 다 광주에서 살아요. 남동생 하나는 그 삼양 회사 다니다가 이제 퇴직했고 지금 용전에서 농사짓고 쉬엄쉬엄 살아. 동네 이장도 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목사.



유동에서 자취하며 전남방직에 다녔던 큰 언니(위), 같은 자취방을 썼던 언니의 친구(아래 좌)와 박연옥 님(아래 우)이 추석기념으로 사진 촬영

그래도 내가 결혼을 제일 잘했어. 믿는 가정으로 해서 마음이 편하고.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을, 하나님 믿는 데로 잘했다고 봐야지. 우리 형제간은 생활력이 다 강해서 (남들한테) 의지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워낙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머니 본을 받았는가 누구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동생도 동생땀을 잘 만났어. 부인을 잘 만났어. 성격이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안정이 돼서 이제 (살림을) 밀어줘버리고 어머니는 이제 시내로 나오셔 버렸어, 계림동으로.

그런데 여기도 잘 안 오셔. 피해준다고.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 닮았어”

내가 겨울이면 추우니까 “와서 목욕 좀 합시다” 그래도 “내가 물세[수도요금] 주고 산디[사는 데] 내가 제 집 하지 왜 여기서 해야 하나” 고 안 오셔.한 번씩 오시라 해도 안 오셔. 나 고생한다고.

그런데 나도 그 성격을 닮았는가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애. 우리 며느리가 동료들끼리 시부모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다른 며느리들은 자기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혐도 들어드려야 하고 그런다고. 또 뭐가 없으면 며느리한테 전화 해서 “야, 똥이 떨어졌다” 그런다고. 말하자면 흥을 좀 봤나봐. 그런데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해. 자식들 성가시게 안하고 싶어

그래도 내가 방법 같은 것이 좀 복잡해서 정 못 사는 것이 있으면 아들한테 말을 해서 부탁을 하긴 하지. 친정어머니 닮아서 똥이든 내 손으로 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 닮았어”라고 그 소리를 합디다.



1994년 8월 여행지에서

일하는 엄마 밑에서 훌륭하게 잘 자라준 자녀들

큰 아들이 74년생이고 딸은 용띠 76년생, 그리고 막둥이 80년생. 우리 큰 아들은 수학교사이고 딸은 경기도 살아요. 그리고 막내아들은 치과의사. 딸은 처음에는 직장생활도 안하고 애를 키웠어. 그런데 아이를 좀 키우고 나니까 뭐 좀 해볼란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둥이는 광주에 있어요. 치과 의사요.

막둥이 그것이 또 공부 잘해갖고 성가시게 안 하고 컸어. 애들은 착했어. 학교 다닐 때 “엄마 나 돈 주세요” 그 말을 못해. 애들이 (셋) 다 그래.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못 한 것 같은 것도 있어. 애들 클 때 병치레는 없었는데 내가 가게 볼 때 막둥이가 세발자전거에다 손 다치고 한 게 그것이 항상 걸리고 그래. 꿈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좀 생각나더라고. 아기들 어렸을 때 진짜 사랑으로 키운 것이 돈보다 더 나은 거야. 나는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

가게 본다고 애기들 잘 못 돌본 것이 아쉽더라고. 내가 이제 경험을 해놔서 아들, 딸한테도 애들한테 사랑 많이 주라고 가르쳐.

내 몸 건강할 때까지는

이 나이에 하면 똥을 더 하겠어요. 욕심을 조금 낸다면 공부나 좀 해볼까 싶기도 하긴 해.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생각하기는 일 하다가 정 저기하면 노인 한 분이라도 모시는 그런 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소 안 하고 어른들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것. 이제 이거 안 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어.부모님 생각나서 어른들을 좀 돌봐드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적성에 맞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어른들을 모시든지, 봉사하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이제 나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또 고객도 좋아하지도 않을 듯싶기도 해. 그래서 이제 한 2년이나 더 해야 할라나 그 생각이 들고 있어.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냥 내가 몸 건강할 때까지는.

- 1951 | 01세 출생(10월 8일)
- 1958 | 08세 초등학교 입학
- 1972 | 22세 교회 지인들의 소개로 남편 만남
- 1973 | 23세 결혼
- 1974 | 24세 첫 아들 출산
- 1976 | 26세 분가, 서방시장 인근에서 슈퍼 경영(3년)하며 야쿠르트 배달
둘째(딸) 출산(26세)
- 1978 | 28세 광주교육대학교 앞으로 슈퍼 이사
- 1979 | 29세 남편은 서방에 탁구장, 본인은 지산동 조선대 앞 휴게실 운영
- 1980 | 30세 할어집 동업(1년~2년/현대극장 옆)
친척의 이불집 인수(6월, 서울이불)
셋째(아들) 출산
이후 40년간 운영(~2020까지)
- 2010 | 60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2014 | 64세 가사관리사 활동 시작
- 2021 | 71세 대인시장 <서울이불>폐업
- 2024 | 74세 현재 10년째 가사관리사로 활동 중



만족스러운
나의 삶,
나의 직업

박정숙 이정선 채록



박정숙은 1958년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에서 태어났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3남 1녀 중 장녀로 자랐다. 마을의 또래 청년들과는 남녀 구별 없이 즐겁게 어울려 놀았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박정숙을 '선머슴'이라고 꾸짖곤 했다.

1974년(17세)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남 마산 한일합섬 방직공장에 취업했다. 3교대 하면서 4~5년간 일했고 부설 여자실업고등학교에 1회로 입학했다. 기숙사에 살며 친구들과 춤 연습해서 야유회 때 공연한 것이 즐거운 추억이다. 졸업 후 한일합섬에 같이 간 친구가 서울 대기업에 취업되어, 박정숙도 친구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박정숙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성화로 여기저기 선을 봤다. 결국 1985년(28세) 선본 지 한 달 하루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박정숙은 시가의 가풍을 잇기 위해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시가에서 6개월을 지내야 했다. 그나마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소식이 서둘러 올라간 것이었다.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암에 걸린 시아버지를 대신해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혼자 장흥으로 내려갔다. 박정숙은 1986년(29세) 첫딸을 낳았지만, 게으른 남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1987년경(30세) 중학교 동창이 있는 광주에 왔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광천동에 핫도그 가게를 차렸다. 여차저차 남편과 재결합했고, 1988년(31세)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택시 회사에 다니고, 박정숙은 1993년(36세)부터 양3동 소비자조합 코너에서 문구점을 했다. 비슷한 또래였던 소비자조합 코너 사장들과 친하게 지냈다. 문구점은 2~3년 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접었다. 남편은 개인택시도 몰았지만 일을 잘 하려 하지 않아서, 박정숙이 백화점 판촉 행사를 뛰고 마트에 다니며 돈을 벌었다. 어머니가 당연히,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2001년(44세), 남편은 용봉동에 꼬치구이 집을 차리자고 했다. 꼬치구이가 뭔지도 몰랐고 두려웠지만 꽤 잘 됐다. 일곡동에 호프집을 하나 더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2007년(50세)에 호프집들을 정리하고 용봉동에 구이집을 열었다. 그때부터 빛이 불어나는데다 건물주의 갑질에, 남편의 바람까지 겹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14년경(57세) 가게를 놔두고 나와서 가사노동자 일을 시작했다.

가사노동자 일을 시작할 무렵에는 '내가 이런 일도 한다'는 생각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호프집이 한창 잘될 때는 집에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했고 빛은 많아도 명색이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일을 한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일도 손에 익지 않았고, 가사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돈 받은 만큼 해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실히 일 해왔고, 지금은 요령이 붙어서 6~7년 동안이나 관리하고 있는 정기 고객도 생겼다.

2016년경(59세)에는 가사노동자 사회적 협동조합 동료들과 난타 소모임을 시작했다. 북을 두드리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동료들과 공연도 다니고 대회도 나간다. 가사노동자 동료들은 단합이 잘 되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가족처럼 지낸다. 박정숙은 가게를 할 때 1년 365일 쉬기는커녕 저녁노을도 못 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삶을 얻은 것만 같다.

2024년 현재, 아직도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지만, 박정숙은 가사노동자로 일하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를 찾았다. 나이 먹을수록 더 삶이 만족스럽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



내 별명은 선머슴

나는 전남 강진 병영에서 태어났어요. 58년 개띠, 3남 2녀 중 둘째. 위에 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3남 1녀로 자랐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쟁기질을 많이 하셨어요. 소를 키웠거든. 지금은 기계들이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했거든. 그걸로 저기 해남까지 남의 거[농사] 다 해주고 우리 거[농사] 하고. 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하셨거든요. 그걸로 돈을 버셨지. 빗지고 살진 않았고, 쟁기질하시면서 그 돈 갖고 오면 엄마가 동네에서 동계를 하시더라고. 돈을 모아서 켓돈으로 논을 사고 또 사고,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거지.

우리 동네는 23개 부락이 같이 모여 있어서 웬만한 읍 단위 같았어요. 학교는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남동생 셋은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서울로, 기능직으로 갔고. 어찌다 보니 남매가 다 공부가 제일 싫었대, 나부터서도. 그 시대만 해도 대학교 하나 보내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다들 공부를 못하니까 중·고등학교까지만 보냈지, 다행히도. 그래도 영어 같은 거는 동네 선배 오빠들이 과외를 해줬어. 나는 몰랐는데 오백 원씩 받았대. 선배 오빠들이 한다고 하니깐, 내가 과외간다고 막 떼 부린 께[떼를 쓰니깐] 부모님이 보내주셨죠. 내가 한성갈 하거든요. (웃음) 과외랍시고 뭐 놀러 가지, 공부는 하겠어요? 화투도 배우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노래방 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이면 방에서 이불 딱 깔아놓고 불 따뜻하게 때. 그래갖고 그 이불 속에다 발 넣어놓고, (웃음)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여럿이.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 묘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춘식이 까끔[동산]이라고 했어. 거기서 아주 머시매 가시내들 같이 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았죠. 그리고 밤에 팜[담] 넘어서 놀러 가고. (웃음) 남자 머시매들이 싸이카를 타고 와요. 그러면 신호가 있어. “부릉부릉 부릉~!!” 하고.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머시매 가시내들 같이 놀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았죠.

는 개들을 다 키웠거든, 마당에다. 개가 짖고 난리여. 그러면 얼른 나가야 돼. 이제 나가서 놀다 보면 또 새벽이고. 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딱 내 방에 와서 앉아 있고, 그래갖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웃음) 공계 우리 친정 엄마가 내 별명은 ‘선머슴’, 머시매 같다고. 친구들도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맨 남자들하고 막 놀고 다닌게. 지금도 남자들하고 대화가 더 되지. (웃음) 여자 친구들은 좀 내숭 떨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싫더라고.

엄마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너는 시집 가면 거기 가서 고생한게, 그래서 집안일은 안 시켰어요. 어렸을 때는 백의의 천사라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군도 되고 싶었고. 여자여도 여군 멋있잖아요. 근데 그 길로는 아예 안 갔고.

그러다가 열일곱 살? 저기 마산으로 나갔어요. 경남 마산, 한일합섬. 그 버스를 엄청 오래 타고 기차도 막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갔었는가. 여기 광주에 무슨 양성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금남로인가 어디인가. 양성 학원 다니면 방직공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그래서, 동네 언니들, 선배들이 거기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골에서 세 명 올라와갖고 갔어요. 그 학원에서 뽑아 보내는 거야. 마산으로 가는 사람, 여기 전남방직으로 가는 사람 해서. 마산에는 학교도 있다 그래갖고 갔지. 그때 당시에 마산 한일합섬, 한일여고가 1회예요, 1회. 그래도 거기서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한일합섬이 3교대였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가방만 달랑달랑하지.

방직공장, 거기서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배우다가, 기사님이었나 뭘 반장님이셨을 건데 나한테 “현장 실험 좀 해보면 안 되겠냐” 막 그랬어요. 그 실 가락이 52수, 62수, 그런 게 있더라. 기사님들이 그거를 뽑아갖고 가서 기계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62수인가 52수인가 실험실에서 맞춰 봐요. 그걸 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힘든 거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야간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엄청 즐리고, 그런 것들은 많아.



마산 양덕교 앞에서
한일합섬 친구들과 함께(1978).
오른쪽 첫 번째가 박정숙

마산에서는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때는 또 한창때라, 그리고 전부 다 여자들, 여공들이었잖아. 그래서 쉬는 날 어디 가면, 그 창원공단? 창원공단은 남자들이 많고 그래갖고 부킹도 하고 그런 것 같아. 펜팔도 하고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뭐, 경비실로 면회도 오고 그랬던 거 기억나. 그리고 야유회도 있었고 단합대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전축을 하나 샀어, 갖고 땡기는 거. 그래 갖고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친구 세 명인가 저녁내 삼각춤이라고 춤 연습하고 야유회 가니까, 우리가 좀 춤에 끼가 있었나 봐요. 이제 다른 것으로는 안 알려졌는데, 야유회 가서 엄청 놀았죠, 땀 뻘뻘 흘리고. 그랬더니 위에 계신 분들이 와갖고 손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막춤이래도 그걸 더 막 배웠지.

한일합섬에를 친구랑 같이 갔는데, 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가 서울 미원 본사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서 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장에 못 있겠는 거예요. 막 서울로 가고 싶어, 그 친구가 가버리니까. 내가 그만둔다 하니까 회사에서는 막 잡았죠.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더마이, 그때는. 서울만 동경이 돼갖고, 서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공장에서 일한 지 4~5년 만에 그만두고 친구 따라 서울 올라갔어요. 그 친구 회사도 가봤죠, 본사.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 그거 할 거라고 왔는데 안 되더라고. 나는 어중이떠중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거 학교도 알아주지도 않았어. 그마만큼 취직자리도 없었고.

그때부터 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야. (웃음)

한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

서울에서 돌아댁기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웬만한 데는 또 가기 싫고. 아무튼 어디 마트에다 서류를 내놨는데 연락이 안 온 거여. '여기도 틀렸는 갑다' 그러고 친구한테 강진 내려간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뻘다고 오라 한다고 그래. 근데 이미 내려와 버렸으니. 그래갖고 집에서 놀다 보니까 선을 보게 됐죠. 내가 결혼을 스물여덟에 해서 첫 애기, 첫딸을 스물아홉에 낳았거든요. 넘[남]부끄럽지. 나이 먹어갖고 집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른 싸 보내블라고[보내버리려고] 중매하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선을 무지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눈이 높으다고 소문이 나버렸어. 나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안 갈라고 마음먹으니까 딱딱 거절하고. 결혼 안 하려고 선도 안 본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산[사는] 사람이 겁나 선하게 생겼어. (웃음) 근데 고집은 말도 못 해버려. 공께 아버지가 내가 꼬라지[성깔]가 좀 있는게, "니가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한[하는] 대로 해주겠다, 말을 듣겠다, 결혼해라", "원망을 하더라도 부모한테 원망하고, 가거라" 그러서. 그래서 우리 아저씨를 선 봐갖고, 한 달 하루 만에 결혼했어.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1985.2)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신부가 박정숙

박력 없으께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잡혀갔고 했지.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제 내일 결혼해. 그때 당시 손님들이 우리 방에 다 오셔갖고 계신 거예요. 내일 결혼 식이니께. 제주도, 어디 서울, 삼촌들, 고모들 다 오셨어. 근데 내가 도망을 가분다고[가버린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막 잡으러 댕긴 거예요. 박력 없으께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잡혀갔고 했지.

결혼해갖고, 시골집 그 가풍을 이어야 된다고 해서 장흥 유치 시댁에서 한 6개월 살았어. 동네가 또 다 친척들이고. 동네가 다 자작일촌(自作一村). 타성바지는 몇 분, 몇 집 없었죠.

아휴, 진짜 집도 몇 채 없어. 시할머니까지 계셨거든요.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남이라, 집안에 차종손(次宗孫)¹ 이어갖고. 그 남편도 일한다고 서울에 있어서 집에 없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금께 시댁 식구들이, 시댁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이상한 것 같아. 정이 안 들어서 그런가. 사람들 쳐다보면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강진 살 때는 짧은 핫팬츠 입고 댕겼지. 미니스커트 예다가 그냥.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 하고. 근데 시집살이 하면서는 새댁이라고 한복 입고 밥 차리고. 명절에는 그놈 하루 종일 입고 있고. 할머니 계실 때는 손님들이 아주 엄청, 아주 하루 종일 와. 친정도 가라 소리도 안 해요. 어느 날은 한복 입으니까 죽겠어. 그래서 반바지하고 딱 입었더니 시아버지가 쳐다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웃음)
우리 강진 병영은 시골이라 해도 연탄 때고 곤로가 있었

거든요? 근데 장흥 유치는 완전 산골짜기여갖고 나무 때고 있어. 그래갖고 반찬을 할 수가 없는 거여. 반찬도 그때 당시에는 나도 잘 못하고. 스물여덟에 갔어도 친정 엄마가 반찬이랑 다 해버렸으니까. 시어머니는 챙겨주신 것도 없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뭘 물어보면, “어, 나는 몰라. 니가 알아서 해라” 항상 그런 식으로 하셨어. 이제 반찬을 만들면 짬지 싱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좀 짤랐는가 봐. 밥상을 들고 가면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짜면 조금씩 먹고 싱거우면 많이 먹는 거다” 그러서. 근데 내중[나중]에 그것을 내가 먹어보니까 엄청 짜더라고. (웃음)

가풍을 이으려면 2년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서울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만났대. 금께 이제 옆에서 “빨리 색시를 올려보내라” 그래갖고 시댁에서 혼자 6개월 살다가 부랴부랴 올라갔지.

우리 아저씨는 통신공사 다녔어요. 근데 나 올라가고 두세 달인가 댕겼는가 몰라. 도로교통 안전 관리자인가, 그게 자기한테 적성이 맞겠다고 그 공부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뒀어. 그랬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식도암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 장흥에서 사신디, 여기 광주가 누나가 있어요. 거기 와갖고 검사하고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고 해. 그때 당시에는 주인집만 전화기가 있어.

우리 둘이, 나 배 이만해갖고 시장 갔다온께, 전화가 왔다고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대. 아버지가 암 걸렸다고 하니 공부하고 있겠어, 서울서? 그래서 남편은 장흥으로 내려왔어. 난 안 내려가 부렸지. 그때는 진짜 뭐 식당이나 그런 데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보험 회사를 좀 댕겼어요. 누구 아는 동생들한테나 가갖고 좀 하고. 이제 그 끈 떨어지니까 (웃음) 시골에 내려갔지, 어쩔 수 없이.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남편은 먼저 장흥에 내려와갖고 이제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 안 간다고 하더라고, “내가 여기 농사지어야 되겠다”고. 근데 농사를 짓도[짓지도] 안 해. 아버지가 아프니까 본인이 대신 농삿일하러 논이나 밭이나 막 댕겨야 되잖아요. 근데 잠만 자고 있어. (웃음) 너무 게을러 갖고.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금께 이제 애기 낳고도 싸우기만 하면 친정으로 갔지. 그러면 엄청 속상해 하시고 막,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또 싸운 거예요. 그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겠더만. 그래갖고 나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올라와 버렸어.

¹ 차종손 : 대종(大宗)에서 갈려 나온 종가의 종손.

그런게 나는

이혼 세 번 하고도

지금까지 한 남자랑 산당께.

시아버지랑은 내가 애 데리고 시골에가 있었으면 하지만, 나는 도저히 못 있겠지. 남편이 부지런해갖고 막 한다 하면 그래도 조금 저기 할 건데, 아예 그냥. 그래서 그냥 올라왔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못 간다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데려다주고 오라고 시아버지가 막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같이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시어머니한테. 미쳐볼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혼이 시작이 됐어. (웃음) 내가 스물아홉에 우리 딸 낳았는데,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더라구.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혼하려고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기는 네가 키우는 대신에 위자료는 없다, 돈도 없으니까” 그러더라고. 위자료 없이 애기만 댈꼬[데리고] 나왔어. 애기를 안 데리고 나와야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하는데, 도저히 놔두고는 못 나오겠어.

이혼은 내려와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장흥 가서 했어요. 법원에서 도장이랑 다 찍고 했는데 서류를 하나씩 주더만, 합의 이혼이라. 그래서 나는 갖고 가고 우리 아저씨는 즈그[자기] 집으로 갖고 가고. 그걸 각자 동사무소에다가 제출해야 이혼이 딱 성립이 되거든. 근데 둘이 다 안 했어. 그러고서는 남편이 나중에 처음에는 애기 데리러 왔다고 한 번 와, 두 번 와, 그러면서 내가 애기랑 살던 집을 댁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살게 됐어.

그런게 나는 이혼 세 번 하고도 지금까지 한 남자랑 산당께.

친구들과 함께, 광주 시민이 되다

서울 살다가 강진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사위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아프다고 집에 가저러고 있으니 친정 부모들은 좀 싫어하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돈 조금 달라고, 가게 이렇

게 해서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해줬지.

친한 친구, 중학교 동창이 또 광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도 세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밖에 전화가 없잖아요. 이제 전화했어. “나, 우리 애기만 댈꼬 올라가야 되겠다. 뭐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

우리 아들이 88년생이거든요. 그거 임신해갖고 광주 왔어요. 그 친구 있는 데, 광천동, 광천초등학교 조금 떨어진 데다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 친정에서 얻어줬지. 그래갖고 핫도그 가게 하는데 그 친구가 거의 같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이 좀 늦잖아요. 그 친구는 결혼을 빨리해갖고 애기들이 학교를 다녔어. 거기도 딸, 아들이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애기 친구들이 ‘느그[너희] 엄마 핫도그 장사하지?’ 그러면서 막 놀렸대. 그 친구 애들이 거의 매일 와서 도와주니까, 거의 정말 한 가족처럼. 그때는 친한 친구들이 거의가 서울에 있고. 서울로는 버스를 타고 애기들도 있어도 그리 멀어도 댁기고 했는데, 처음 광주 내려와갖고 보니 엄청 낯설더라고. ‘언젠가는 서울로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그때 내려와서 산 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무튼 임신해갖고 핫도그 가게를 했는데 엄청 잘 됐어. 학교 앞에 학원 간식으로도 나가고. 그때 당시에 핫도그를 다 고무 다라이[대야]로 하는데 나는 스텐[스테인리스]에다가 하고, 또 우유로 반죽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학원 선생님들도 간식으로 엄청씩 사가고 그랬어. 빨리빨리 하면은 익도[익지도] 안 해갖고 다시 튀겨오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때는 50원이었을까? 노랑 바구리[바구니] 발밑에다 놔두고 돈 놓고 그랬어. 방 딸린 가게에서 핫도그 장사하다가 우리 둘째 아들 낳고서는, 학생들이 좀 덜 있을 때 젓 먹이러 방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돈 든 바구리가 없어져 분거야. 돈이 솔찬히[상당히] 들었는데. (웃음)

그러고 혼자, 애기랑 살고 있는데 애기 아빠가 왔어. 애들 아빠 와갖고 회사 택시라도 하나까 핫도그 가게 그만뒀고. 애기들 어렸을 때는 서구 농성동에 살면서 우리 아저씨는 택시 하고 나는 문구점을 했어요. 발산다리, 양3동인가 거기까? 소비자조합 코너에서. 옛날에는 소비자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슈퍼 있고 란제리 있고 피혁 제품 있고 화장품 있고 한 큰 저기가. 슈퍼에서 전체를 얻어갖고 우리한테 세를 내주는 거예요, 코너를.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나? 그래갖고 한 2~3년 했을 거예요. 발산다리 저기가 엄청 세 사는 사람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학생들이 다 없어지더라고. 아파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다 아파



양3동 소비자조합 문구점에서 박정숙(1994.4.23.)

트로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점점 없어지고, 그 문구점도 잘 안 되고. 공께 접었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문구점 할 때 참 즐거웠어요. 소비자조합 코너 사장들이 나이 또래가 다 비슷했어요. 다들 집이 가까우니까 한 가지씩 해 갖고 와서 밥 먹고. 한 달에 몇 번씩 회식한다고 나이트도 가고. 매일 같이 있으니까 따로 날도 안 잡아. 당시 나이트 이름이 구라파, 기본이 2만 9천 원인가 했어요. 그것도 안 내고 아끼려고 충장로에 삼희식당이라고 있어. 배고프면 거기서 밥 먹고 한 잔씩 먹고 나이트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트에서 마시고 가고. 소주 한 병이 큰 컵으로 딱 두 잔 나와요. 그러면 둘이 한 컵씩 나눠 마시고. 네 명이 그러고 다녔어요. (웃음) 갈 때는 겁나 급한게, 택시를 타고 가. 그래 갖고 올 때는 걸어서 오죠. (웃음)



동네 친구들과 함께(1990년대 중반)
당시에는 침대 있는 가정집이 드물어서
다 같이 구경 갔다가 찍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박정숙

남편은 회사택시를 3년 했고, 내가 빚을 조금 내서 개인택시를 사줬어. 택시를 하면 식사 때 밥 먹으러 들어와요. 당시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들 앓고, 주택에 살면서 세 집, 네 집 보통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도 되고 언니, 동생, 주인집 아줌마, 그렇게 골목에 평상 같은 데 다 나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어울려 지냈어요. 그때도 내가 웃기는 소리 하면서 그랬었나 봐. 남편이 밥 먹으러 들어와서 방에 딱 밥 차려 들어가면, “제일 느자구[씩수, 형편, 어이] 없는 소리만 네가 혼자 다 하더라” 그러면서 미운 소리 하더라고. 그런데 개인택시 사 갖고 빚이 좀 있을 때는 남편이 돈을 잘 벌던디, 빚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또, 또, 또 돈을 안 벌기 시작한 거야.

택시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택시가 많이 섰으면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기 징한게, 다른 데로 돈 벌러 돌아다닌다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택시가 제일 많은 데, 뒤에 가서 딱 신문 갖고 와 갖고 신문 보고 그랬대. 애기들 키우고 하면은 집도 내 집도 아니고 하니까 좀 모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또 막 싫은 소리 하고 싸우고. 남편한테 “그 돈이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배(倍)는 벌겠다” 그러면서 싸웠어.



가족사진(1993년경). 박정숙이 달리기 대회 상품으로
받은 가족사진 촬영권으로 찍었다. 위가 박정숙

엄마니까.
다 엄마는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

남편이랑 같이 살았지만은, 딱 보니까 짝수가 노랑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지’ 지금 같으면 이혼해볼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별어먹을 길이 별로 없더라고. 당시에 누가 말해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갖고 백화점 행사를 다녔어요. 세일 할 때 한 십오 일이면 십오 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런 게 있어요. 신세계 거기 많이 다녔구먼, 신세계 지하. 시식 코너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 시식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잘했으니까 유명 매실청, 거기서 행사만 들어오면 거의 내가 가서 했죠. 그러다가 또 마트에도 한 몇 년 다녔어요. 내가 가장 역할을 한 거지, 엄마니까. 다 엄마는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시절

개인택시가 산 거라 5년 안에는 팔 수가 없더만. 개가 딱 5년 되니까, 우리 아저씨가 차를 팔 아버려요. “차 팔아갖고 뭐 할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꼬치구이집을 하자게, 호프집이제.

“꼬치가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 있대. 그때 당시에는 나도 술집도 그렇게 가보들 안 하고, 꼬치구이집이 뭔지, 꼬치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나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 했다니까.

“꼬치[고추]를 꽂아갖고 이렇게 먹는 것이 꼬치냐?” 고, 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가서 보니 꼬치[꼬치]에다가 고기랑 야채랑 파랑 이렇게 꽂아서 있잖아요. 그게 꼬치[꼬치]인데, 남편이 ‘꼬치구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꼬치[고추]인 줄 알았죠.

처음에 장사한다고 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곳인가 보려고 그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손님이 들어간 가[들어가는가] 보자, 그래서 쪼그리고 앉았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 지금 생각한게 초저녁이었는데, 해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졌어요? (웃음) 모르니까 그랬지.

그래도 남편이 거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때가 2001년, 용봉동 비엔날레 앞이었거든요. 한, 일고여덟 평짜리였나? 짝꿍했어[조그마했어].

근데 하다 보니 엄청 잘 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반 노가리라고 팔았어요. 바닥한[빳빳한] 노가리가 아니고 반만 약간 말려 갖고 하는 거, 촉촉 노가리.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송정리에서 용봉동까지, 비엔날레 할 때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진짜 다 와갖고, 호프집에 줄을 서갖고 컵을 못 씻을 정도로. 자리가 없어갖고, 가방 깔고 아니면 맨바닥에 앉아갖고. 옆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남의 식당 평상에까지 갖다주고 그러면 어쩔 때는 거기서 먹고 돈도 안 주고 가부는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좀 평수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거기 하고, 우리 아저씨는 자기 동생하고 일곡동에다 호프집을 하나 더 차렸어. 두 군데를 하니까, 나도 알바를 쓰고 우리 아저씨도 알바를 쓰고 그러는데 알바가 신다고 하면 그걸 누가 채워 줘야 되잖아요.



가족 동반 제주도 여행에서(1995)

빛 짙어지고
멍들기 시작해볼더라고.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그런게 용봉동에 있는 호프집을 남을 주고 일곡으로 합쳤어요. 거기도 처음에 안 됐던 데를 내가 가니까 또 엄청 잘 돼부렀네.

근데 주인이 여지껏 자기가 해갖고 안 된 데를 키워놓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고, 계속 1년, 1년, 세를 올린다[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여. 벌어갖고 그 세를 다 주자니 너무 꽤빚하고. 이제 판 데 가서 하자고 내가 막 그랬어.

양쪽에 두 군데서 한참 잘 됐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잘 될 줄 알고. 그래갖고 다시 용봉동으로 왔어요. 돈이 잘 벌렸다고 해도 호프집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애들 둘 다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많이 벌어갖고 나온 것은 없어. 애들만 가르쳤지, 둘을.

용봉동 와갖고는 호프집이어도 술집은 술집이니까, 이제 애들 크니까 하지 말자고 그래갖고 조개구이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간판을 세 번 바꿨나 네 번 바꿨나. 그래갖고 막 빛 짙어지고 멍들기 시작해볼더라고. 여기도 월세가 해년마다 올라갖고 10년 전에 180만 원을 줬다니까요. 110만 원에 들어가갖고.

거기다 건물 주인이 상가도 여러 개 있더라, 막 자랑하네.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가게니까 가라고 보냈는가 봐. 건물 주인 친구들이 우리 가게에 와갖고 기본 안주에다가만 맥주를 세 병을 마셨으니까 9천 원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가니까는 “장사를 그따구로 하나” 고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세 너무 많이 비싸다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몇 번을 저그[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래. 가지만 하면 내가 엄청 울었어. 빛 짙을라, 가게 세 올려줄라, 우리 먹을 거는 없어. 가게 세 너무 많이 올린다고 진짜 따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만 가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저그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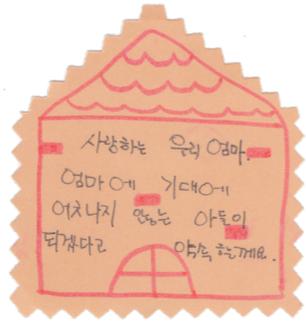
그리고 또 건물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른 호프집 사장은 명절이면 꼭 사과 한 박스를 보내는디, 너네는 인사성도 있네 없네 하면서. 그란아도 [그렇지 않아도] 성질나 죽겠는디. (웃음)

그래도 거기서 하다가 “왕구이” 라고 또 마지막 판에는 바꿔갖고 조금 나왔죠. 용봉동으로 다시 와갖고는 빛이 있고 장사가 좀 그러니까, 남편도 서빙을 하고 그랬지. 서빙했는데 마음에 들간? 우리 애기 아빠도 호인(好人)이고, 근데 게으른 게 문제였지. 일을 안 할라 하고, 나한테만 막 하라 하고. 고집이 무지하게 세갖고, 내가 하지 마라 한 것만 해.

딱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에 있는 거를 알아서 싹 빼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리 옮겨붙고 저리 옮겨붙고. 그러면 찾다가 빨리 안 나가고. 그러는데 성질나요, 안 나요? 그래갖고 24시간 같이 우리 아저씨하고 일을 하니까 맨 싸움만 하는 거여. 부부는 같이 있으면 안 돼, 부부는 정말. 이제 나는 그 가게만 가면 무서운 거야. 빛은 있지, 돈이 안 되니까 사람 쓰기도 그렇고.

사람이 홀에 있고 부엌에 있고 그랬는데, 남편이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방장은 돈을 더 주니까 거기를 자르자고 그래. 나는 주방 도저히 못 한다. 절대 못 한다 그랬지. 근데 기어이 주방장을 자른 거여. 그래갖고 내가 주방에 들어갔지. 그리고 밤에 장사를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새벽 한두 시 되면 차 없는 알바생 집에 태워다 주고. 거기서 바람이 났어.

손님이 들어오면 나는 음식 할라, 손님 저기 할라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는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 전화하기도 그래. 음식 하다가 전화 틀어 놓고 막 전화하고. 그래도 안 받아. 미쳐버리겠더라. 그래갖고 싸움을 또 박 터지게 했지. 맨날 싸우니까 우리 딸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라고. 즈그[저희] 아빠한테 가게 못 나오게 하더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남편이 가게 나오면 그래도 일을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니까 있어줘야 돼. 가족이 일 해줘야지.



양3동 어린이집 생일잔치에서 아들과 함께(1994). 왼쪽이 박정숙. 어린이집 선생님이 적어준 말처럼 엄마를 사랑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든직한 아들로 컸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가 봐. 군대를 못 갔어요. 북구 어디서 방위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회식만 갈라 하면 바쁘게 내가 전화를 했어. “아들아, 얼른 와” 그러면 회식 가다가도 오고 뭐 가다가도 오고. 아들이 많이 도와줬지.

엄청 가게가 힘들었을 때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고. 내가 거기서 한번 딱 쉬면서, ‘아, 지금 내 생활이 이렇구나’ 그거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숨이 엄청 험뻑거리고 가쁘잖아요. 숨이, 탁 (턱을 가리키며) 여[여기]까지 차갔고 있어. 궁께 이 생활하고 산 타는 거하고 너무 닮아 있었어, 그때가.

2001년에 장사 시작해서 용봉동, 일곡동에서 5년, 5년 하고, 다시 용봉동에서 가게를 한 7년 했을 거예요. 권리금이랑, 우리는 술잔히 거가[거기] 들어 있었거든. 근데 얼마나 징해부렸으면 내가 가게도 그대로 놔두고 나와 갖고 빛나흠을 들어왔어. 그때부터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거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일곡에서 두 번째 호프집 할 때, 내가 청소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렀어. 화순에 산 친구가 가사노동자 일을 했어요. 호프집 너무 잘 됐을 때 이 친구한테 그랬어. “왜 이런 데를 다니냐?” 나부터 부정했거든요. “남의 집 가면 남의 속옷 빨고 설거지하고 왜 그런 짓을 하나” 고,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라. 알바나 좀 해라” 궁께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저녁에 장사하고 아침에 자고, 집-가게, 집-가게 그렇게 살았어. 너무 지쳐. 그러니까 집안일은 아예 못했지.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도 전혀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먼지가 뒹굴어 땡겨요.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줬지. 내가 뭐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친게. 궁께 처음에는 부끄러웠지. (웃음) 한 2~3년 쓰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만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갖고 빛나흠에 들어오게 됐어요. 빛은 많지,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깐 보기 싫지. 내가 다른 데 식당이나 서빙이나 가면은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왕구이 사장, 저기서 알바하더라” 그 말이 또 막 돌까봐. 하면 뭐 어째요잉? 근데 그게 그렇게 싫어갖고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일을 안 다니면, 내 성질이 가게를 도로 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빛나흠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갖고 여기 사람 모집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계속 전화를 했어. 사람 모집 안 하냐고, 이사장한테 얘기 좀 해봐라 해봐라 하고.

하도 그런게는 한번 와보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렇게 내가 억지로 여기 와갖고 땡긴 지가 거의 10년 됐네. 옛그저께 같은데. 그래갖고 막 두고두고 가끔가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는 하제. 내가 너한테 하지 마라 해갖고는 내가 이렇게 오래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싶어서 엄청 그랬지.

고. (웃음)

가게 할 때는 24시간, 아주 진짜 잠자고 가게-집, 가게-집 이것밖에 못 하니깐. 가게 장사가 안 되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어디를 갈까’ 항상 그러고 있다가, 내가 딱 나와 갖고 얼마 안 됐어. 어느 날은 가게에서 나와 갖고 그 저녁노을이 지는 것을 밖에서 보니까, 진짜 너무,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걸 느꼈어. (웃음) 가게 할 땐 저녁에 일하니깐 그걸 못 보지. 다른 사람들 어디 가서 오로라 구경하면 그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그 저녁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니까요. (웃음)

가사노동자 일도 처음에 했을 때 힘들었어요. 사실 가게 일보다 일하는 건 훨씬 편했죠. 4시간, 4시간 두 타임 해서 총 8시간 일 하면 집에 가서 쉬고 술 마시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가게를 하면 365일 안 쉬고 했었어요. 일요일 쉬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때는 거의 명절에도 했어요. 명절에도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가게 그대로 놔두고 내 몸만 나와 버렸죠. 그리고 가사노동자 일을 하게 됐으니깐, 그때는 ‘내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싶어서 엄청 그랬지.

고객님들 중에 성향이 좀 저기 한 양반들도 있어. 일을 갔는데, 당신은 운동 간다고 나가서. 나이 드신 분이야. 굉장히 멋쟁이시더라. 근데 일을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올라 하면은 딱 들어와갖고 옷을 손빨래하라고 딱 당겨놔. 꼭 운동 가갖고 손빨래하라고 딱 당겨놔, 나올라 하면. 그때 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또 빨아 놓고 오지. 그러면 속이 좋겠어요? 빨리 왔어도 손빨래하라고 하면 좀 그런디, 일 다 했는데 와서 그렇게 꼭. 그래서 그만뒀어.

그리고 고객님들, 식구들, 아기들이랑 다 밥을 먹었어. 먹고 난 뒤에 딱 그 먹고 남은 반찬 모닥모닥[모다기모다기] 해갖고 나한테 밥하고 해서 그릇 하나에다가 주는 거여. 먹으라 그래.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지들 오면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께, 또 먹어야지 어쩔 것

이여. 참 그때 진짜 서럽드만. 일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더 서럽드만. 그다음부터는 밥 먹고 왔다고 하거나, 도시락을 싸갖고 멩기고 차에서 먹어요. (웃음)

나는 ‘돈 준 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그냥 돈은 안 준다. 우리 가게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해버렸으면 해버렸지, 알바 안 아 있다고 내가 알바한테 “가서 설거지해”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가서 하고 알바한테는 “앉아 있어” 그러고. 그러니까 솔직히 알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 그걸 아니까 나도 ‘남의 집 가서 일하면 돈 주는 만큼 제대로 일해야지’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모가지도 짤렸어.

깨끗이 안 해준다고 욕 몇 번 먹었죠, 당연히. 이게 다 저기가 동선이 있어. 이 일도 쉽지는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 하나 같이 가서 일을 배워야 돼. 몇 번 따라 땡겨야 돼. 어떻게 청소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설거지를 하더라도 싱크대 같은 거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령이 부족하니깐. 선배들이 그래, “너 요령껏 해. 요령껏” 요령이 도대체 뭐야, 요령이. 어떻게 해야 요령이냐고 물으면, “하다 보면 알아”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가서 내가 봐갖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지.

처음에는 고객 집을 갔는데,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빗은 많애도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빗이 너무 많애 버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빗독촉하는 것에.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가 14층이었거든요. 14층에서 발도 걸어봤어, 죽어볼라고[죽어버리려고].

가게 폭삭 망해볼고[망해버리고] 우리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술을 내가 좀 하거든요. 나 여기 이 일 갔다 오면 먹으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술안주를 딱 해놓고, 부침개라도 해놓고 고기 구워놔. 술 없으면 시어머니가 술도 사놔. 그리고 속이 터지려니까 내가 막 울어.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문 다 닫아, 소리 옆집에 들린다고. (웃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6~7년 땡긴 집들 있고 그래. 이젠 처음 들어갈 때 “한 두세 번은 와야 눈에 익으니깐 빠진 데 있으면 지적해달라” 딱 그러고 들어가죠. 그때는 여렵기도[창피하기도] 했고. (웃음)

우리 딸이 지금 애기들이 열 살, 열한 살이거든요. 이 일하면서 애기들도 봐줬어. 봐줘도 다른 엄마들은 되리어[도리어] 애기 낳았다고, 애기 옷도 사다 주고 돈도 얼마 주고, 대개 보면 다 그

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했죠. 돈 없으니까 애기라도 봐줘야지. 빛은 갇아야 되니까, 내가 일한 만큼 우리 딸한테 돈 주라고 했어. 80만 원 주고, 생활비는 여기다 넣어 놔라. (웃음)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막 즐기고 다닌다니까요. 일하고 또 애기 봐주고 하려니까 피곤해서.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사위한테 미안한게, 생일 선물로 금 20돈 해주고 작년에는 우리 딸 팔찌 하나 해줬어. (웃음) 결혼할 때 못 해줬으니까.

요새도 사람들이 가사노동자 일에 대해서 별로 좋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뭐 나쁜 짓은 아니여. 페이도 괜찮하고[괜찮고], 진짜. 근디도 좀 그러더라고.

우리 친정 식구도 내가 이 일을 한지를 몰라요. 좋은 회사 다닌 줄 알아. 아버지가 아프다고 전화 오면 바로 가지, 말만 하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맙다고 가을이면은 쌀 나락 짙어갖고 “느그[너희] 사장 갖다 줘라” 한 이텐가 삼헨가를 그랬어. 우리 아버지 올해 돌아가셨네요.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일이 너무 재밌고 그러는데, (웃음) 지금도 어디 가서는 밝히지를 못해. 친구들한테도 이런 데 다닌다 소리는 안 하고. 친구들은 다 정년해갖고 노네 어찌네 그런디, 그냥 막 바쁜 척하고. (웃음) 또 여기 일간 거는 조금 숨기고, (웃음) “학원가” 그래. 그걸 좀 부각을 시키지. (웃음)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그래도 좀, 웬지 그랬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딸과 함께(1997). 오른쪽이 박정숙. 풍물을 배우고 싶었던 박정숙이 딸에게 풍물을 권했다.

돈 버는 건데, 직업 아니에요?

우리는 사무실 통해서 일을 받아요.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실에서 메모해놨다가 일이 들어오면 고객님한테 우리 관리사 보낸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에게 고객님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로 먼저 고객님하고 얘기하고 집으로 가갖고 일을 시작하지.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한지가 오래됐어도 집집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집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래요. “한 두세 번 올 때까지는, 눈에 익을 때까지는 좀 빠진 곳이 있을지 모르니까 부족하시면 문자로 주시고 말로 해주세요” 처음에 간 집은 시간이 좀 오버가 돼도, 막 1시간씩 더 해줘도 4시간 값만 받아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어느 집을 가든지 거의 비슷하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박정숙(2024.7.)

일 안 할 때는
남이지만,
일할 때는
딱딱 식구같이.

눈에 익으면은 여기 여기 여기 딱 가분께[가버리니까],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해요.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집을 가라고 하면 괜히 두렵고 그랬어요. '내가 저기 가서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노하우가 생기니까 '어느 집이든 할 수 있다' 싶어요. 다만 '우리 친구 집이나 없을까?', '아는 사람 집이면 어떡하지?' 그런 적은 있고. (웃음)

평수가 큰 거는 50평 넘어가면 보수가 5천 원이 더 비싸요. 근데 또 요즘에는 평수가 크다고 해도 식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깨끗해요. 근데 깨끗한 집이 더 힘들어. 꼬맹이 있는 집은 아주 난리를 쳐놓으면 처음 갈 때는 '워~매' 그래도, 나오면은 딱,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깨끗한 집들은 힘들어요, 표가 안 나니까. 그래도 기본은 싹 하고 땡기지.

그리고 우리는 일을 가면 또 육아용품은 손도 안 대요. 우리는 다른 걸 다 만져야 되잖아요. 그런게 신생아 끼는 못 만진다고 말하면 또 다 알아먹어. 지금은 고객님들도 그러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 안 할 때는 남이지만, 일할 때는 딱딱 식구같이.

일은 거의 2주에 한 번이나 1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는데, 가끔 일회성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로 연락이 와, 한 번만 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대청소. 그리고 집 이사할 때 그런 거. 그러면 좀 비싸요, 더 힘들고. 살다가 이사 간 집이 있으면은 기름때 같은 게 엄청 많고, 새집을 청소하러 가면은 그 하얀 가루가 뭐가? 분진 그런 거 다 닦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도배하는 것도 기술자가 한 거하고 초짜가 한 거하고 달라요.

기술자가 한 거는 풀이 별로 안 묻어 있어. 초짜가 한 거는 풀이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풀도 떼기가 좀 힘들고 바닥에도 풀이 막 있어갖고 잘 안 닦이고. 청소 도구가 있어. 밀대, 청소기. 또 갈쿠리[갈퀴] 같은 거 있어요. 그거 긁고 다니고.

나만의 청소 비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지금 회사랑 가정집에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회사는 남자들이 많은 회사라 화장실 청소 좀 신경 많이 쓰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가정집은 부엌, 주방 위주로, 여자분들이 식구들이 많이 저기 하는 데 신경 많이 쓰지.

화장실에 가면 그 줄눈 있잖아요. 대개 보면 줄눈이 깨끗해야 청소를 잘한다고 하거든요. 많이 더러웠을 때는 우리가 쓰는 약품을 먼저 거기 해놓고, 맨 나중에 화장실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화장실은 맨 마지막에 해요. 그랬을 때 힘이 좀 덜 들죠.

락스가 독하니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하면 좋은데, 덥고 갑갑해서 못 하죠. 코로나 왔을 때는 고객님들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마스크 쓰고 하라고. 금께 마스크 쓰고 하면 아주 막 울떡징[갑갑증] 날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돈 버는 건데. 직업 아니에요? (웃음)

지금 월수금 오전은 회사로 가요. 집에서 6시 반에 나와 갖고 7시부터 일을 해요. 4시간인데, 보통 3시간 반 정도 하면 끝나더라고요. 나머지는 가정집인데 2주에 한 번 격주로 가는 집이 세 집, 나머지는 1주에 한 번. 가정집은 보통 8시에 가요. 빨리 오라는 집은 7시 40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아침 일찍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 빨리 갔다 오면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있으니, 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니까, 그래서 좋더라고. 그리고 차에서 식사하고 오후 집으로 가고.

오후 집은 시간대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낮에 집이 비어 있으니 우리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싹 하고 마무리하고 딱 나오고. 이 일은 딱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돼서 좋아요. 좀 빠르면 시간보다 빨리 나오고 좀 저기 하면 시간 돼서 나오고. 또한 집에서 8시간 하면 질릴 텐데, 4시간으로 쪼개서 두 타임 하나까 금세 시간이 가요. 그런 게 좋더라고.

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좋더라고.

고객님이랑 갈등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그 고객님도 우리 직원을 안 쓰면 되는데,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고객님 집에 뭐가 없어졌다 해갖고 아주 난리 난 적도 있기는 해. 누가 뭐 가져갔다고 어쨌다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고객님이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나도 알게 됐지.

억울하지만 고객님들이 우리를 먼저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우리는 가정집에 가서 일하는데, 집에는 가장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알아, 우리를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의심 간 사람은 우리제. 그잖아요, 외부 사람은 우리만 들어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그런 것이 저기 했는데, 지금은 그 흠캠이라 한가[하는가] 그걸 해놓은 뒤로는 그다지 그런 게 없더라고. 진짜로 모든 집에 흠캠이 다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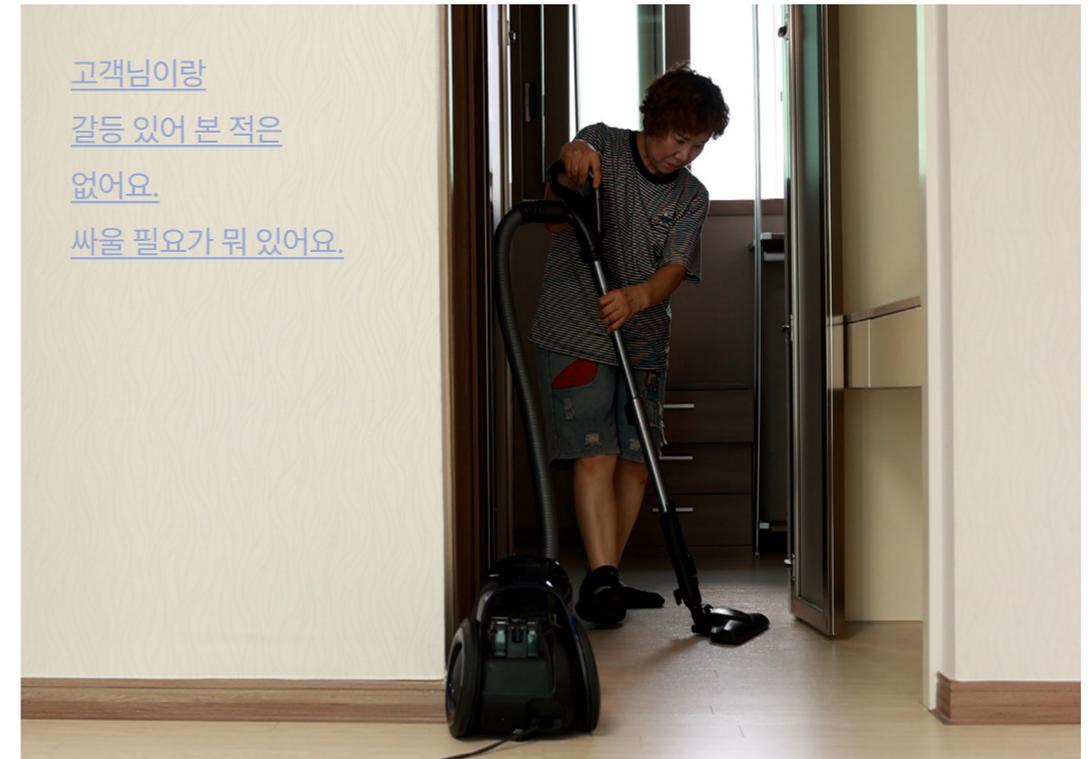
기억에 남는 집은, 그 집을 갔는데 항상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놓더라고. 겨울 같은 때는 괜찮았어. 일주일에만 한 번씩 가도 괜찮았는데[괜찮았는데]. 이렇게 날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왔던 것도 음식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가서 보면 구더기, 아주 이만한 거 바글바글 해버려. 그러니까 나는 (웃음) 우리도 징하자네. 그렇다고 고객한테 전화해갖고 그 하소연을 하겠어? 그래서 전화로 그런 게 아니고, 문자로 했어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 좀 해줬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다음 주에 갈라 하니까, 전화가 와서 “언니, 우리 좀 실게요” 그래. (웃음)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 이사장한테 그랬어. 잘릴 이유라고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문자 넣은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아무 소리 말고 일하지. 뭐 네가 분리를 해놓으라고 하나. 고객들은 자기를 시켜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 그러더라고.

그 고객님은 지금도 그때 구더기 나온지는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잘린 적 있어. (웃음) 다른 사람은 “언니”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이모”라 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님” 그러든지 그러디[그러는데], “언니, 언니” 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관리사” 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기도 하더만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 근데 “아줌마” 소리는 진짜 싫어. 나 할머니거든요? 근데 “아줌마!! 아줌마!!” 그래 싸면[그렇게 막 부르면], 왜 그리 듣기 싫을까? “이모!” 그러면 암시령도[아무렇지도] 안 해요. 요즘도 “아줌마!” 하는 사람 가끔 가다 있어요. 그게 어째 그냥 거슬리대요.

거슬릴 것도 아닌데, 할머니라고 안 한 것이 다행이다. (웃음) 응, 부르는 말투 톤 자체가 다르지. 어떤 분들은 또 “관리사님~” 그러고. 문자 넣을 때도 “관리사님, 우리 집 이거 이거 한다, 화장실 여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죠.



청소 일하는 박정숙(2024. 7.)

고객님을 직접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기 빛나흠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해 있어서, 4대 보험 떼고 월급제로 돈 받거든요. 한 달에 바로 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식탁 위에다 올려놓으신 분도 있는데, 내가 말일 날로 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말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실로 해갖고 돈이 들어와요.

배상보험도 들었어요. 하다 보면 그릇도 깨질 때도 있고 컵도 놓쳐서 깨지, 사람이라. 그럼 그거 사진 찍어갖고 “어찌까요. 깨뜨렸네” 그러면 다들 괜찮다고 하죠. 속은 또 아까워도 어찌겠어. (웃음) 제일 컸던 거는 냉장고에 스크래치 낸 거. 고객님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뭘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깨끗이 닦아준다고, 따뜻한 물, 식초 타 갖고 해도 잘 안 지는[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철 수세미로 문대[문질러] 봤는데, 물기 있을 때는 봐도 스크래치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닦였다” 그랬는데 나중에[나중에] 마르고 보니 스크래치가 나갔고. 싹싹 빌었죠.

그러면서 막 더 전라도 말을 써. “그랬어요. 저랬어요” 아니고, “우째쓰까잉~” 이랬어요. 웃지, 막. (웃음) 어떻게든지 좀 봐주라고. 그러[그렇게] 안 하면 돈으로 때워야 되께[되니까]. “어찌까요” 그러면서 싹싹 빌어야죠, 어쩔꺼여[어찌겠어요], 을인디. (웃음)

한 9~10년 일해보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 일이 많이 들어온[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니까 자제분들이 “우리 엄마 집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런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든요. 아기 낳을 달, 막달이면 20만 원을 지원해주더만. 그러면 우리를 불러. 가서 보면 엉망으로 해놓지. 살림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남편들이 거의 하고 있어. 옛날하고 다르더만. 여자들은 임신해갖고 있고, 뭐 옷 있냐고 찾으시면 남편이 와서 찾아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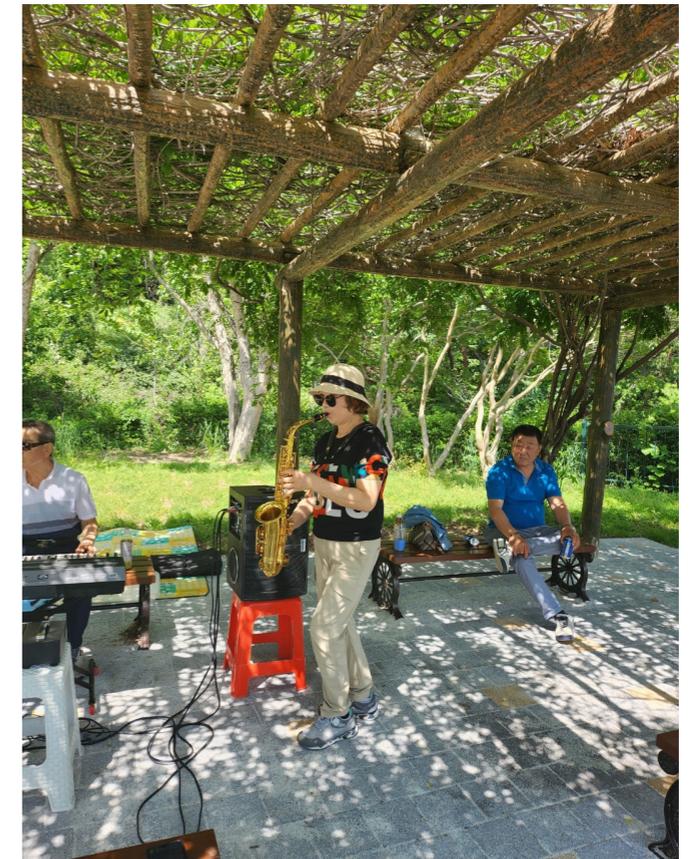
또 막달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새댁들은 사람을 잘 안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노동자들이 돈 받고 청소해 주는지를 몰라. 그러면 소개를 하죠. “이제 주 1회로 한 번씩 쓰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다음에라도 손 필요하시면, 아기 키우시다가 저기 하면 우리 빛나흠으로 연락하라고. 그러면 당장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한참 뒤에 또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리 사무실 소개해갖고 또 고객 몇 집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몰라서도 못 쓰고, 집에 사람 오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이 제일 잘한 거 같아

나 여기 막 들어와서는 빛나흠이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이제 협동조합 하면서 4대보험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도 한 40~50명 그렇게 많았었는데 싹 빠져나가붙고, 한 이십몇명? 그 정도 갖고 소모임을 하자 그래갖고 난타를 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풍물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난타 하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빛이 많이 있었어요. 속에가 화가 엄청 차 있는 상태라, 어디 가서 드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근데 어디가 학원이 있는지,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다 쳐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쳐볼 그런 것도 없이, 누구 알음도 없고 그러니까 몰랐어. 가게에서 한 20년 가까이 저녁 장사만 하다 보니까 막 나와서 하는 것에 서툴러 있었어. 그러던 중에 소모임을 하자 하니 까 뭐, 뭐, 뭐 추천 들어왔지. 난타는 별로 저기 했는데, 내가 난타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막 밀었어.



취미로 색소폰을
즐기고 있는 박정숙



광주광역시 서상동년 역사축제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에서(2017. 10.)

그때 월 7만 원인가? 8, 9만 원인가. 소모임도 난타 학원비로 월 얼마씩 냈어요. 당시에는 형편이 힘들니까, 그 돈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 빛이 있어 놓은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땀겨. 그렇게 난타를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 복채는 하나도 안 부러졌거든? 난 세 개째 뿌리[뿌리뜨러] 먹었어요. 힘이 너무 너무 세갖고. 또 땀한 게 많으니까 '이것이 서방 얼굴이다' 하고 막 두드렸지.

난타를 우리가 한 3~4년 했었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웃음) 또 대회도 가고 공연도 가고. 공연은 보통 알음알음 연결돼서 가요.

공연비를 많이 준 데가 30만 원. 제일 많이 받은 데가 50만 원짜리가 있었나? 몇 명이 가면 대개 그 돈 쪼개잡아요. 근데 우린 안 쪼개고 그놈을 다 간식비로 쓰고, 의상 같은 비용은 개인 돈으로 하고. 재밌었어요.

코로나 온 뒤로는 쉬었어요. 코로나 끝나고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겁나 숨차더만요, 공연하면. (웃음) 그러기도 하고, 우리 딸이 가끔가다 얘기를 봐주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난타는 안 하려고 했지. 그래도 내가 아침 일찍 일하러 갔다가 이제 오후 2~3시면 일이 끝나요. 금계 오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난타는 나이 먹어서 좀 그러고. 그러가지고 색소폰으로 갔어. 난타는 안 하려고 신발이고 뭉고 다 버려버렸지.

그랬는데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애들이 오십 대가 한 네다섯 명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 일하다가 요양보호사로 간 애가 "난타를 안 하면 언니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게, 난타를 하자" 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두 가지 걸 하나. 또 딸이 얘기 봐주라 하면 가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언니,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 내라" 고. 그래갖고 또 난타를 하게 됐죠.

다시 4년 하고 한 3~4개월 됐나? 금계 또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번에 공연도 두 군데 갔다 왔어요. (웃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두세 시간씩 학원에 가서 연습해요. 그러다보니 이제 취미생활로 색소폰 하지, 난타하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또 친구들과 하고 파크볼 하려고 채 사났는데 아직 조가 안 짜진게[짜지니까] 못하고 있네요.

우리 빛나홈 협동조합은 일하는 식구들이 얼마 많지 않아갖고 단합이 잘 돼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또 무장[갈수록 더] 새로운 사람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은 적어. 그래도 그냥 이대로 가자 그랬지. 적으면 적은 대로 가자고. 다른 데보다 단합이 잘 돼갖고, "어디를 가자!" 그러면 거 가서 보면 우리 식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먼데도.

빛나홈 팀들이 좀 드세지, 나부터서. (웃음) 단합심이 엄청 좋아갖고 '모이자!' 그러면 딱 모이고. 밥도 먹고, 1박 2일로 놀러도 가고.

진짜 한둘이나 빠질까, 거의 다 모여.

또 월례 회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이 좀 딸리게[부족 하나까]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도 거의 다 와요. 모이면 김밥이나 김치찌개. 겨울 같은 때는 돼지고기만 넣고 김치찌개 한 가지에다 해서 같이 먹고. (웃음) 아무튼 가족적인 분위기에요. 봉사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안 나오면 벌금이 있어. 정해놔서, 규칙을. 회의 빠지면 벌금이 5천 원, 봉사 빠지면 만 원. (웃음)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참석도 잘하고 또 끝나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또 누구 집에 뭘 일 있다고 하면 후원을 잘해요. 그런 것 갖고 과일 사 먹고. 아무튼 즐겁잖아요, 즐겁지만.

또 고객들하고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었으면 와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거울에 막 물때가 올라갔고, 아무리 해도 안 닦인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좀 안 좋은 것인가 봐” 그런 얘기. 또 “어떤 거 쓰면 잘 된다” 그런 것들. “일하는 데 뭐 쓰면 좋냐, 어떻게 하나” 서로 다 묻고 갈쳐주고[가르쳐주고]. 일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서 “무엇은 어떻게 해?” 그리고 메시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잘한 거지, 지금이.



빛나흠 식구들과 함께 떠난 베트남 하롱베이 여행에서(2023)

보내면, 또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내가 사회 친구도 있고 동창들도 있지만, 동창들은 나 여기 다니는지 몰라요. 일이 나쁜 것도 아닌데, 직업에 저기가 없다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했어. 그냥 나 혼자 생각인 거야, 상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빛나흠은 그냥 집에서 만난 식구들같이 “야, 야”, “너”, “야”, 막 그래도, 심지어 욕을 약간 섞어서 얘기를 해도 너무 다정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만약에 조금 욕을 섞어서 했다고 해도 ‘내가 왜 그러지’ 이러지만은, 빛나흠 식구들은 다 알아주니까, 너무 자유롭고. 그냥 즐거워요.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 잘한 거지, 지금이. 가사노동자로 일하면서 가정에 금전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내 삶에 영향이 있었고. 금전적인 게 최고죠. 이번에 아들 집 사갔고 오니까, 내가 벌어서 칠천오백 정도 보태줬네. 그게 제일 잘한 것 같고. 애들한테 힘든 모습만 보여줬다가, 빛나흠에서 일해갔고. (웃음)

그리고 또 사람 만나는 것. 여기 있음으로 해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좋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얘기 들으면 또 힘든 사람 많이 있어서 같이 위로가 됐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제 흥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가사노동자 일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웃음) 다른 사람들은 아파갖고 약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저는 나이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식당에 한 열 몇 시간씩 있는 것보다 이거는 일도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한 집에서 4시간 있고, 또 한 집을 옮기고 4시간. 그러면 8시간 금방 가버려. 근데 식당에 있으면은 간혀 있어갖고, 아주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제는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뻘찐[힘든] 감이 있는데, 이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지금 8시간 일하는 게 아주 딱 좋아요. 그리고 몰라. 외관상 좀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고객 집에 가면은 처음에 간 집들은 나이를 물어보거

지금
8시간 일하는 게
아주 딱 좋아요

든요. “몇 살이나 먹었어요?” 다 궁금하잖아요, 처음 만나면. 그러면은 내가 58년생인게, 좀 깎아서 “58살이요” 그렇게 말해.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믿는 거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지금 오전, 오후로 하루에 두 탕 뛰라고 했잖아요. 건강이 허락하면 한 타임은 줄여보고[줄여버리고] 한 타임만, 그냥 용돈처럼 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하고 싶다. 그게 언제가 될지 나이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요.

남들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에이~” 할지는 몰라도 진짜 일을 해보니까, 부듯하고 참 매력적인 일이다. 왜? 보수도 괜찮고, 그분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다 하고 가면 “아, 너무 좋다.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사람 없을 때 하고 오면 꼭 문자를 또 준[주는] 사람도 있어. “아, 공기부터 달라” 그러면서. 그럴 때 좋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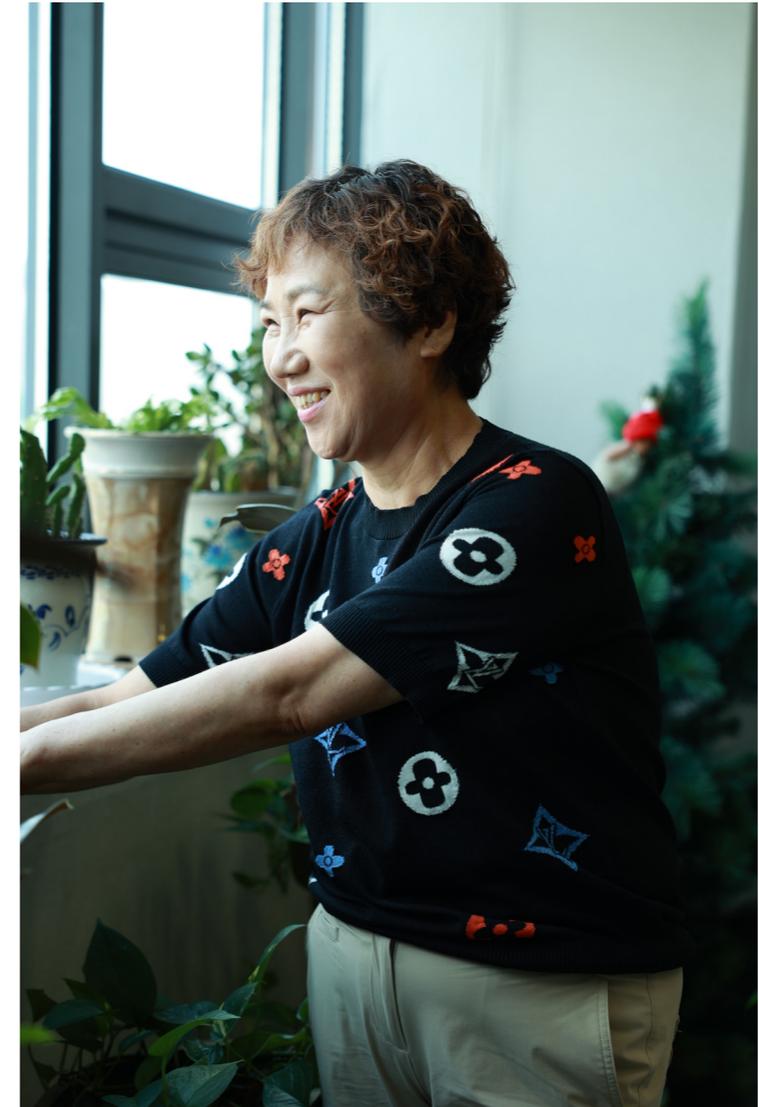
사람들이 좀 이 일에 많이 들어와서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 이 일은 안 하려 하더라고. 내가 몇 사람한테 소개도 했거든. 근데 요양보호사는 했으면 했지, 이거는 안 할라[하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가사노동자가 식모들이었잖아요. 식모들이 집에서 살면서 굶은일 다 해주고. 그런 게 있어서 인식이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 해보면 아닌 거 아는데.

나는 결혼해서부터 삶을 별로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데요. 몇 차례 죽으려고도 했었어, 너무 아니니까. 신혼 때도 한번 남편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젊어서는 앞이 안 보인[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 학교 다 졸업하고 각자 자기들 앞가

림하러 나가니까, 지금은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어요.

내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어디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가게 할 때는 365일, 쉬도[쉬지도] 안 하고 했어요. 명절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공무원 못지않게 너무 내 삶이 만족스러워요. 나이 먹을수록 더 좋네요.



구술 채록 인터뷰를 하면서(2024. 6. 28.)

- 1958 | 01세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남
위 언니가 일찍 사망해서 장녀로 자람
- 1974 | 17세 중학교 졸업,경남 마산 한일합섬 방직공장 취업, 부설 여자실업고등학교 입학
- 1977 | 20세 한일합섬 부설 여자실업고등학교 1회 졸업
- 1985 | 28세 아버지의 성화로 차종손(次宗孫)인 남편과 중매 결혼
전남 장흥군 시가에서 6개월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 남편과 합가
- 1986 | 29세 첫째(딸) 출산. 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
- 1987 | 30세 친구가 살던 광주 광천동으로 딸 데리고 이주. 핫도그 장사 시작
- 1988 | 31세 남편과 재결합. 둘째(아들) 출산
- 1993 | 36세 광주 서구 발산다리 부근 소비자 조합에서 문구점 코너 운영
남편은 택시 기사로 일하기 시작
- 2001 | 44세 광주 북구 용봉동, 일곡동에서 호프집 운영
일곡동에서 가게 할 때 가사노동자 친구에게 집안일을 부탁함
- 2007 | 50세 기존 가게들을 합쳐 북구 용봉동에서 남편과 같이 가게를 운영
임대료, 건물주 갑질, 남편 바람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냄
- 2014 | 57세 (추정) 빛과 남편에게서 벗어나려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시작
초반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한다'는 생각에 마음고생을 함
- 2016 | 59세 (추정) 가사노동자 동료들과 난타 소모임 결성. 마음의 응어리를 풀
- 2024 | 67세 가사노동자로 일한 덕분에 여러 취미 활동하면서 즐겁게 생활 중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사업 소개

기록되지 않은 개인의 편린이 모여
보편적 역사가 되다
진은주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구술채록·집필후기 208

기록되지 않은 개인의 편린이 모여 보편적 역사가 되다

진은주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가사노동자'를 주제로 한 광주여성 구술채록단 보수교육 모습(2024.4.9.)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누구도 제대로 기록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편적인 역사로 만드는 일인데 얼마나 송고한가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세 번째 발간물인 '여성 가사노동자' 편이 드디어 활자화되었다. 난생처음 자신의 직업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굴곡진 생애사를 읊어주는 구술자들의 용기와 구술담이 고스란히 깃든 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를 찬찬히 경청하며 한 땀 한 땀 기록하고 때론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의 삶까지 돌아봤다는 채록자들의 노고가 배어있는 책이다.

다소 막막했던 게 사실이다. 올 초봄이 시작되자마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생애구술사 단행본 발간 작업을 추진하자고 결정되었을 때부터 윤곽이 흐릿해 전개 과정이 그려지지 않았다.

2022년 방직공장 여성노동자와 2023년 전통시장 여성상인들의 구술채록을 각각 진행했을 당시에는 공장과 시장이라는 특수 공간과 역사가 전제되어 있어 사업 도입의 설계가 다소 순탄했지만, 가사노동이란 우리나라에서 개별화되고 사적화되어 있는 주제여서 참으로 막막했다. 지역사회의 가사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렇다 할 만큼 체계화된 스토리도, 연표도, 거점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런저런 고민 중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를 만나게 됐다. 광주지역 가사노동자들의 생애구술집을 만들어 보려 한다는 말에 "정말 좋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업이 처음 있는 일이라 더 반갑고, 그것이 광주에서 시작되니 더 고맙다"는 환영을 건네왔다. 현대 아무런 자료도, 기록도 없어 걱정이라는 말에 대뜸 최 대표는 "그래서 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누구도 제대로 기록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편적인 역사로 만드는 일인데 얼마나 송고한가"라는 응원을 보내왔다. 맞다. 아무도 귀하다고 여겨주지 않았던, 그러나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을 살아내며 가정과 나라를 일군 주역들이 바로 가사노동자들이 아닌가. 새삼 힘이 났다.

그렇게 꽃이 지친인 4월에 가사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이번 생애구술사 작업의 원동력은 광주여성구술채록단에 있다. 재단에서 지난 2021년 진행된 구술채록학교를 통해 배출된 구술채록단은 채록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광주지역민들로 구성돼 있다. '광주가 기록한다'는 취지의 재단 생애구술사 사업에 가장 걸맞는 주인공들인 셈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구술자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대단한 전문직업인이자
가정경제를 이끌어 온
진정한 가장



채록단 중 10여 명이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보수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가사노동자의 역사 및 관련 법제도 ▲한국 가사노동자들의 실제생활상(삶)과 고충 ▲가사노동자들의 현재 변화된 상 ▲가사노동자 구술 생애사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해 집중 공부했고 이 중 김강현, 이정선, 장상은, 조정미, 한영숙 총 5명의 채록자가 실제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됐다.

채록 총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여성노동자회의 서연우 회장이 맡아줬다. 그리고 생애구술 전문가인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흔쾌히 자문 및 컨설팅을 책임져 줬다. 이들과 함께 재단은 구술자를 모집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관계자들을 통해 구술자를 소개받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어떤 이는 구술을 희망하면서도 “주변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알고 나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까 걱정”이라고 잠시 망설이기도 했고, 구술자로 결정된 어머니 2명은 남편과 가족의 반대로 끝내 구술을 취소하기도 했다. 여러 난항을 반복하다 마침내 귀하고 귀한 5명의 구술자가 확정돼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는 작업의 물꼬를 텄다.

매칭된 구술자와 채록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뜨거운 여름 한낮에도 만나 인터뷰를 이어갔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만나 혹은 전화 통화로 계속 채워갔다. 서로의 영역을 모르고 만났던 이들은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넘나들며 라포를 형성하는 데 진심을 다했고, 그렇게 대화하며 기록하고 함께 울고 웃었다. 구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선택해서 별것 없이 바쁘게만 산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고 나니, 나 참 잘 살았네” 하며 행복해했고, 채록자들은 “치열하게 살아오신 구술자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대단한 전문직업인이자 가정경제를 이끌어 온 진정한 가장”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서로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풀어내기 위해 또 다른 짬을 내 공부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채록자는 녹취를 풀고 기록을 다듬으며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내 구술자를 만나고, 구술자는 그런 채록자의 노력에 고마워 정성 담은 식사 한 상을 손수 차려주기도 했다. 초고가 몇 차례의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퇴고가 될 때까지 채록자와 구술자의 대화는 응골지게 익어 갔다. 그 농익음에 집중할 때쯤 창밖을 보니 낙엽 쌓인 가을이었다.

지역에서 영상기획자로 활동 중인 이지선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이 같은 구술자와 채록자의 숭고한 작업을 곁에서 또다시 기록해 냈다. 부족한 예산 탓에 재능기부 하다시피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지선 감독은 역시 프로였다. 촬영뿐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과 실천, 시나리오 작성까지 전천후로 해내는 능력을 발휘했다. 이지선 감독이 엮어 내놓은 사진과 영상은 향후 광주여성 아카이빙 작업을 위한 자료 축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초겨울 길목에서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세 번째 발간물 ‘여성 가사노동자’ 편을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이 글에 언급된 모든 관계자들은 올 사계절 내내 기획회의를 통해 방향 점검과 개선사항 피드백을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가면 갈수록 가사노동자가 얼마나 숭고한 직업이고 인생인지도 피부로 실감하며 작업했다. 사회적 편견과 틀을 깨부수고 들어서자고 서로 각오하며 함께 이 길에 들어섰지만, 구술자의 이야기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구태의연하게 오만과 편견에 물든 사람들인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구한 사연이 많거나 지금도 그 굴곡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를 떨치지 못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현재 그를 조우하며 당황하는 우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직업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구술자의 진심 어린 모습 앞에서 우리는 실로 큰 깨달음을 선물 받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는 단행본 1권을 결실로 내놓은 것이 아니다. 지난 사계절 동안 5명의 가사노동자를 통해, 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무수한 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삶을 겹겹히 알아나가며 물들어 공부한 것이다. “내 것이든 네 것이든 나는 그저 ‘내 것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박연옥 구술자 님은 ‘진정 나는 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했다.

기록되지 않은 개인의 편린이 모이면 반드시 보편적인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이 글을 갈무리하려 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누가 애써 기록하지 않는, 많은 영역의 허스토리를 역사문화자료원으로 축적하는 데에 애쓰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 말이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사업 추진 기획회의의 장면



당신의 삶을 기록하며 나의 길을 돌아보다

한영숙

주향복 구술채록 및 집필

구술자 주향복님은 광주에서 가사노동자로 활동하다 은퇴하여,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외손녀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관계로 서울을 자주 오가는 나에게 채록 기회가 주어졌다. 주말에 서울 가는 기회를 이용한다면 남양주는 쉽게 다녀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채록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막상 면담 일정을 잡다 보니 동행하는 영상담당 선생님은 주말에는 출장이 안 되고, 주중에도 출장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광주에서 남양주까지의 왕복 시간과 두 시간가량의 채록 시간을 포함하니 출장 시간의 초과는 볼 보듯 뻔했다. 더구나 주말을 이용하려던 계획마저 공염불이 되었으니 당장, 채록 날짜와 출장 시간의 조율이 필요했다. 이런 사정을 구술자님께 말씀드렸더니, 금요일로 일정을 잡으면 서울까지는 자녀분이 데려다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서울로 나와 주신다면 남양주까지의 왕복 출장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에 마땅한 채록 장소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일단 채록 장소를 서울역과 수서역 근처로 잡고 마땅한 장소를 찾았다. 서울의 지리와 사정에 어두워 아들 찬스를 썼더니 수서역 인근 스튜디오카페를 찾아주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간단했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생기면 낭패다. 그래서 예약 전 통화를 원한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회신도 없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아 다른 장소를 찾았다. 다시 찾아준 곳이 개포역 근처스튜디오카페였다. 처음 장소보다 거리는 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곳에는 상시 근무자와 통화가 가능했다. 채록 날 열차 도착 시간대에 맞추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 촬영에 필요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한 달 전에 예약을 마치니 면담의 절반이 해결된 셈이다.

채록일 아침 일찍 영상 선생님과 만나 송정역을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예약된 공간은 화면으로 보았던 장소보다 너무 협소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창문 있는 방을 선택한 영상 선생님의 안목이 신의 한 수였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셨다는 구술자님 전화를 받고 마중을 나갔다. 통화음으로 들었던 당찬 목소리의 구술자님은 초면이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보통 여성보다 조금 큰 키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의욕적이고 강단 있어 보이는 다부진 인상이 득직한 여장부 포스다. 이런 주향복님은 한마디로 청산유수형 구술자였다.

구술이 시작되자 마치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기라도 한 듯, 두 시간 삼십 분을 쉬지도 않고 지난 삼십 년의 삶을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그이의 결혼 전 생활이 '풍족하게 보낸 천방지축의 철부지 시간이었다면, 결혼 후 삼십 년은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운명을 '모든 게 다 팔자소관'이었다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다. 그리고 그의 지난날을 되돌아 "인생은 절대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금과옥조(金科玉條)의 어록을 남긴다. 이런 그이 인생이 안쓰러워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럼,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죽은 날"이라는 폭탄 같은 대답을 던진다. 내가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복잡해지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남편 죽고부터는 한숨을 쉬지 않게 되었으니, 그게 행복 아니겠냐"는 너털웃음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이 인생은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를 보듯 눈에 선연하게 진한 여운으로 남는다.

"내가 젊어 삼십 년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삼십 년은 그 값을 치려야 하지 않겠냐?"며 너스레 떠는 웃음은 그가 비틀거리며 걸어온 삼십 년 노동 현장의 진솔한 시간이, 곧 우리 여성 노동자의 역사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 믿어진다.

주향복님 노동의 대가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드님과 자랑스러운 따님이 그의 노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사랑스러운 외손녀의 재롱 속에 다복한 나날, 웃음 많아지는 시간 보내시라는 응원 보낸다. 벌써, 광주여성 생애구술사가 3회 차를 맞았다. 귀한 채록의 기회를 주신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노동자회'에 감사드린다. 서울까지 동행했던 영상담당 이지선 선생님은 함께여서 참으로 든든했다. 끝으로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발간사업이 앞으로도 쭉~욱 이어지길 기원한다.

조경미

정혜선 구술채록 및 집필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이번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와 설렘에 내 가슴은 두근거린다. 거기다 첫 만남을 갖기 위한 사전 통화에서 망설임이 역력한 정혜선 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걱정 한 줄이 더 추가된다. 처음 보는 낯선이에게 자신 삶의 궤적을 가감없이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남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에게는 더욱더. 그래서 본인의 동의하에 만났다 해도 언제나 마음이 바뀔 변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나의 이런 기우와는 달리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짓고 약속 장소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반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울컥거리곤 한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건너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정혜선 님은 시종일관 밝고 환하게 웃었다. 마치 유쾌한 얘기를 하듯. 그래서일까? 고생하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연세에 비해 젊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주위에서 '무한긍정의 아이콘'이라 부른다는 이유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정혜선 님은 가사노동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베테랑이 되었지만, 일 외적인 바깥 활동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가사노동자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을 대하는 세간의 시선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나”는 그녀의 얘기처럼, 가사노동을 할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이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직업을 쉬이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직업에 대한 편협한 시선이 많음이 씁쓸하게 안타까웠다.

일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인정받아야 하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본다. 눈물과 웃음이 넘치는 움푹푹하면서도 풍성한 그녀의 이야기들을 지면상, 혹은 누군가에게 누가 될까 염려하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다 옮겨 심지 못함도 안타깝다.

지금은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그녀는 굴곡진 삶의 고난의 순간에도 참고 견디며 곳곳이 가정을 지켜왔다. 그녀의 눈물로 쌓은 기도의 탑 덕분인지, 그녀를 닮은 딸들 또한 회사의 중책으로, 교육자로 각자의 영역에서 멋지고 당차게 활약하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녀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는 그녀의 현재에도, 다가올 미래의 삶에도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올해도 생애구술사를 통해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여성노동자회에 감사드린다.

김강현

전희숙 구술채록 및 집필

이번 구술 채록 작업을 앞두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님의 보수교육을 받던 날, 가사노동자는 근무 형태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 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953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아르바이트하거나 취직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 사회보험을 납부하며 근무를 한 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했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는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내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누렸던 것이 가사노동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더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인증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만 해당이 되어 여전히 많은 가사 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적인 노동자라면 출퇴근 시간에 다쳐도 산재 적용이 되고, 가사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근무 형태가 특수해서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던 배달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는 당연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는데, 왜 가사 노동자들은 인증된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만 이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채록 작업을 하던 중 나는 배우자가 다쳐 입원하면서 간병은 기본이고 육아와 가사에 이어 반려동물 케어까지 혼자서 하느라 진땀이 나는 시간을 보냈다. 구술자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잠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볼까? 고민했다가 난장판인 사적인 공간을 남에게 보여 주기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구술하시던 구술자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나도 한 번 가사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어떨까? 상상해 봤다가 내 공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 손을 댄다는 것이 덜컥 겁이 났다.

이처럼 가사 노동은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자 노동으로 이용하려는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

흔히 특수 고용 노동자라 하는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가사 노동자보다 나중에 생긴 직업들도 투쟁 끝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보호받는 지금, 가사 노동자들도 하루 빨리 인식 개선이 되고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장상은

박연옥 구술채록 및 집필

구술원고를 마무리하고도 한참동안 인터뷰 후기 글을 적지 못하고 버티다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다. 마음으로 공감하고 담담히 받아 적어 내야겠다고 작정했지만 가장 먼저 편견을 갖고 일을 시작한 건 내가 아니었나를 돌아보는, 조금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

광주 여성들의 일과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진행되는 구술채록 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성과 노동'에 대한 지극히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나 보다. 게다가 매일같이 글을 쓰고 상황을 구성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구술자의 이야기 속에서 뭔가 극적인 상황이나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사건들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직접 만나 귀한 경험담을 들려준 구술자는 일상에서 친근히 만날 수 있는 엄마 같고 이모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였다. 어느 인생에 굴곡 하나 없겠나 싶지만 자신 앞에 마주한 시간들을 그저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내고 있는 그런 분 말이다.

가사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술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 현관과 말끔하게 정리된 집안 풍경이었다.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구술자의 '하고 계시는 일이 이렇게 집에서도 반영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준비해 주신 차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어디서 들었는데 내 집을 청소할 때 남의 집 것을 대신해 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미루는 것 없이 깨끗하게 된다더라. 저는 집에서 그게 안 된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구술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다. 내 것이든 네 것이든 나는 그저 '내 것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답했다. 안팎으로 만나게 되는 가사노동을 주부로서의 응당한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일'로, 사명감 넘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매사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술자의 응답이었다.

그렇다. 가사관리사는 명확한 업무를 수행중인 하나의 직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을 정리하기에 앞서 이번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만나게 되는 분들을 '가사노동자'라 해야 할지 '가사근로자'라고 해야 할지, 어떤 이름이 이들의 직군을 소개하는 대표 용어가 될지에 대해서도 무척 혼란스러웠다. 보통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또한 가사노동자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사 등 -그 일이 결코 가볍거나 소홀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호칭조차 구분하고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가사노동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번 구술의 개인적 성과(또는 성찰) 중 하나라면 하나겠다.

게다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13년을 맞았지만 무관심으로 그 또한 알지 못했던 것을 반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를 지정하면서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주목한다. '아줌마', '이모님' 등의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기존과 현재의 상황에 반해 '관리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게 해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대신 해 주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사노동자를 '숙련된 노동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본 구술을 진행하며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흔히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말을 한다. 정직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해냄으로 이 사회라는 톱니바퀴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직접 번 돈으로 떠나보니 "서유럽도 좋고, 동유럽도 좋더라"는 말이 구술자의 밝은 웃음과 함께 다시금 떠오른다. 무엇보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발견한 나의 직업에 대한 절렬한 인식을 일깨워준 구술자 박연옥 님께 감사하고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여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이정선

박정숙 구술채록 및 집필

광주여성구술채록단으로서 올해 세 번째 작업에 참여하였다. 새로운 분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늘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올해는 각종 정부·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진은주 실장님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지선 선생님이 영상과 사진 촬영은 물론, 다양한 제안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우리 인터뷰 횟수는 한 분당 2회로 줄었다. 제한된 시간에 구술자의 인생을 풀어내야 한다니 자연히 긴장되었다.

올해는 유독 구술자 섭외가 어려웠던 것 같다. 내 경우도 섭외되었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 의사를 번복하시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대표님이 구술자를 다시 섭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셨고 나도 두세 분 직접 만나 뵈거나 전화로 인사드렸다. 박정숙님은 이런 상황에 어렵게 참여를 수락해주신, 말 그대로 구원자였다. 처음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하셨다가 우리 상황을 알고 수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본격적인 구술 채록을 앞두고 찾아뵈었을 때 박정숙님은 생애 구술이 처음이고, 가사노동자로 10년 정도 일했지만 아직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광주여성구술채록 사업은 지금껏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광주 여성의 생애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가사노동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았다. 모쪼록 이번 광주여성구술채록 사업이 박정숙님께 부담을 드리거나 누가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구술 채록을 하면서는 박정숙님의 인간적 매력에 푹 빠졌다. 역경을 이겨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몸에 밴 타인에 대한 친절과 배려, 힘든 상황일수록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입담과 눈웃음까지. 박정숙님은 어릴 때 별명이 선머슴이었고 여자친구들 내숭 떠는 건 싫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생애 이야기 속 즐겁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언제나 여자친구들과 함께 하셨다.

지금도 파워 E(외향형) 성향이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시면서도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계셨다.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와 넘치는 활력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두 번의 인터뷰가 끝난 후 다시 찾아뵈신 박정숙님은 광주여성구술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말해주셨다. 다른 분이 고사했기 때문에 우연히 다시 찾아온 행운. 이번 사업으로 박정숙님을 공공연히 드러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시진 아닐까 전전긍긍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했다. 구술 도중에 표현하신 것처럼 박정숙님은 훌가분하고 자유로워 보이셨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가사노동이 생산적 노동임을, 가사노동자 역시 당연한 노동자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제도 마련에도 힘을 보태자!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III : 여성 가사노동자 편 003

우리는 '마이다스 손'이라 그래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발행처	광주여성가족재단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구동 21-1) 광주시민회관 1,3,4F Tel.062-670-0500 Fax.062-670-0505
홈페이지	gjwf.or.kr 인스타그램 @gjwomenfamily
발행인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획 및 편집	진은주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구술채록 진행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채록 및 집필	광주여성구술채록단 김강현, 이정선, 장상은, 조경미, 한영숙
사진 촬영	이지선 영상기획자
윤문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디자인	디어마인드디자인스튜디오
ISBN	979-11-92220-42-0 비매품/무료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